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

- 기간 : 2020. 1. 7.(화) ~ 1. 10.(금)
- 장소 : 통영마리나리조트

- 차례 -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 계획 - 5

직무연수 연수생 명단 - 8

직무연수 공통 - 11

13 | 행복학교 정책 이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김재무

19 |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역량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선영

27 |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수석교사 박현숙

직무연수 교장·교감, 행정실장 - 35

37 | 행복학교에서 리더십 발휘하기 교방초등학교 교장 양재욱

49 | 함께하는 행복학교 봉명중학교 행정실장 이지연

직무연수 초등 1반 - 55

57 | 행복학교 '문화'로 다가가기의 첫걸음은?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박희란

61 | 학교업무 경감에서 학교업무정상화로 내곡초등학교 교사 김성탁

73 |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가좌초등학교 교사 황현숙

83 | 행복학교 학년 교육과정, 함께 만들자 증산초등학교 교사 이미라

93 | 충무공초 행복학교 첫1년 이야기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서향아

101 |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갈전초등학교 교사 김민주

직무연수 초등 2반 - 109

- 111 | 행복학교 '문화'로 다가가기 마암초등학교 교사 손명기
- 115 | 업무혁신, 학교혁신의 시작입니다 송진초등학교 교사 신용호
- 123 | 행복학교 교육과정 만들기 동광초등학교 교사 이제호
- 133 | 다시 보는 학년 교육과정 수곡초등학교 교사 박은정
- 141 | 벌써 1년, 반짝반짝 빛나는 동행의 행복학교 첫 해 이야기 반동초등학교 교사 양진호
- 147 |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이해와 실습 남명초등학교 교사 서영현

직무연수 중등반 - 157

- 159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봉명중학교 교사 김은수
- 177 | 학생자치 봉명중학교 교사 송순호
- 181 | 행복학교 2019학년도 1년차 새내기 이야기 진주제일중학교 교사 노경순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I 추진 근거

- 2020 경남교육 1-3-1 행복학교 확대 운영(행복학교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II 추진 목적

- 2020. 행복학교 선정 학교 교직원의 행복학교 이해 및 추진 동력 확보
- 행복학교 운영 철학 및 추진 방향, 4대 추진과제에 대한 정보 이해 및 공유
- 행복학교 현장 실천사례 공유를 통한 교직원의 역량강화로 행복학교 운영의 성공적 안착

III 추진 방침

- 합숙 연수를 통한 행복학교 교직원간 소통 및 연수의 집중력 강화
- 주제별 연수에 대한 이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습 위주의 연수 운영
- 학교별, 업무 담당자별 워크숍을 통한 행복학교 추진·지원에 대한 논의 및 운영 계획 수립

IV 세부 추진 계획

1. 연수 대상자: 2020. 선정 행복학교 교직원, 교육지원청 행복학교업무 담당 장학사, 총 160여 명
2. 연수 기간: 2020. 1. 7.(화) ~ 1. 10.(금)
3. 연수 유형(시간): 3박 4일 합숙 연수(30시간)
4. 연수 장소: 통영 마리나 리조트

5. 과목 편성 및 시간 배당

순	교과목 및 주제		시간	소속	직위	강사명	
1	공통	교육감 특강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박종훈	
2	공통	(특강)혁신교육과 미래교육역량	2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선영	
3	공통	(특강)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다	2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수석교사	박현숙	
4	공통	행복학교 정책 이해	2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김재무	
소 계			7시간				
5	초등 중등	행복학교 '문화로 다가가기'	3	초등1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박희란
				초등2	마암초등학교	교사	손명기
6	초등 중등	업무경감 돌아보기	3	초등1	내곡초등학교	교사	김성탁 장물래 박영철
				초등2	송진초등학교	교사	신용호
				중등	사파중학교	교사	하옥주
7	초등 중등	행복학교 교육과정	3	초등1	가좌초등학교	교사	황현숙 이제호 주봉준 김민수
				초등2	동광초등학교	교사	김은수 조삼순
				중등	봉명중학교	교사	이미라
8	초등	행복학교 학년 교육과정 -프로젝트수업	3	초등1	증산초등학교	교사	이제호 박은정 박춘화
	중등	학생 자치		중등	봉명중학교	교사	송순호 이대희
9	초등 중등	행복학교 교사를 말하다 - 행복학교1년차 교사와의 대화	2	초등1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서향아 박민정
				초등2	반동초등학교	교사	양진호
				중등	진주제일중학교	교사	노경순 김민경
10	초등 중등	전문적학습공동체 이해 및 실습 - 독서토론, 수업협의회	3	초등1	갈전초등학교	교사	김민주 이지효 박혜은
				초등2	남명초등학교	교사	서영현
11	초등 중등	학교별 워크숍	3	초등1	경남교육연구원정보원교육정책연구소	교사	한정선
				중등	경남교육연구원정보원교육정책연구소	교사	김지성
12	초등 중등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 워크숍 및 발표	3	초등1	경남교육연구원정보원교육정책연구소	교사	한정선
				초등2	경남교육연구원정보원교육정책연구소	교사	김지성
소 계			23시간				
합 계			30시간				
13	관차	행복학교에서 리더십 발휘하기	3	교방초등학교	교장	양재욱	
14	행정실장	행복학교 행정실 운영 이야기	3	봉명중학교	행정실장	이지연	
15	전체	연수 안내 및 설문 조사	·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심우향	

6. 연수 일정

교사	요일 시간	1월 7일 화요일			1월 8일 수요일				1월 9일 목요일		1월 10일 금요일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조례	09:00 ~ 09:10	충무홀			해금강홀	장사홀	연대홀	비진홀	충무홀	비진홀	해금강홀	장사홀			
1	09:10 ~ 10:00	<등록>(-09.20) 개강식 및 연수 일정 안내 <공통>행복학교 정책 이해 학교혁신과 장학사 강재무			초등1 행복학교 교육과정 기쁘초 교사 황현숙	초등2 행복학교 교육과정 동명초 교사 이재호	중등 행복학교 교육과정 봉명중 교사 김은수	<공통> 미래혁신교육의 방향과 전망 교육부 연구사 안선영	<공통> 미래혁신교육의 방향과 전망 교육부 연구사 안선영	초등1,중등 학교별운영계획 수립 워크숍 경남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사 한정선	초등2 학교별운영계획 수립 워크숍 경남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사 김지성				
2	10:10 ~ 11:00				"	"	"					"	"	초등1,중등 학교별운영계획 발표 경남교육연구원 한정선	초등2 학교별운영계획 발표 경남교육연구원 김지성
3	11:10 ~ 12:00				"	"	"					"	"	※행복학교 현판 수여식 <공통>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
점심	12:00 ~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4	13:00 ~ 13:50	해금강홀 초등1,중등 행복학교 '문화로 다가가기 충무공초 교사 박한란	충무홀 초등2 행복학교 '문화로 다가가기 미암초 교사 손영기	연대홀	초등1 행복학교 학년교육과정 프로젝트수업 중산초 교사 이미라	초등2 행복학교 학년교육과정 프로젝트수업 수곡초 교사 박은정	중등 행복학교 학생자치 봉명중 교사 송순호	<공통>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파견교사 박현숙	<공통>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파견교사 박현숙	<공통> 설문조사 안내 및 평가	<공통> 설문조사 안내 및 평가				
5	14:00 ~ 14:50	"	"		"	"	"					"	"	"	"
6	15:00 ~ 15:50	"	"		"	"	"					"	"	"	"
7	16:00 ~ 16:50	초등1 업무경감 돌아보기 내곡초 교사 김상탁	초등2 업무경감 돌아보기 송진초 교사 신용호	연대홀	초등1 행복학교 교사를 말한다 1학년 교원의 대화 충무공초 교사 서항아	초등2 행복학교 교사를 말한다 1학년 교원의 대화 빈동초 교사 양진호	중등 행복학교 교사를 말한다 1학년 교원의 대화 진주계림중 교사 노경순	"	"	"	"				
8	17:00 ~ 17:50	"	"	"	"	"	"	"	"	"	"				
9	17:50 ~ 19:00	"	"	"	제석식사				초등1,중등 학교별 워크숍 경남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사 한정선	초등2 학교별 워크숍 경남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사 김지성	"				
10	19:00 ~ 20:00	제석식사			해금강홀 초등1,중등 학교별 워크숍 경남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사 한정선	장사홀 초등2 학교별 워크숍 경남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사 김지성	제석식사 및 협회 미룩홀 18.30~								
11	20:00 ~ 20:50				"	"									

연수생 명단

연번	순	지역	급	학교명	직위	성명	성별	배정반	방호실
1	1	양산	초	상북초등학교	교장	조숙남	여	초등1반	719
2	2	양산	초	상북초등학교	교감	김복연	여	초등1반	719
3	3	양산	초	상북초등학교	행정실장	윤종한	남	초등1반	718
4	4	양산	초	상북초등학교	교사	강성수	남	초등1반	718
5	5	양산	초	상북초등학교	교사	박효석	남	초등1반	718
6	6	양산	초	상북초등학교	교사	최윤철	남	초등1반	718
7	7	양산	초	상북초등학교	교사	송병천	남	초등1반	718
8	8	양산	초	상북초등학교	교사	박영미	여	초등1반	719
17	1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교장	이성식	남	초등1반	602
18	2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교감	김을희	여	초등1반	619
19	3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행정실장	황미경	여	초등1반	619
20	4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교사	이태호	남	초등1반	602
21	5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교사	하성일	남	초등1반	602
22	6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교사	이진동	남	초등1반	602
23	7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교사	허진	여	초등1반	619
24	8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교사	강은비	여	초등1반	619
25	9	진주	초	예하초등학교	교사	노산영	여	초등1반	620
9	1	양산	초	오봉초등학교	교장	최진호	남	초등1반	603
10	2	양산	초	오봉초등학교	교감	강기섭	남	초등1반	603
11	3	양산	초	오봉초등학교	행정실장	박수연	여	초등1반	620
12	4	양산	초	오봉초등학교	교사	김수홍	남	초등1반	603
13	5	양산	초	오봉초등학교	교사	최창수	남	초등1반	603
14	6	양산	초	오봉초등학교	교사	전삼열	남	초등1반	604
15	7	양산	초	오봉초등학교	교사	최지숙	여	초등1반	620
16	8	양산	초	오봉초등학교	영어강사	김영주	여	초등1반	620
26	1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장	이정선	여	초등1반	621
27	2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감	김명희	여	초등1반	621
28	3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행정실장	곽민건	남	초등1반	604
29	4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주무관	송영욱	남	초등1반	604
30	5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주무관	박시현	여	초등1반	621
31	6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강문봉	남	초등1반	604
32	7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이두희	남	초등1반	605
33	8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윤광민	남	초등1반	605
34	9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이동주	남	초등1반	605
35	10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곽태윤	남	초등1반	605
36	11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이경민	여	초등1반	621
37	12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김현진	여	초등1반	622
38	13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김영욱	여	초등1반	622
39	14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진보희	여	초등1반	622
40	15	김해	초	장유초등학교	교사	태혜령	여	초등1반	622

41	1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교장	김희자	여	초등1반	623
42	2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교감	김경생	남	초등1반	606
43	3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행정실장	김태현	남	초등1반	606
44	4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교사	류동호	남	초등1반	606
45	5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교사	김경헌	남	초등1반	606
46	6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교사	백아영	여	초등1반	623
47	7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교사	김혜진	여	초등1반	623
48	8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보건교사	강미경	여	초등1반	623
49	9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영양교사	최은주	여	초등1반	705
50	10	하동	초	진교초등학교	주무관	이희정	여	초등1반	705
51	11	창원	초	용지초등학교	교사	이길아	여	초등1반	722
52	1	거제	초	거제초등학교	교감	차영화	남	초등2반	607
53	2	거제	초	거제초등학교	행정실장	양희영	남	초등2반	607
54	3	거제	초	거제초등학교	교사	최규완	남	초등2반	607
55	4	거제	초	거제초등학교	교사	원영숙	여	초등2반	702
56	5	거제	초	거제초등학교	교사	반윤희	여	초등2반	702
57	6	거제	초	거제초등학교	교사	여정민	여	초등2반	702
58	7	거제	초	거제초등학교	교사	이미주	여	초등2반	702
59	1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장	이홍철	남	초등2반	607
60	2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감	김수예	여	초등2반	703
61	3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사	서해옥	여	초등2반	703
62	4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사	김미성	여	초등2반	703
63	5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사	김구술	여	초등2반	703
64	6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사	김은미	여	초등2반	704
65	7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사	이도현	여	초등2반	704
66	8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사	전주영	여	초등2반	704
67	9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전문상담사	최수진	여	초등2반	704
68	10	진주	초	대곡초등학교	교무행정원	성미영	여	초등2반	704
69	1	거창	초	복상초등학교	교장	전영태	남	초등2반	616
70	2	거창	초	복상초등학교	교감	허옥화	여	초등2반	706
71	3	거창	초	복상초등학교	행정실장	김윤정	여	초등2반	706
72	4	거창	초	복상초등학교	교사	김동익	남	초등2반	616
73	5	거창	초	복상초등학교	교사	황명옥	여	초등2반	706
74	6	거창	초	복상초등학교	교사	곽혜정	여	초등2반	706
75	1	남해	초	성명초등학교	교장	하남철	남	초등2반	608
76	2	남해	초	성명초등학교	교감	김광미	여	초등2반	719
77	3	남해	초	성명초등학교	행정실장	송재승	남	초등2반	608
78	4	남해	초	성명초등학교	교사	문대인	남	초등2반	608
79	5	남해	초	성명초등학교	교사	김정현	남	초등2반	608
80	6	남해	초	성명초등학교	교사	김강현	남	초등2반	616
81	1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장	손부희	여	초등2반	707
82	2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감	박종훈	남	초등2반	613
83	3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행정실장	박만수	남	초등2반	613
84	4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사	허정혜	여	초등2반	707

85	5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사	이효진	여	초등2반	707
86	6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사	김민경	여	초등2반	707
87	7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사	이은영	여	초등2반	708
88	8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사	정지혜	여	초등2반	708
89	9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사	민숙자	여	초등2반	708
90	10	함안	초	아라초등학교	교사	김성준	남	초등2반	613
91	11	함안	초	문암초등학교	교사	최창기	남	초등2반	613
92	1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교장	박정민	여	초등2반	713
93	2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교감	홍미자	여	초등2반	713
94	3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행정실장	윤혜정	여	초등2반	713
95	4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교사	김정우	남	초등2반	614
96	5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교사	박주성	남	초등2반	614
97	6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교사	박정미	여	초등2반	713
98	7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교사	이은진	여	초등2반	708
99	8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교사	여화정	여	초등2반	714
100	9	창원	초	온천초등학교	교사	조경진	여	초등2반	714
101	1	김해	초	용산초등학교	교감	심숙조	여	초등2반	714
102	2	김해	초	용산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낙현	남	초등2반	614
103	3	김해	초	용산초등학교	교사	김형준	남	초등2반	614
104	4	김해	초	용산초등학교	교사	박희정	여	초등2반	714
105	1	합천	초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장	김정숙	여	초등2반	715
106	2	합천	초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사	류승현	남	초등2반	615
107	3	합천	초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사	이종명	남	초등2반	615
108	4	합천	초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사	박성수	남	초등2반	615
109	5	합천	초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사	박종혁	남	초등2반	615
110	6	합천	초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사	김경희	여	초등2반	715
111	7	합천	초	합천가야초등학교	행정7급	이상윤	남	초등2반	616
112	8	합천	초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사	남미옥	여	초등2반	715
113	9	밀양	초	사포초등학교	교사	김선배	남	초등2반	721
114	1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장	김언근	남	중등반	617
115	2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감	천금석	남	중등반	617
116	3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행정실장	박소정	여	중등반	716
117	4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김영철	남	중등반	617
118	5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문병호	남	중등반	617
119	6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이승민	남	중등반	618
120	7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임종진	남	중등반	618
121	8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하지훈	남	중등반	618
122	9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허지훈	남	중등반	618
123	10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강선진	여	중등반	716
124	11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강혜련	여	중등반	716
125	12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김정은	여	중등반	716
126	13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배다솜	여	중등반	717
127	14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조미선	여	중등반	717
128	15	사천	중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사	김인주	여	중등반	717
129	16	김해	고	김해분성고등학교	교사	강동선	남	중등반	721



직무연수 공 통

행복학교 정책 이해

김재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I.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행복나눔학교	행복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심화 발전시키고 지역 중심학교 역할을 수행하는 경남형 미래학교
행복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철학 공유 및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학교 준비학교

행복학교란 ‘교육 공동체가 배움과 협력의 토대 위에 성찰, 소통, 공감을 지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형 학교’로서 경남형 혁신학교를 말한다. 행복학교는 교육의 본질과 학교의 참모습을 추구하며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며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르고,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곳이다. 여기서 교사는 서로 협력하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키워 가고, 학생은 지식의 창조자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며 교육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간다.

행복학교의 모습과 실천 방안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핵심 철학과 함께 교육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하며, 각 학교에서는 행복학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행복학교의 기본 철학과 추진 과제는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행복학교 운영 방향

- 가. ‘역량중심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미래형 학교 체제 구축
- 나. 행복학교 운영 시스템의 완성으로 신뢰받는 경남교육 구현
- 다. 행복학교 1기 4년의 운영 성과와 연계한 지속적인 체계 완성
- 라. 단위 학교 중심의 행복학교 운영에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연계 운영
- 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사전문성 신장으로 교실수업개선
- 바. 행복학교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인사 제도 개선

2. 행복학교 운영 배경

- 가. 혁신교육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교육 지원 체제로 전환 필요
- 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형 학교로의 체제 전환 필요
- 다. 창의성, 존중과 배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육성을 위한 시대적·사회적 요구 확산
- 라. 가르침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및 학교 혁신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마.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과 확산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바. 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가꾸어 가는 경남교육 구현

3. 행복학교 운영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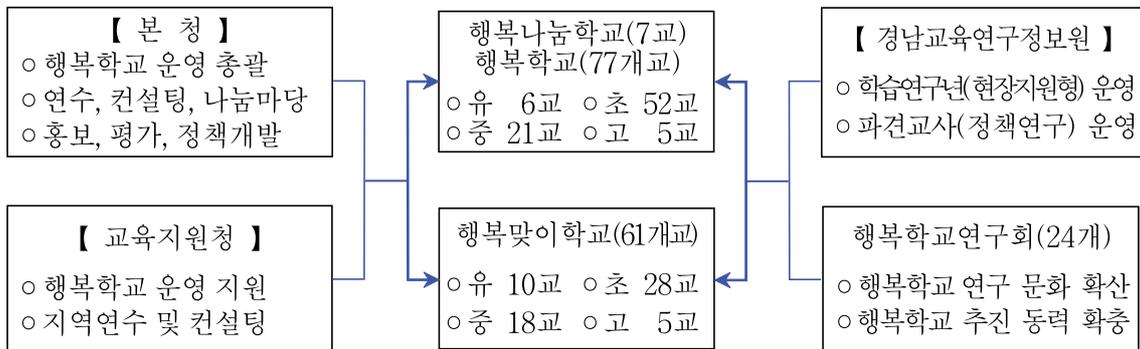


4. 행복학교 4대 추진 과제

추진과제	운영과제(11개)	실행과제(24개)
1.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1) 민주적인 학교 운영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비전 세우기 ·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 확립
	2)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분장 및 권한 위임 · 교감 중심의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을 통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 불필요한 행사 폐지 및 축소
	3)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참여와 소통의 학생 자치 문화 조성 · 학교 운영에 학생 자치회의 의견 반영
2. 배움중심의 교육과정	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년 통합, 교과 통합 등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 생태, 문화·예술, 인권, 평화, 민주 시민 교육 등의 교육 강화

추진과제	운영과제(11개)	실행과제(24개)
편성·운영	2) 배움중심의 수업 개선	·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 모색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배움중심수업 실천
	3)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수행평가 내실화 · 성장을 돕는 평가 결과 활용 및 안내
3.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1) 집단지성의 학습 공동체 운영	· 교과, 학년 및 학교 단위의 협력적인 연구 활동 활성화 · 교사 연구 동아리 운영
	2)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 수업 성찰을 위한 수업 나눔 및 협의회 개최 · 질 높은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
4.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1)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조성	·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생활규범 개(제)정 ·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강화 · 학부모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 기부를 활용한 교육 활동 참여 · 지역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행복학교 운영 체제(2020년)



행복나눔학교 ⇨	○ 목적 : 경남형 미래학교 ○ 운영 : 4년	○ 과제 : 4대 추진과제 및 지역 중심학교 ○ 지정 : 매년 3개교 내외(2022년 12교 내외)
행복학교 ⇨	○ 목적 : 공교육 모델학교 ○ 운영 : 4년	○ 과제 : 4대 추진과제 ○ 지정 : 매년 13개교 내외(2022년 88교 내외)
행복맞이학교 ⇨	○ 목적 : 행복학교 준비 ○ 운영 : 1년	○ 과제 : <필수>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선택> 과제 2~4 중 택1 ○ 지정 : 매년 50개교 내외(4년간 200교 내외)
행복학교 연구회 ⇨	○ 목적 : 행복학교 연구 문화 확산, 행복학교 추진 동력 확충 ○ 운영 : 1년	○ 과제 : 행복학교 운영 관련 자유 주제 ○ 지정 : 24개 내외(4년간 90개 내외)

II. 학교문화 혁신(행복학교 일반화) 추진 내용

주제	세부 주제	추진 내용	비고
1.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문화 형성	1-1.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문화 조성	월 1회 주제가 있는 교직원 토론회 운영	초·중등교육과
	1-2. 학교비전 공유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비전 함께 세우고 평가하기	초·중등교육과
2.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2-1.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조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운영	학교혁신과 초·중등교육과
	2-2.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육과정 및 수업 연구, 독서토론	학교혁신과 초·중등교육과
3. 학생이 주체가 되는 자치활동	3-1. 학생회 자치활동 기반 조성	학생자치활동 시간 편성·운영	민주시민교육과 초·중등교육과
	3-2. 학생 중심 학교행사 활성화	학생회 주도 학교행사 운영 확대	민주시민교육과 초·중등교육과
4. 상호 존중 학교문화 형성	4-1. 교원과 학생·학부모 상호 존중 관계 형성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소통 확대	민주시민교육과 초·중등교육과
	4-2. 학생 성장을 고려한 일과운영	중간놀이(초), 쉬어 있는 날(중) 운영	초·중등교육과

Ⅲ. 2020. 행복(나눔, 맞이)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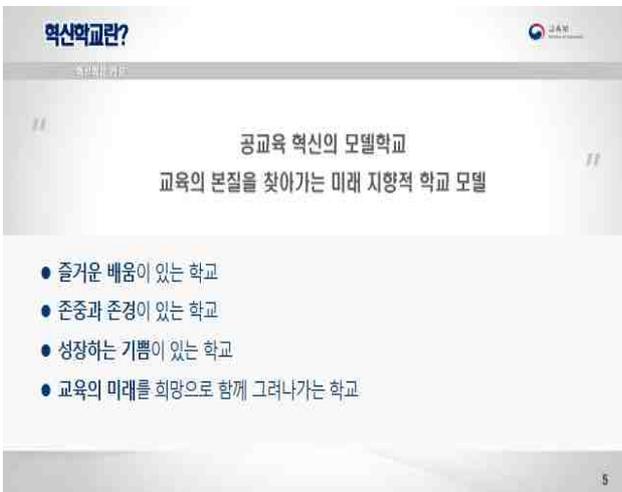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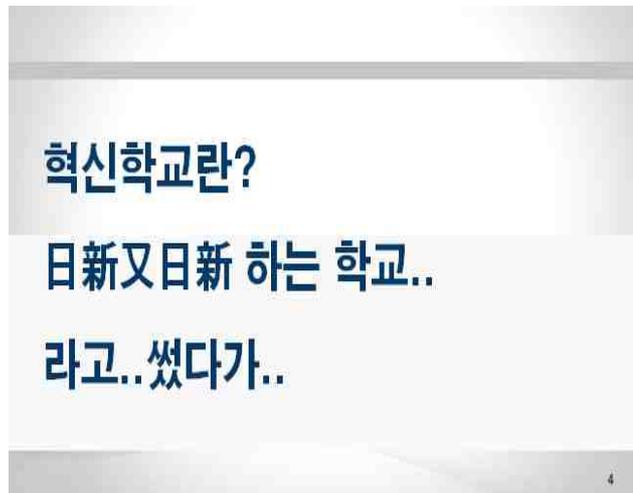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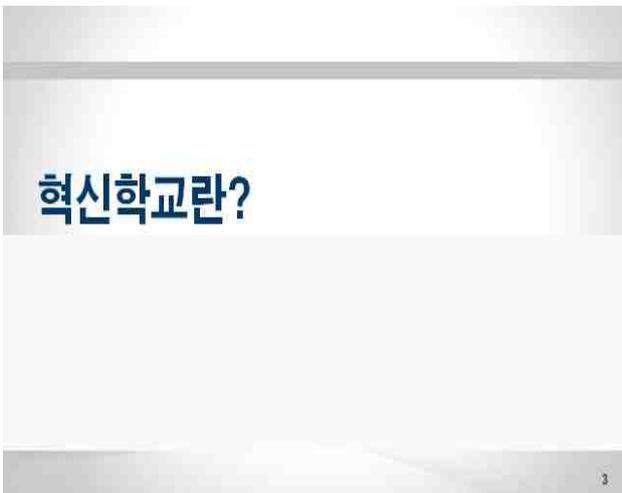
연번	지역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				
		2015년 지정 (2019년 재지정)		2016년 지정 (2020년 재지정)		2017년 지정		2018년 지정		2019년 지정		2020년 지정			소계	유치원	초등	중등	소계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유·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유치원	초등	중등					
1	창원	용지초		교방초 제황초	사파중		웅동중	창원한들초	양덕중 진해남중	반동초 호계초			온천초	11		대야초 상일초 창원남산초	구암중 대방중	5	
2	진주	수곡초		갈전초		관봉초	대곡중	가좌초		천전초 충무공초	진주제일중		대곡초 예하초	10		남강초 무지개초	지수중 명신고	4	
3	통영		충무여중							인평초				2		제석초		1	
4	사천	서포초			삼천포중				남양중				삼천포제일중	4		노산초 문선초	사천중 서포중	4	
5	김해	김해봉황초	봉명중	구봉초		안명초	김해분성여고						장유초 용산초	7		김해동광초	한림중 김해삼문고	3	
6	밀양					산외초	세종중	산내초	밀성여중	송진초 사포초				6		송진초 예림초	홍제중	3	
7	거제		하청중	내곡초									거제초	3			거제장평중 연초중 육포성지중	3	
8	양산	화제초 평산초					양산중	증산초					상북초 오봉초	6		가촌초	양산여고	2	
9	의령					의령유								1		대의초 칠곡초	의령여고	3	
10	함안						함안여중		함성중				아라초	3		칠원초	칠원중 호암중	3	
11	창녕					대지초			남지중		창녕대성고			3		동포초	남지여중	2	
12	고성	동광초				대흥초				회화초				3		마암초 하일초		2	
13	남해		해성중	삼동초		남명초		상주초		이동초	남해제일고		성명초	7		설천초 해양초	남해중	3	
14	하동						화개중			하동초			진교초	3		노량초 쌍계초		2	
15	산청							단성초						1			단성중	1	
16	함양					위림초 위성초								2		수동초 유림초 함양초	수동중 함양여중	5	
17	거창				아림고	주상초							복상초	3		아림초	거창중	2	
18	합천				야로고					야로초	야로중		합천가야초	4		묘산초 쌍백초	합천고	3	
합계		7	4	6	4	10	7	6	6	11	4		13	1	79	28	23	51	

※ 붉은색 행복나눔학교, 파란색은 사립(11)

※ 2020년 지정 행복유치원 5개원과 행복맞이유치원 10개원은 2020년 1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혁신학교, 학교혁신, 혁신교육과 미래교육 역량

안 선 영
(경기도교육청 연구사)



경험으로부터... 혁신학교란?

불편한 것!
부당한 것!
불공정한 것!

을 찾아 바꾸는 학교

7

질문...

- 요구가 있는가?(누구의 요구인가?)
- 요구 알 곳이 있는가?
- 요구를 연결 할 체계(철학, 시스템)가 있는가?

혁신의 과정

변화 (개선) 주체성 자발성 확산

갈등... 갈등...

전인적 성장 vs 입시교육	혁신 vs 희생
자율 vs 사유화	참여 vs 회피

혁신학교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힘! 전문적학습공동체

혁신학교 추진경과

혁신학교 추진 10년

- 2009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시작
- 2011 서울, 광주, 강원, 전북, 전남으로 확대
- 2015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제주로 확대
- 2016 대전으로 확대
- 2019.3.1 기준 전국 17개 시도 1,714교 운영

12

혁신학교 현황

혁신학교현황

시도	초	중	고	합계	시도	초	중	고	합계
서울	158	40	15	213	강원	19	15	8	42
부산	26	16	5	47	충북	21	22	4	47
대구	41	39		80	충남	41	30	9	80
인천	37	16	9	62	전북	86	36	16	138
광주	35	18	4	57	전남	77	23	4	104
대전	4	11	4	19	경북	22	14	2	38
울산	9			9	경남	39	20	5	64
세종	9	2	1	12	제주	24	12	2	38
경기	378	217	69	664	총계	1,026	531	157	1,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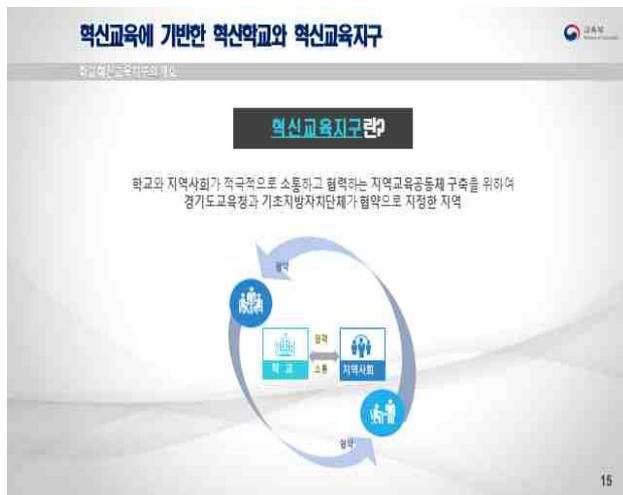
13

끝낼 수 없는 혁신

다시 불편한 이유?
더해가는 갈등!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들...

14



혁신교육에 기반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학교혁신교육지구의 개요

학교교육은 왜 지역과 연관이 필요한가?

지역사회내의 누구도 자발하지 않고
고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을과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과 인력, 자금이
집약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육, 어린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발달 환경 조성

학교교육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마을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보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19



다시 질문...학교와 마을의 만남?

- 교육을 왜 마을이?
- 학교가 주도하고 마을은 지원?
- 학교가 왜 학교 밖에 관심을?
- 학교는 마을과 만나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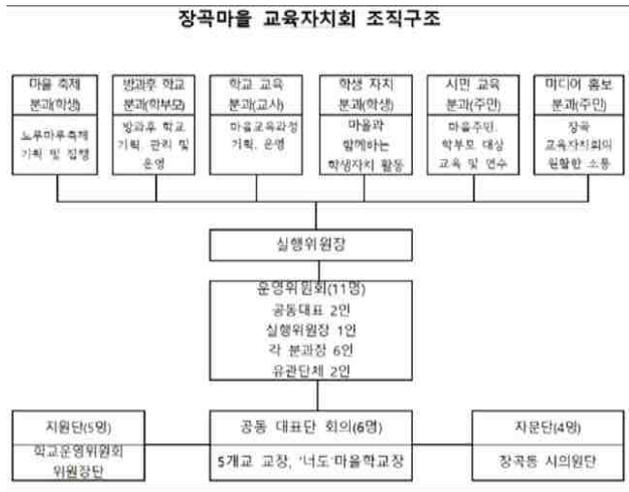
경기꿈의학교를 시작하며 들었던 질문

꿈의학교

누구의 꿈인가?

2015년 그 후...

어떻게 진화했는가?



장곡 타임즈

장수산 선생을 아십니까?

장수산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기사를 다룬 장곡타임즈 특집호입니다. 장수산 선생은 조선 말기 문신으로, 충절과 학행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으며, 그의 학문적 업적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곡 타임즈

남침이 뭐 이래요?

남침이 뭐 이래요?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와 남침에 대한 우려를 다룬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을비전 세우기 토론

마을비전 세우기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근·자·감 근·자·감

근·자·감 근·자·감이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근면, 자립, 감행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혁신교육 장곡중

혁신한 새로운

혁신한 새로운 장곡중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장곡중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다룹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혁신한 새로운

혁신한 새로운 장곡중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장곡중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다룹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곡타임즈

학령리, 대지리, 물이리 외곽지역 60여명서 한 자리에서

학령리, 대지리, 물이리 외곽지역 60여명서 한 자리에서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외곽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서문 대장 앞가 위해

서문 대장 앞가 위해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서문 대장 앞가 위해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혁신교육 응곡중

망리울 넘어 공동의 기억으로

망리울 넘어 공동의 기억으로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망리울 넘어 공동의 기억으로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2019 시스터 스쿨 프로젝트

2019 시스터 스쿨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시스터 스쿨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홍익중의 숨은 공간

홍익중의 숨은 공간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홍익중의 숨은 공간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장곡타임즈

"잘 하는 것도, 못도 있다"는 학생 상담원이

"잘 하는 것도, 못도 있다"는 학생 상담원이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학생 상담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합니다.

혁신학교 등학교, 두터워져갑니다

혁신학교 등학교, 두터워져갑니다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혁신학교 등학교, 두터워져갑니다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혁신교육 장곡고

교사들의 혁신학교 준비

교사들의 혁신학교 준비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교사들의 혁신학교 준비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학교 운영 일과에 힘쓰고, 좋은 반란을 일으키고"

"학교 운영 일과에 힘쓰고, 좋은 반란을 일으키고"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학교 운영 일과에 힘쓰고, 좋은 반란을 일으키고"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장곡타임즈

특별사건에 제 일터에 하나자 된 학교

특별사건에 제 일터에 하나자 된 학교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특별사건에 제 일터에 하나자 된 학교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폐야구장 교육: 언제 지금 당장, 어디까지 학교에서

폐야구장 교육: 언제 지금 당장, 어디까지 학교에서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폐야구장 교육: 언제 지금 당장, 어디까지 학교에서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장곡 타임즈

장곡동의 오동나무에 눈꽃이 피고...

장곡동의 오동나무에 눈꽃이 피고...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장곡동의 오동나무에 눈꽃이 피고...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10살 차이는 나이 해기가 통째... 시간이 더디었던 동네

10살 차이는 나이 해기가 통째... 시간이 더디었던 동네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10살 차이는 나이 해기가 통째... 시간이 더디었던 동네 라는 주제로 장곡타임즈가 기획한 특집호입니다.

장곡노루마루 축제



장곡노루마루 축제의 현장 사진을 소개합니다. 장곡노루마루 축제의 현장 사진을 소개합니다.

능곡선사마을 축제



군자 산들축제(소프트웨어 중심)



배곧나래 축제



마을 즉의 발끈....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학교 안 체험교실

개방 가능한 유휴교실을 주제별 체험터로
구축하여 타 학교,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
운영하는 교실

군자초-스마트교실



군자초-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정왕초-천문관측실



포리초-도예실



은행고-소리울 음악실



장곡중-미술실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다

박 현 숙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파견 수석교사)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

- ✓ 지역 격차와 지방 소멸 위기
- ✓ 부의 양극화
- ✓ 고령화와 저출산
- ✓ 자살률 1위와 낮은 행복지수

우리 나라 교육의 공교육의 중요한 요소

- ✓ 교사 - 양성 과정(국가)
- ✓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
- ✓ 교과서 - 국정 또는 검인정

혁신교육지구, 그리고 지역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새로운 **교육협력**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협동교육 시스템** 구축, **혁신교육 일반화**를 통한 **배움과 성장** 도모,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학습 공동체** 실현 등을 목표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사회, 학교 홀로 교육이 불가능한 시대

- ✓ 2016년. 자유학기제 시행
- ✓ 2017년.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부터 적용
- ✓ 2020년. 고교학점제 시작

시흥에 맞는 교육의 시작



시흥, 왜 지역교육을 고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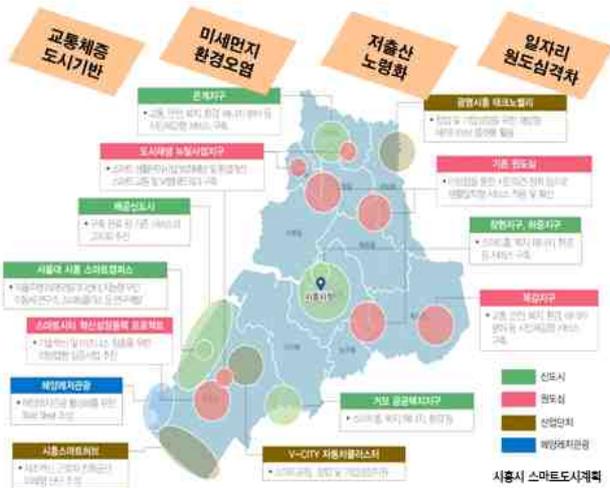
- ✓ 정책과 제도, 시와 교육청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가.
- ✓ 혁신교육지구를 넘어서, 시흥 전체가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 ✓ 시흥시민에게 이곳은 살아가는 곳, 미래를 함께할 곳인가.
- ✓ 마을교육으로 마을과 학교가 변화되고 있는가.

시흥아이, 초등2학년 '봄·여름·가을·겨울'

차시	일정	주제	학습활동	장소	형태	비고
1-2	4월2주 -3주	시흥의 자연	• 우리 고장 시흥의 아름다운 모습 알기 • 고실 작은 텃밭 만들기(뜨개 협동 활동) • 방울토마토 알기 등 여름감할 가능한 식물들 이용 가능한 작은 텃밭 만들기	교내	강의	모둠 회단
3-5	4월-5월	시흥의 봄	• 봄에 볼 수 있는 식물 및 곤충 관찰 • 봄의 숨겨져 볼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야카시 북북 만들기, 물지 지키기 등)	도시숲	체험	버스 일차
6-7	6-7월	시흥의 여름	• 1-2차시 작은 텃밭 수확하기 • 봄에 보았던 식물 및 곤충 찾기 • 여름에 볼 수 있는 식물 및 곤충 관찰		강의	
8-10	9-10월	시흥의 가을	• 봄, 여름에 보았던 식물과 곤충 찾아보고 비교하기 • 여름의 변화 정리해보기 • 자라는 자신들의 모습 상상해보기 • 가을 숲 보물찾기, 자연보물 활동	도시숲	체험	버스 일차
11-12	12-1월	시흥의 겨울	• 겨울을 준비하는 식물과 곤충 • 특산물 찾는 관찰하기 • 겨울을 즐기는 전통민속놀이하기		강의	

시흥아이, 초등6학년 'PLAY, 소프트웨어'

차시	학습활동	장소
1차시	- 우리 동네의 놀이 : 팡따먹기-> 시흥 간척지-자연물 놀이 -시흥 안내로봇 만들기 / 팡따먹기 로봇, 모터-센서로 놀이기구 만들기 / -햄스터봇으로 구현하기	운동장 컴퓨터실
2차시	-신문지와 탈실 이용한 미션임파서블, 숨대문놀이, 8자놀이 -햄스터봇 전래동요 부르기 및 군무 디자인하기 -음표, 실표 이해하고 코딩에 적용하기 -햄스터로봇을 활용한 공상과학영화 체험	운동장 컴퓨터실
3차	- 우리 마을의 문제 인식, 문제 해결(아이디어맵 만들기) -우리 마을의 문제, 자항거리를 sw로 해결하기 - 분리수거 하기 / 재사용과정대로 이동하기	교실 컴퓨터실
4차	- 리사이클링을 이용한 구조물 만들기 - 시흥시티투어 활용 마을버스노선 조정	교실 컴퓨터실



시흥의 미래, 교육과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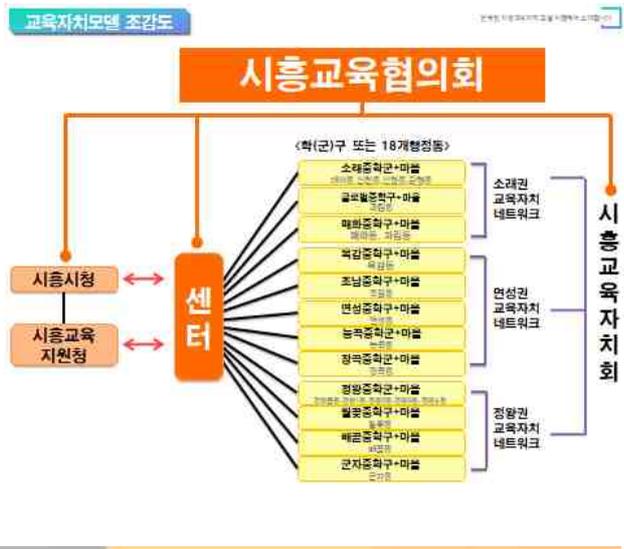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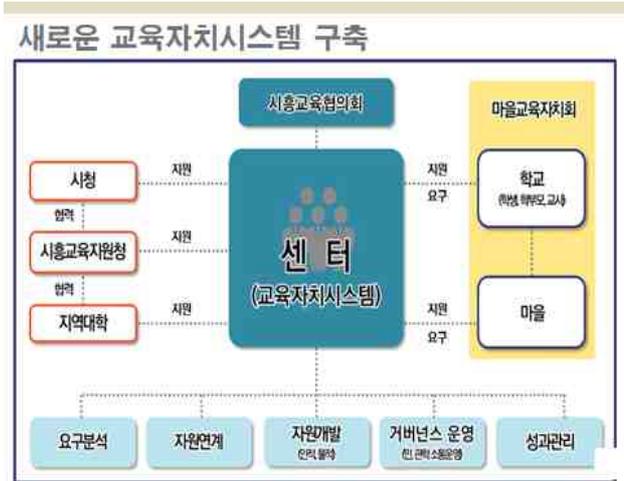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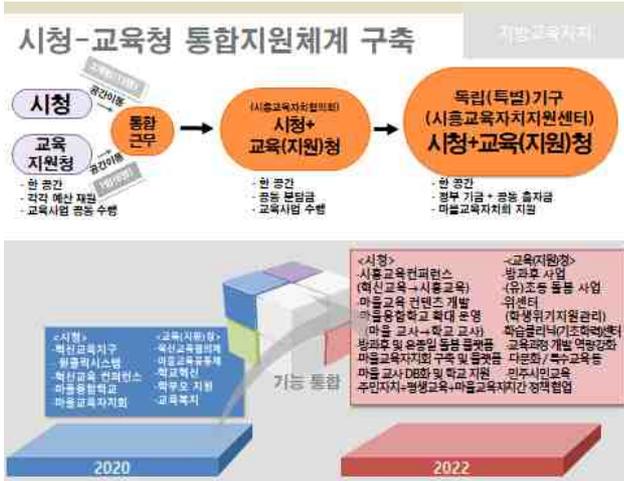
차시	주제	학습활동	장소	방식
1-2	시흥시 행정사업 안내	프로젝트 안내 (오이도 박물관, 스마트시티, 지역화폐 시루, 에코센터, 도시재생, 해양레저클러스터)	교실	강의, 활동
3-5	시흥의 과거	'오이도 이야기' 등 통한 시흥의 역사 알기 시흥의 고지도 그리기	오이도 박물관	체험
6-7	시흥의 현재	지역 화폐 시루 도시 재생 - 옛마을 살리기 시흥의 문제	교실	강의, 활동
8-10	시흥의 현재	시흥의 환경/미세먼지	에코센터	체험
11-12	시흥의 미래	시흥스마트시티/리빙랩 해양레저클러스터 알기	교실	강의, 활동
13-14	주제 활동	시흥의 미래와 우리의 삶	교실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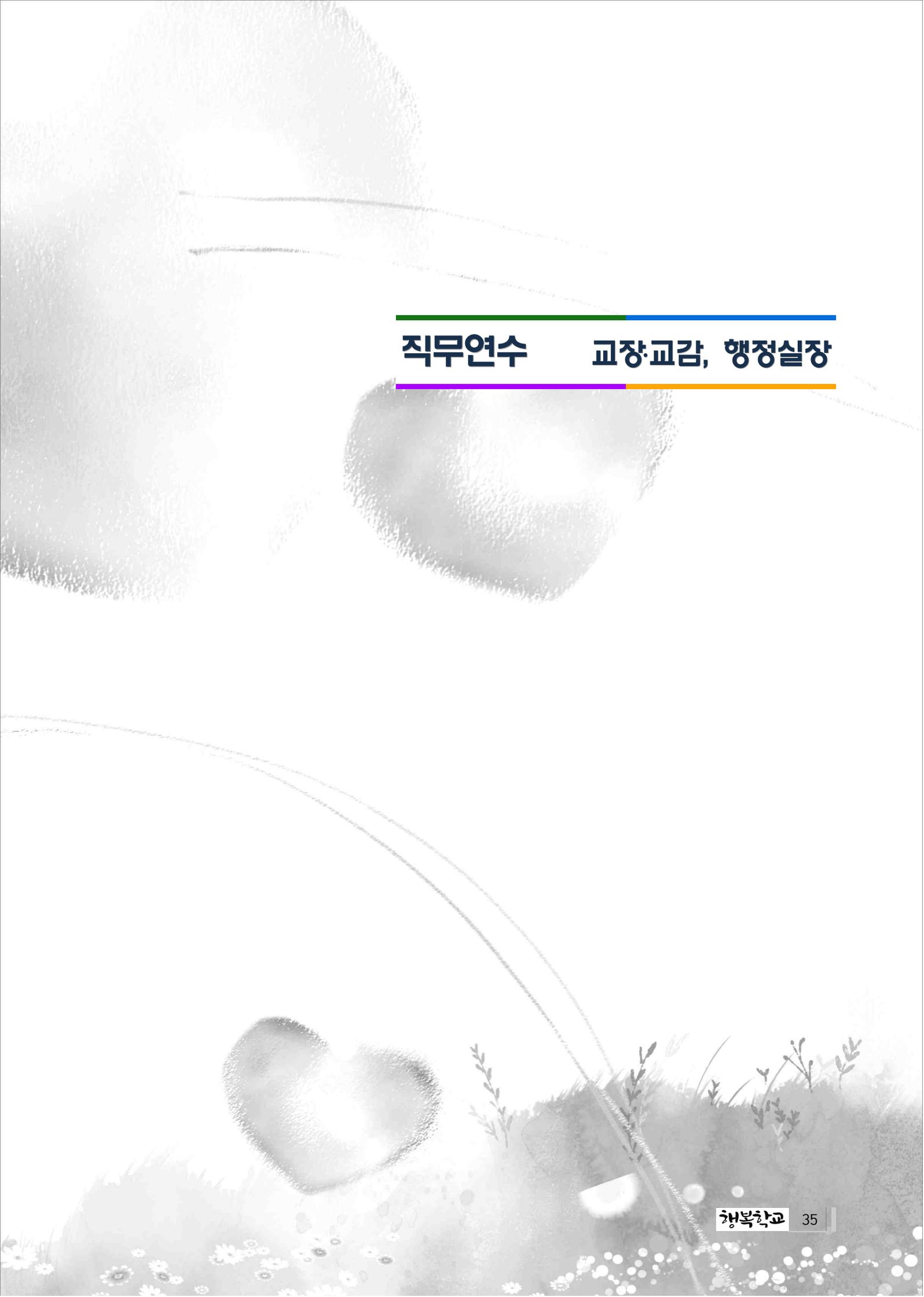
미래교육과정 강사 만들기

일정	연차 내용	강사 내용	일차	강사명
2020년 1월 21일 ~ 21년 1월 21일	1. 1차 교육과정 개정 2. 1차 교육과정 개정 3. 1차 교육과정 개정	1. 1차 교육과정 개정 2. 1차 교육과정 개정 3. 1차 교육과정 개정	1차	김영희
2020년 2월 11일 ~ 21년 2월 11일	1. 1차 교육과정 개정 2. 1차 교육과정 개정 3. 1차 교육과정 개정	1. 1차 교육과정 개정 2. 1차 교육과정 개정 3. 1차 교육과정 개정	2차	김영희
2020년 3월 11일 ~ 21년 3월 11일	1. 1차 교육과정 개정 2. 1차 교육과정 개정 3. 1차 교육과정 개정	1. 1차 교육과정 개정 2. 1차 교육과정 개정 3. 1차 교육과정 개정	3차	김영희
2020년 4월 11일 ~ 21년 4월 11일	1. 1차 교육과정 개정 2. 1차 교육과정 개정 3. 1차 교육과정 개정	1. 1차 교육과정 개정 2. 1차 교육과정 개정 3. 1차 교육과정 개정	4차	김영희

학교 수업으로 만들어가는 마을축제

축제명	일시	장소	참석대상
농구마을축제 (농구선사마을축제)	10. 21. (토) 12:30~20:00	농구동 중앙공원 및 영모재공원	송지초, 농구초, 농구중, 농구고 및 농구동 주민 자치위원회, 농구동주민자치위원회, 농구동 마을주민자치 노인복지회관
장곡마을축제 (장곡노루마을축제)	10. 28. (토) 9:30~17:00	장곡마을학교 것골생태공원	장곡마을학교 & 노루 장곡동주민자치위원회
거모마을축제 (문자산마을축제)	10. 28. (토) 10:00~20:00	산골공원 및 거모동일대	문자도일유지원, 도일초, 문자중, 문자중문자중교, 한국산악기술대학교, 문자도서관, 거모동합사회복지관, 아지타라
바골마을축제	11. 10. (일) 09:00~15:00	바골초중 일대 도보(교차로)	바골초중교 & 학부교회, 바골신도시 마을이 아파트, 호반아파트, 글드클러스아파트, 단지 내 마을학교(예정)
정왕마을축제	11. 11. (토) 12:30~16:00	미관골장	문서초중교, 골의학교 30명, 정왕이 학원주인단, 새마을어장계, 어린이집연합회, 다문화교육센터, 어울림문화청소년지도 협의회, 정왕생리마을학교, 정왕자치연구회, 정왕마을(정왕)동을 품는 사람들, 정왕합 사회복지관, 시흥마을교육네트워크, 골의학교 WOW축제학교





직무연수 **교장·교감, 행정실장**

행복학교에서 리더십 발휘하기

양 재 욱

(교방초등학교 교장)

1. 민주적인 의사 결정 문화 만들기

가. 필요성

기존의 학교의 결정구조는 학교장이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이다. 교직원회의의 결과가 뒤집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학교장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책임을 추궁한다.’는 더 권위적인 문화를 가지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학교장의 생각을 수행하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이 된다. 학교가 성장 할 수가 없다. 학교장이 바뀌면 다시 새로운 학교장의 생각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학교의 교육력은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RESET(초기화) 된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문화는 이와 같은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벗어나 각자가 공동체의 주체로 자발성을 발휘하게 하는 회의 문화이다. ‘자유롭게 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하며,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문화이다. 여기서는 학교가 역사를 가진다. 학교장이 바뀌고 또 공동체이 구성원이 바뀌어도 학교의 문화와 시스템 교육과정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정체되거나 하지 않는다.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담긴 교육과정은 매년 성장하게 되며 집단지성의 발휘를 통하여 교사 또한 성장하게 된다. 교사가 성장하게 되면 교육력은 쉽게 RESET(초기화) 될 수 없다.

스스로 자기의 철학으로 학교와 교육과정에 대한 디자인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사는 상상하고 도전한다. 그 문화를 만드는 첫 단추가 민주적인 교직원회의 문화 형성이다.

나. 방법

1) 교직원 회의 절차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의 규칙 만들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의 주제 정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론하고 결정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의 결과 공유하고 반영하기 |
|--|

2) 회의 규칙 만들기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해서 만든 규칙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합의에 따라 만든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회의는 관료주의를 벗어나 소통과 참여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지시와 전달이 아닌 토론을 통해 권위주의를 벗어나 모두가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 문화를 성장 시킬 수 있다.

행복 ○○초 회의 규칙

- 1)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2) 퇴근 시간 전에 마친다.
- 3)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낸다.
- 4) 사회는 윤번제로 한다.
- 5)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육활동
 - 학교 밖으로 나가는 교육활동
 - 예산이 투입되고 책임소재가 따르는 활동
- 6)회의는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1차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퇴근 시간 전에 마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제의 공유가 필요하다. 학급이 많은 경우 동학년 협의를 거치면 좋다.

사회는 매회 진행자를 바꿀 수도 있지만 업무추진의 담당자가 진행할 수도 있다. 발제자가 진행하는 것이다.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등 토론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견해를 말하며 선택의 이유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참석정도이지만 의견을 말하는 순간 참여로 변한다. 참석을 넘어 참여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두가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특히 몇몇 사람이 발언을 주도하면 전체 회의를 지루하고 따분하게 할 수있다. 시간의 제한을 둘 필요도 있으며,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이유를 뒤에 설명하면 압축적으로 말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더 역동적이 된다.

회의 시간을 정해 두는 것은 회의를 몰입해서 할 수 있게 하며, 회의를 통해 결정 사항을 정하고 그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회의의 중요함이 커진다.

다. 사례

1) 업무와 담임 구성하기

○○초등학교는 큰 학교이다. 매년 2월 워크숍 기간에 업무와 담임을 배정한다. 교사들의 회의를 통해 역할을 구성한다. 업무와 담임을 구성하기전 어떤 관점이나 철학에서 그 일을 정할지 학습하고 토론한 후 회의에 참여한다.

학교전체의 공공성과 개인의 특성 및 사익이 대립되기도 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한 번 또는 두 번의 회의를 거치며 논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조정하며 자기의 자리를 찾아 간다.

○○초등학교는 작은 규모이다. 10월경이면 교사회의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 보다는(저 경력, 또는 전입의 경우 우선 배려하기도 함) 여러 교사들이 서로의 역량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해주면 학교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토론을 한다. 개인의 선택보다는 동료교사의 추천으로 자리가 정해지는 셈이다.

교사 회의에 모든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 할 수 있다. 교사의 이기심이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기도 하며, 마음 약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떠맡기도 하며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속에서 그런 경험을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과정이다.

교사회의가 모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토론하며 한 두 사람이 결정한 것 보다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눈 앞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마저도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 실패를 통해 교사도 성장한다. 그러면 학생의 실패도 허용할 수 있다. 배우는 과정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다. 실패 없이 배우려 하기 때문에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때가 많아지는 것이고, 교사의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정해진 틀이나 습관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아감이 없다. 교육은 과거를 답습하고 반복할 필요도 있지만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기르는 곳이기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기도 한다. 도전은 실패와 실수를 동전의 양면처럼 가져가는 것이다. 실패와 실수를 수용할 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2) 학급봉사위원 제도 없애기

○○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이 학급봉사위원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 그것이 경쟁의 문화이고, 특정한 경험이 일부에게 몰리며, 학생, 학부모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교사들은 ‘그러면 학급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학급의 대표가 없으면 전교어린이회 회의는 어떻게 하는가?, 리더십을 배워야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점을 들었다.

회의는 치열한 토론으로 길게 이어졌다. 서로의 견해는 좁혀지지 않았다. 회의의 끝에는 발언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을 특별히 정해 들었다. 회의의 결과는 ‘새로운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기존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로 결정했다. 새로운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또 서로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입장은 이해가 되었다. 위화감을 없애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학생들의 리더십에 대한 능력을 기를 기회가 줄어든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공감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관행에 대한 성찰, 기존 관행 걷어내기, 지금까지 행해온 일상을 다시 생각하며 집단의 지성을 발현하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회의라는 것도 공감했다.

그리고 다음날 한 선생님이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각 학급의 봉사위원제도를 없애고, 6학년 모두에게 두레장 임명장을 수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3,4,5,6학년 통합학년 프로젝트에서 6학년이 리더의 역할을 하므로 6학년 모두가 두레장이 되어 리더십을 기르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안은 두 견해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으며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

그 방법은 교육과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리더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었으며, 후배들은 6학년을 우러러보고 기대고 존중했다.

여기서 교사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그 갈등은 서로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 차이를 대립으로 생각하면 관계가 깨진다. 그 차이를 다양성으로 이해하면 그 차이는 공동체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 다양성이 우리를 새로운 문화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한 측면에서 바라본 하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의견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나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물감통속의 여러 빛깔 물감처럼 한 색깔의 물감, 하나의 의견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다른 견해는 다양한 우리의 빛깔이 되는 것이고, 그 의견의 발현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어우러져 새로운 빛깔, 새로운 그림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나의 의견을 쉽게 말 할 수 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다. 내 의견이 틀려서, 옳지 않아서 선택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거나 또는 너무 앞서나가서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 또는 이번에는 내 생각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선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나 던질 수 있다.

2) 교육감 모범어린이 표창 안 받기

○○초등학교의 한 선생님은 모범어린이 교육감 상을 신청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다. 왜 우리

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어쩌서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관행적으로 표창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해 온 것이 표창을 받음으로 해서 그 자발성이 오염될 수 있다. 그리고 모범학생을 정말 최고로 모범을 잘 보인 학생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가? 아이들은 교육감상이 없어도 잘 성장할 것이라는 여러 이유를 들었다.

교사들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학생부에 기록할 내용도 하나 더 생기고 한 사람의 삶에서 중요할 수 있다.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 그 안은 선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흘렀다. 언제나 처럼 6학년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뽑아서 교육감의 상을 주고 싶다. 누구를 추천해 달라.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난생 처음 당하는 일 앞에서 난감해 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은 모두가 각자 특성이 있고 다 잘 하는 것이 있습니다. 00이는 책을 많이 읽고, 00이는 동생을 잘 돌보고, 00이는 운동을 잘하고, 00이는 봉사활동을 잘 합니다. 모두가 다 모범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모범이라고 뽑을 수 있지요? 우리는 모두가 모범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말에 동의 했고 교육감 표창장은 아이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 교사의 의견은 2년이 지난 후 아이들이 선택해 주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2년 전의 토론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었고,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때로는 너무 의견이 앞서 나와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철학을 담고 있다면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기존의 관행을 성찰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다. 영어 인증서를 매월 주어왔던 일을 새로 전입한 선생님이 제동을 걸었다. 그 일 꼭 필요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더 재미있게 하고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기존대로 해주기 요청했다. 갈등이 일었다.

그런 후 한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영어 인증서를 매월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희들은 인증서 받기위해 영어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청출어람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의견을 교사회의에 전했고 기존의 교사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철회했다. 교사의 성찰이 있는 회의는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성장시켜 간다.

2. 학교 비전 공유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가. 필요성

앤디 하그리브스와 테니스 셸리는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삶의 목적, 즉 비전이 나의 것일 때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일 때 그 공동체에서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나누고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

- 삶의 목적: 성취가능한 분명한 목적으로 그들 자신이 생산한 목적일 때 행복하다.
- 권한: 명령이 아니라 주도할 때 행복하다.
- 관계: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목적을 계발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행복하다.

나. 방법

1) 학교 비전 만들기

-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생각하기
- 포스트잇에 2~3가지 적기
- 모둠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유목화
- 모둠에서 나온 가치에 대한 전체 공유하기
- 모둠별로 나온 가치를 모아 전체 유목화 하기
- 가장 많이 나온 가치 2~3가지 정해보기
- 모둠별로 학교 비전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 모으로 함께 보면서 학교 비전 완성하기

2) 공동체 약속

학 생, 학부모, 교직원 각각의 모임에서 서로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 지 그 가치를 토론하고 가장 많은 가치를 5가지 정도 정하여 문장으로 만든다.

학교 현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어린이는 1.서로 믿으며 함께 합니다.	'모두가 내 아이다'를 실천하는 ○○ 학부모는 1.아이를 믿고 기다려 줍니다.	○○ 교직원은 1.먼저 웃습니다. 2.진심으로 듣습니다.

2.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3. 모두에게 차별 없이 다가갑니다. 4. 자유롭게 꿈을 향해 도전 합니다.	2. 학교일에 적극 동참합니다. 3.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4. 함께 공부하며 성장합니다.	3. 믿고 기다립니다. 4. 함께 실천 합니다. 5. 서로의 빛깔을 살려 줍니다.
--	---	---

4. 생활 속 삶으로서의 학생자치 활동

가. 정리 되지 않는 체육 교구

3월 개학하자마자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축구공, 훌라후프, 탕탱볼 등을 내주며 뒷정리를 부탁했다. 하루 이들은 뒷정리가 되었으나 곧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퇴근하는 길에 운동장에 버려둔 기구들을 정리했다. 두세 번 아이들에게 살며시 뒷정리를 부탁도 했다.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부탁했다. 역시 효과가 없었다. 나는 며칠 더 뒷정리를 했다. 그리고 2주후 내 두었던 도구들을 모두 거두어 체육 창고 속에 넣고 문을 잠가 버렸다. 그리고 반응을 기다렸다. 2주간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응이 올 것이었다.

“선생님, 놀이 기구 다시 꺼내 주면 안되나요?”

아이들은 답답하고 불만에 차서 민원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더 기다리다가 전 교어린이회 회장단과 만남을 요청했다. 그리고 나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내어준 것들은 수업에 사용하는 수업 도구이다. 놀이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너희들을 위한 것들이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바깥에다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간다면 수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놀이보다는 수업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선생님과 여러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나는 그것들을 더 이상 내어 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여러 차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바닥에 버려두고 간 것들을 치웠다. 어떤 때 급한 약속이 있기도 했는데 버려두고 갈수도 없고 정리하느라 운전을 위협하게 한 때도 있었다. 또 나는 체육 수업에 사용할 도구들을 사거나 관리할 책임을 져야하는 데 학생들이 뒷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책임추궁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뒷정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더 이상 수업에 쓸 도구를 내어줄 수 없다. 물론 뒷정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다시 내어 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의 단호한 말에 어린이 회장단은 풀이 죽었다. 어린이의 대표로서 모두의 즐거움을 위해 왔지만 나를 설득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한 동안 생각하더니 간신히 입을 떼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놀이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놀이도구를 내어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나도 한 동안 생각하는 채 하면 땀을 흘리다 천천히 조금만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 어린이회의 놀이위원회의 결정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들어줄 생각이다.”

어린이대표단은 뭔가 재미있는 일을 추진할 생각이 마음이 들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고 나는 어린이들에게 생각을 물어가며 토의를 진행해갔다. 놀이위원회는 어린이회에 속한 위원회로 꾸리기로 하였고 위원장은 어린이회장이 직접 맡기로 했다. 놀이위원회의 위원은 5학년과 6학년 중에서 원하는 어린이를 신청 받아서 구성하기로 했다. 몇 명씩 팀을 만들어 하루씩 돌아가며 그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어린이회장단에서는 5학년과 6학년 교실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신청을 받았고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다. 놀이위원회는 스스로 모여 활동의 방법을 의논하였고 어떤 도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까지도 다 정한 후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놀이위원회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제안하였으나 놀이위원회는 우선을 적게 내어달라고 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곧바로 체육창고로 가서 원하는 물건을 꺼내어 상자에 정리했다.

다음 날부터 놀이시간은 더 즐거워졌다. 하지만 문제도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놀이위원회에서 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고, 물건을 쓰기도 뒷정리를 하지 않고 가서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학생다모임을 제안했다. 전교생이 시청각실에 다 모여서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는 것이었다. 각 학급에서도 문제점을 토론하여 학급의 의견을 가지고 왔고, 놀이위원회에서도 안건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했다. 자신들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놀이에 대한 이야기라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지했다. 그리고 몇 차례 다모임이 진행되며 조금씩 질서가 잡혀갔다. 놀이위원회에서는 놀이시간에 지킬 규칙을 정하여 동의를 받았고, 규칙을 직접 손으로 써서 체육관에 게시했다. 규칙을 어기면 한 두 차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벌칙까지 정해졌다. 그 벌칙은 준엄하게 집행되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인 까닭에 규칙은 매우 존중되었다.

7월 다모임에서는 한 한기를 돌아보며 행복한 놀이시간을 위해 ‘계속 이어 갈 것’, ‘없앨 것’, ‘줄일 것’, ‘새로 만들 것’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먼저 학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자료를 가

지고 전교생이 함께 나누었다. 놀이 시간은 행복했고, 그 놀이시간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은 자치의 역량을 키워가야만 했다.

문제는 문제를 만든 그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생기길 기다리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게 만든 후 질문을 던진다. 답은 이미 아이들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익혀갔다. 그 많은 부대낌을 겪으며 2학기에는 다시 규칙을 정비하여 더 번듯하게 강당에 게시를 했다.

5. 배움중심 학생 참여 수업

가. 필요성

1) 교사들의 껍질 깨기, 연대

교과서의 내용을 교과서나 지도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하여 수업하는 현실에서 ‘나만의 수업 찾기’는 신선한 도전이다. 각자의 철학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넘어서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슴떨리는 일이다. 하지만 각자 교실에서 나만의 수업을 하는 것을 아무리 창의성이 발휘되더라도 그 효과와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획일적으로 해온 수업도 공허하지만 혼자만이 하는 수업 또한 위태롭다.

‘나만의 수업’이 연대하고 함께하며 우리의 수업으로 전환된다면 어떨까? 단 한 시간을 공동 지도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학년을 연결지어며 긴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함께 하는 수업은 어떤가?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는 ‘우리의 수업’을 만들어보자.

학교를 넘어 지역과 함께 하는 수업은 어떨까? 학교만 꿈꾸는 수업이 아니라 마을이 꿈꾸는 수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만의 수업이 아니라 학교와 학교가 함께 하는 수업을 만들어 우리의 수업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함께 꿈꾸며 연대할 때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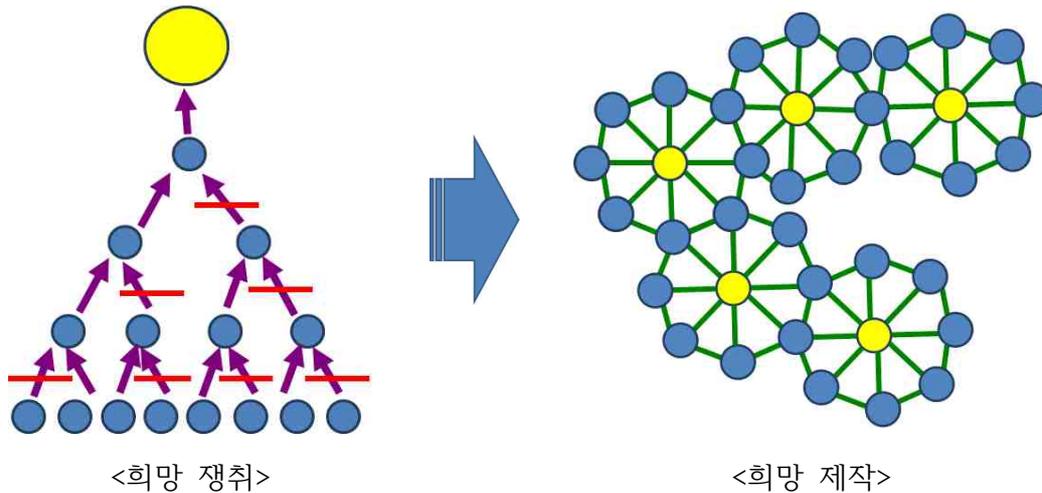
연대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을 때 더 강화된다. 그래서 배움의 중심, 즉 내 수업의 철학을 세워보고 횡적인 연대와 종적인 연대를 꾀하여 본다.

2) 삶을 바꾸는 수업, 철학 바꾸기

서울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은 그 좁은 한 곳을 향해 서로를 적으로 상정하고 경쟁을 시

작한다.

우리의 여정을 한 곳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도처가 서울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사는 마을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소중함의 발견과 가치의 새로운 해석으로 가능할



것이다. <희망 제작>은 슬한 서울, 슬한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것을 쟁취하는 경쟁의 여정이 아니라 협력의 여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 협력과 연대로 다른 길이 안 보이는 <희망 쟁취>의 세상을 해체하고 <희망 제작>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6.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가. 학부모 자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참견한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민원을 제기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주체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참견하는 학부모는 학교에선 뜨거운 감자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그래서 학교 문턱을 높인다. 학교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기에 학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때로는 불안해 진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돌아서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게 된다. 학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참여하는 학부모는 교사의 가장 든든한 “뺨” 즉 지원자다. 교사의 어려움을 알고 교사의 철학을 알고 함께 아이의 성장을 위해 애간장이 다 닳는 존재임을 알고 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학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쑥을 캐고, 아이들이 담임과 수업하는 동안 한 광주리의 쑥을 다 가려주고, 쌀이 부족하자 그 사이 쌀까지 보충해주었다. 놀이시간에

스스로 놀이 선생님이 되어서 놀이를 이끌어 주었다. 어느 날은 학부모들이 머리에 하트무늬 머리띠를 두르고 8시부터 교문에서 아침맛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에 학부모회는 스스로 그런 이벤트를 마련했고 매월 원하는 누구나 참석하는 그런 모임을 추진했다. 그리고도 부족했는지 이번엔 아침에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 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면서 학교에 그 활동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학교에 감동받았다고 한다. 학교가 잘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존재가 교육적 가치를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발휘 한 그것이 스스로를 감동하게 했을 것이다.

나. 학부모와의 협력수업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보는 것이 대안에서 대안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수업을 함께 공유하고 수업에 함께 참여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모두가 성장하는 일이다.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배움을 지켜보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은 교사의 교육적 상상력을 배가 시킨다. 차 시간표를 알아봐주고, 박물관에 대해 알아봐주는 등 교사의 일을 지역에 살아온 학부모가 맡아주면, 또 때로는 마을길을 안내하고 때로는 마을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은 아이들을 온 마을에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도움이 있으면 교사는 더 풍부한 상상력으로 교육과정을 디자인 할 수 있고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림자 선생님이로, 때로는 또박이 선생님이로 이름은 다르지만 행복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

다. 학부모의 성장

행복학교는 학부모의 기대를 부풀게 한다. 닫혀있던 학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선생님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고, 공부가 재미있다고 말하고, 친구들과 더 잘 지낸다고 말하고, 놀이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말하는 등 학교의 변화와 아이들의 변화는 학부모를 기쁘게 한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새로운 욕구로 변한다. 학교에서 학부모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학교에 대한 요구는 교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치닫는다. 그 학부모의 무한 요구는 교사를 지치게 한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학부모회는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교사는 우리가 꿈꾸는 것을 모두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심지어 하느님조차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찰해야 한다. 욕심과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 눈길보다는 발길이 훨씬 더 더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방향만은 잃지 않는 행복학교의 철학을 가진 학부모로 다시 태어날 때 학부모는 다시 한 번 교육의 주체로 거듭난다.

라. 함께 하기, 아픔의 공감

함께 한다는 것은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다. 대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실천하는 연대를 가지는 것이다. 아이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것, 교사 또한 아픈 존재라는 것, 교육 때문에 상처받고,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함께 함은 출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인 나 또한 아이를 기르며 너무나 많은 아픔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서로 울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함께 하는 것이다.

아이와의 소통, 학교와의 소통, 학부모간의 소통, 그리고 그 소통으로 이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다.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서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세상의 중심임을 깨닫는 것, 욕심이 아니라 서로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 것이 행복학교가 꿈꾸는 것이며,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jush531@hanmail.net

참고자료

- 「019. 경남학교문화혁신도움자료」. 경상남도교육청
- 『학교교육 제4의 길. 앤디 데이비스, 데니스 셸리

함께 하는 행복학교

이지연
(봉명중학교 행정실장)

처음, 혁신학교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 2019. 1. 1. 자 김해로 다시 돌아오다. 봉명중학교는, 혁신학교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 혁신학교, 교육혁신 등에 대한 인식, 이해 부족, 시대적 변화요구에 둔감
- 학교혁신에 대한 냉소적 시각, 오해, 깊이 있는 이해 부족
- 그런데 변해야 하진 않거나, 변화하고 있고, 그럼에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알아가 보기,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해보기



감옥과 같은 학교 건물, 변화하지 않는 학교.. 건물만?



혁신 학교는 ?

지향점 행복한 교육공동체

어떻게

1. 오늘보다 좀 더 민주적인 학교 문화
2. 지금보다 좀 더 자율적인 학생자치
3. 현재보다 조금 더 깊어지는 소통문화
4. 아이들의 삶을 공유하고 다가가는 생활교육

수업과 교육과정과 평가가 중심이 될 학교
그 속에서 주체로 성장하는 아이들

1 행복학교 운영 철학

민주성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되는 교육

공공성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배움을 향유하는 교육

미래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적인 교육

지역성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교육

행복학교

완전 새로운 특별한 것을 만나?

≡ 울산저널 /

학생들에게 말겨라

오재민 / 전담 운영학교 교사 | 2019-06-28 11:53:11

▶ 울산교육용어보기

지난 달 초에 학생회 집행 간부들을 데리고 감해에 있는 봉명중학교 학생회 활동을 보러 갔다. 경남의 혁신학교 이고 학생회 활동을 잘 한다는 추천을 받아 방문하기는 했지만 감학 놀랄 정도였다.

우리가 방문해 보게 된 활동은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이었다. 운영위원회 학생회 회장 등 임원과 각 부서별 담당 부장과 차장이 모여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다. 우리 학교에서 일반에 참가한 학생들도 학생회 운영위원들이어서 격이 맞았다.

먼저 학교 수업을 다 마친 후인 방과후에 학생회 회의를 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은 수업시간을 활용한다. 교육과정의 일부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방과후 개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봉명중에서는 매우 두세 시간을 활동하다 보니 기꺼이 방과후 시간에 하기로 결정할 듯했다. 그만큼 학생회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회의자료가 배포됐다. 논의할 주제와 그와 관련한 간단한 자료들이었다. 먼저 각 부서별로 1주 일간 있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생리대 선정 및 설치에 관한 안건이었다. 부서에서 생각하는 생리대의 종류와 가격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뽑은 자료를 제시하며 비교 설명했다. 그리고 생리대를 담아 둘 박스에 관한 정보도 공개했다. 이어서 돌아가며 어떤 게 좋을지 한 명씩 의견을 말했고, 그 의견이 한쪽으로 몰리자 바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학생회 담당교사 두 명이 함께 참여해 중간중간 조금씩 개입했고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 이 생리대 선정과 화장실 설치 방법은 학생회에 완전히 일임돼 있다고 했다.

이어서 제시된 설치 문제, 학생들의 간의 사형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 등을 의제로 논의를 이어갔고 임박한 스승의 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계획안이 제출돼 토론했다. 스승의 날 기념식 전체는 학생회에 맡겨져 있었다. 회의 분위기를 보니 교사들은 스승의 날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약 1시간 만에 결친 봉명중 학생회 운영위원회를 우리 학교 학생회 간부들은 뒤에 인해서 감딘의 표정을 지으며 지켜보았다. 회의를 마친 후 우리 학교 학생들과 봉명중 학생회 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했다. 봉명중에서는 체육대회, 축제까지 학생회에서 권한을 갖고 진행한다고 했다. 학생회 담당자들은 학생회 회의 때 함께 참석해 논의에 참여하지만 되도록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 집행에 관한 결정 절차를 밟아주는 역할에 머물러라고 한다고 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4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든 정도도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맡겨 두니까 이제는 정말 잘 하게 되었다. 학생들도 자부심이 대단해졌다. 그렇다. 학생들의 자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능력을 키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회 간부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자기를 도라들이 워든지 척척 하는 걸 보고는 놀라기도 했지만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회에 아무것도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봉명중학교 팀장을 마치고 와서는 금방 달려왔다. 스승의 날 행사를 하겠다며 몇 차례 회의를 하더니 행사계획안을 제출했다. 학교 측의 비협조로 행사가 축소되긴 했지만 하긴 했다. 화장 실기 공약을 지키겠다는 사립도 계속했다. 이 행사는 학생회 담당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학생회에 맡겨주어야 학생들이 성장한다는 믿음으로 통과했다. 교사들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더 나은 학생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학생회가 될 거라 믿는다. 일을 해보아야 일을 배울 수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권창수 학생중 교사

원치 않은 과정, 규정(학칙)은 교복 등

× 행복봉명중지치모임

2학년이 되어서 반장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 한반연에서도 의견 충돌이 많고 새로 친구들이 반 행사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데 자책이 되기도 하고 가장 힘들었음. 음악제와 규정부 T타임에 참여할, 엘리베이터 힘을 받았는데 규정부 T타임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고민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강당에서 앞에 발레기로 나서서친교생 앞에서 팀원들이 활개 제안하는 것이 기억에 남음. 엘리베이터에 유유도우미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음. 공청회 이후 친교생 설문조사를 해서 통과했음. 규정을 우리가 바꾼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음. 중학교에 들어오면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생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한것이 소중한거다.

있었음. 애매가 무거웠음. 고민이 많았음. 그런데 일단 일을 시작하니 관점을 그때당시에 내가 왜 힘든지 진단을 좀 해봤는데 내가 일을 혼자 하려고 해서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됨. 다른 사람이 있고 일이라는게 함께 하는 건데 나 혼자 그 모든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이었음.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자치 하면서 자립생각에도 살면서 가장 힘든 위기 순간이라고 느꼈던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은 후 다른 힘든 일이 올수록 내가 더 빨리 회복하고 이겨낸다는 것을 느꼈음. 이 같은 일을 이겨낸 것이 지금 고등학교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된 거 같음.

고등학교 생활도 원치 않은 과정, 능하게 되는 부분들

자치활동하면서 선생님들과 자주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게 된 것 같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고등학교에는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음.

자치활동이나 프로젝트 활동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내게 있었을지 하는 생각이 든다. 봉명중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음.

자치활동을 하다 보면 오직본인 위적 생각을 너무도 많이 느끼고 시작해도 한마디 이르렀던 순간이 많았음. 무조건 생각이 다르고 이상하게 여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상대방이 내가 내가 생각하는 수 있는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다보니 그 안에서 얼마의 갈등도 많이 있었음.

봉명중에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컴퓨터도 많이 다루고 발표도 많이 하고 새로운 행사 시도도 자주 보고 했었음. 그래서 그런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 편안하고 자신이 있다. 다른 수업이론은 발표를 할때 좀 어색하고 낯설고 하고 발표 보고 그날 읽는 데 불명용 출신아이들은 좀 스타일없이 자기 생각을

경남신문

김해 봉명중 '자체 협동 수확여행' 재미있음 '두 배'

담당교사, 사전답사 통해 프로젝트 수업 학생, 계획 수립-현장 체험 등 여행 주도

기사입력 : 2019-06-04 13:29:18



김해 봉명중학교는 지난달 31일 수확여행 준비를 마치고 수확여행을 시작한다. (김해신문)

단순히 유익성 등을 간파하는 여행이 아니었다. 그동안 책을 통해서만 배웠던 내용을 실제 현장을 체험하고, 배운 내용을 실행해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그 경험과 지식을 모두 공유했다.

김해 봉명중학교(교장 안태현)는 지난달 31일 '서울과 만나는 지속가능한 삶'을 주제로 수확여행 공유의 날 행사를 가졌다.

나는 지속가능한 삶을 주제로 수확여행 공유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지난달 14~16일 서울로 다녀온 수확여행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수확여행은 준비부터 남달랐다. 3월초 담당교사 전원 이 1박2일로 서울 수확여행 사전답사를 다녀온 후 수확여행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국어에서는 수확여행 계획하기, 성장일기(여행 후기) 등을 내용으로 수업을 했고, 도덕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수업공개, 영어에서는 외국인권 인터뷰하기, 미술에서는 앨범만들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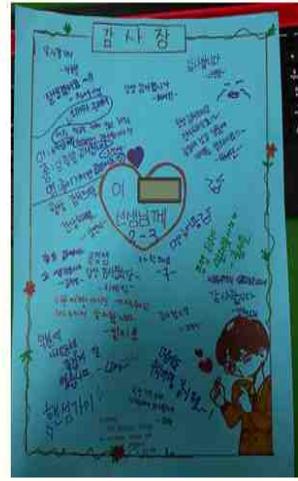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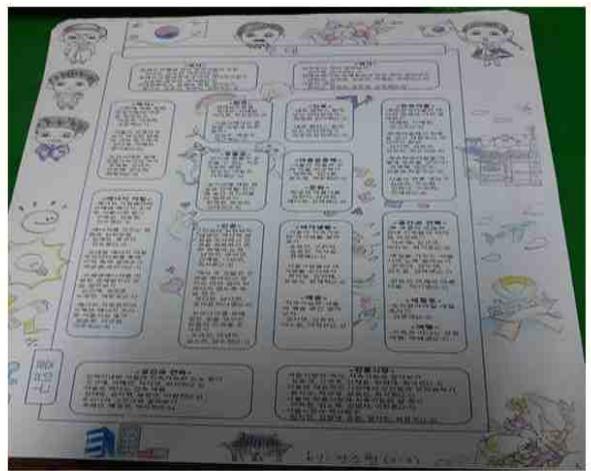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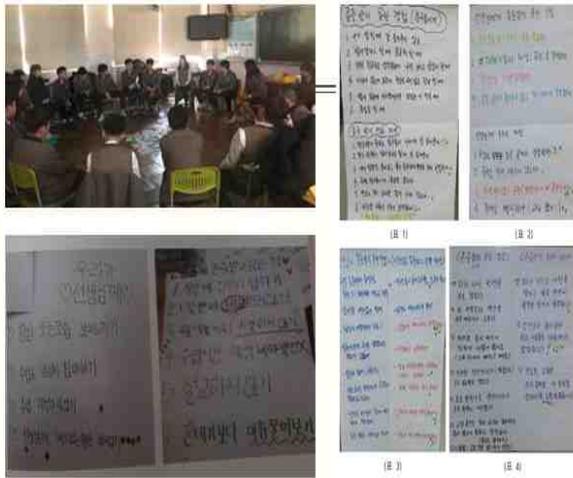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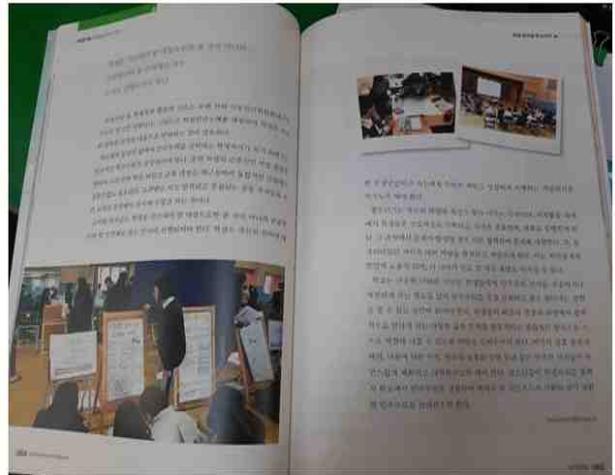
4월부터는 수확여행 주제에 맞게 개인별 제안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해 계획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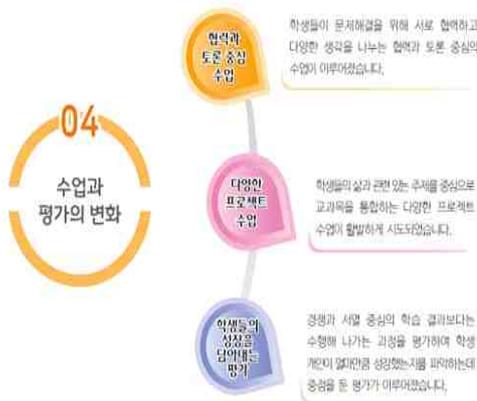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 모두가 개인별 텀블러와 손수건을 준비했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학생들이 텀블러를 이용하자 기내 방송에서 학생들을 안내하기도 했다.

원치 않은 과정, 고민(학칙)다짐, 의견,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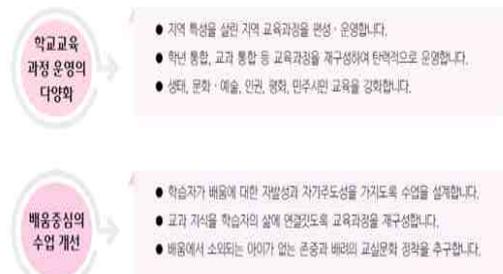
31일 공유의 날에는 에너지 자립, 공간과 건축, 전통시장, 마을공동체, 한옥마을, 세월호, 인권, 환경, 예술 등 15개 주제영역별로 모둠발표에 나섰다. 2학년 정효인 학생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찾아보고 체험한 수확여행이었기에 즐겁고 신나는 여행이었다"며 "실수도 많았지만 이젠 스스로 계획해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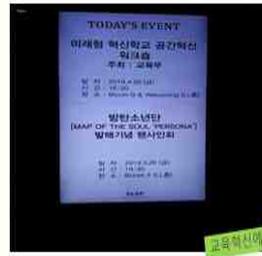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배움중심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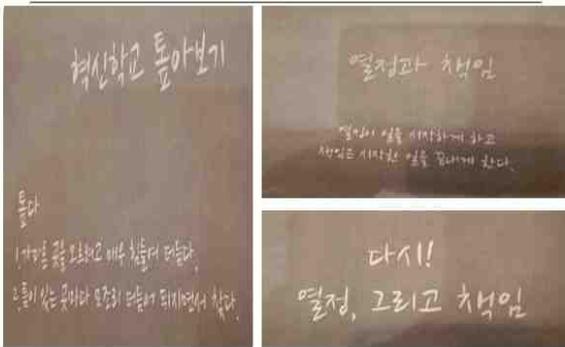
2 행복학교 운영 체제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



교육혁신에 대한 이해의 기회 함양

혁신학교 문화확산을 위한 전국 혁신학교 행정실장 연수(교육부)



혁신 DNA는 공감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 ☑ 이해에도 줄이나 함께 하지고 할 때
- ☑ 동료 교사의 변화 역치를 확인할 때
- ☑ 신념과 양심에 따른 발언을 인정해 줄 때
- ☑ 노력에 대한 인정
- ☑ 이해 할 때 자는 동료
- ☑ 혁신, 기여, 인정
- ☑ 도움 주고 받을 때
- ☑ 신뢰, 인정, 지지, 칭찬, 양해
- ☑ 고안, 기대
- ☑ 차라리 더 나은 바닷만 바닷만
- ☑ 관공화 공회할 때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결과들만 내세우며 반대할 때:

함께 하기, 교육과정, 철학 등에 대한 그 바탕 이해 노력, 채워주기



긍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모으자



직무연수 초등 1반

행복학교 ‘문화’로 다가가기의 첫걸음?

박 희 란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1. 학교에도 문화가 있나요?

사전에서 문화를 찾아보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문화를 정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기는 해도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고, 어느 곳에나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문화를 만났는가? 학교하면 생각나는 문화를 말해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서열문화, 지배문화, 승진문화, 회의문화, 동학년 문화, 회식문화.... 지금은 사라지기는 했어도 체벌문화, 촌지문화, 학교 조직문화 등도 여전히 떠오른다. 내가 만난 학교 문화 중 최악은 뭐였지? 내가 만난 좋았던 문화는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학교에서 문화를 만나기는 했나?

분명한 것은 뭐라 꼭 짚어서 말하기는 어려워도 학교는 학교 나름의 문화가 있다. 학교에서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긍정적 문화보다 부정적 문화가 더 많았다. 또한,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교육활동 속에 만들어진 문화보다 교직원과의 관계 속에 만들어진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쉽다. 학교 문화라고 하면,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그 속에 아이들이 덜 생각나다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활동 중심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 문화도 학생 중심의 문화, 교육활동 중심의 문화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문화가 온전하게 학생 중심의 문화, 교육활동 중심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왔던 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학교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 학교 문화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알아엿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기본법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념이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2조).”는 것을 모르는 교직원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교육기본법 제9조 2항).”,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조 3항).”

교육기본법에 나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학교는 그러지 못했고, 그 조금 어긋난 길을 제 길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 학교 문화 혁신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학생 중심이 되려면 학생 중심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은 조금씩 치워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중심에 행복학교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행복학교가 뭐 길래.

충무공초등학교는 2019년 3월에 개교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문화가 하나도 없는, 그저 교육기본법 대로 학교 안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되는 매력적인 신설 학교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학교 건물만 지어졌을 뿐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충무공초에 오게 된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교하자마자 행복학교로 지정되었다. 행복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라 생각한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쉽고 상식적이게도 모두가 주인이 되려면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교장이 선택하고 길을 찾아 책임을 지는 학교? 아니, 책임이라도 지면 정말 좋은 학교장이다.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발생한 많은 일들에 대해 교사가, 때로는 학생이 책임지기를 바라는 관리자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충무공초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누군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Order”를 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함께 고민해서 같이 만들어갑시다.” 단, 업무 말고, 학생 중심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중심의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제안했던 일들은 이거 왜 합니까, 또 합니까? 하기 싫다, 지겹다, 행복학교 말만 들어도 토하고 싶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으로 돌아왔다. 교실에서 온전하게 학생들을 만나라고 준 시간들은 서로 안 만나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로, 행복학교를 잘 모르겠다고 하여 가져왔던 연수들은 모임이 너무 잦아서 힘들다는 피드백으로 왔

다. 업무 중심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심이 되고자,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업무를 주지 않았더니, 업무를 안 하니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나에게 배정된 예산이 없으니 학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다는 말을 던진다. 모르면 배우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교실 안에 벽을 치고 문을 닫고 나올 줄 모른다.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잘 하는 건데,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거야. 우리 학년에서 하는 게 제일 나아. 바꾸라니, 바꾼다는 건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거야? 교직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다모임은 꼭 해야 되나? 무조건 애들 말만 들어라는 말이야. 만만치 않은 저항들. 급기야 그렇게 힘들면 내년에는 행복학교를 하지 말까요? 이런 물음도 던졌다. 그래도 어떻게 시작한 건데 좌충우돌하다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되돌아본 학교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다를 향해하는 배는 잔잔한 파도를 가르고 순조롭게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우 속에 일렁이며 아슬아슬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일렁임은 때로는 위협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항해의 과정이다. 기존의 학교로 나 혼자 전입해 왔을 때도 적응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 우리는 모두가 새 학교로 전입해 온 교사이다. 없는 것을 만들어가려는데, 빼격거리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해 빼격거리는 것도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도 빼격거린다. 빼격거리면 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한해가 저물었다.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말들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다. 아직 잘 모르겠다에서 시작해서 교육과정에 대해 동학년과 더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다, 혼자 고민하지 않아서 좋다, 학교에서 여유가 생기니 아이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등의 작은 움직임이 생겼다.

3. 우리는 두려웠을 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힘들다. 힘들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쉬울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 쉽지 않았다. 새 학교라서, 학교 안에 학교 문화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학교를 채운 사람들은 이미 어딘가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어렵게 풀고 만 것이다. 자신이 기존에 가진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문화 혁신이 주는 생소함이 두려웠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글을 조금씩 쓰다 보니 욕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학교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내 보

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싸우고 있으면 싸웠다고 말하면 될 것을 사이좋은 척 하느라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빼격거리면 어때요, 성장하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하면 될 것을 안 빼격거리면 척 하느라고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혁신학교나 행복학교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해서, 혁신학교나 행복학교라는 말을 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더 많은 직면이 필요하다. 더 많이 사용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사실 나는 행복학교 말만 들어도 토하고 싶다고 표현한 말에 발끈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발끈한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학교는 행복학교라서 좋다, 우리 학교 내신 써와라 권했다는 말을 건너 건너 듣고 나서이다. 행복학교 싫다며? 어찌구니 없군. 시간이 흐르고 그 표현마저 용인되는 문화여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발끈함을 가라앉혔다. 어쩌면 자기 존재감을 찾기 위한 표현 아니었을까. 아닌 척 하고 있다가 권해야만 비로소 “권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라는 문화 속에 익숙해진 사람이 아무도 행복학교를 권하지 않아서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 말이다. 행복학교는 누가 권해서, 만들어진 뭔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찾아가는 거라는 생각인데, 아직 그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겠지.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이 또한 “망~고 내 생각”이다.

말하고 싶다. “두려운가요? 나도 두렵습니다.”

4. 학생 중심의 문화는.

행복학교 ‘문화’로 다가가기의 첫걸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각해야 한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있다. 행복학교는 학생 중심의 문화,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여야 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학교의 문화는 어디쯤 와 있고, 내가 가야할 곳의 문화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가 그렇게 변화하려면, 교사가 변해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고, 옆 반 선생님과 아이들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내면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성장과 변화가 학교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확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협력과 지지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일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학생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첫걸음이다. 결국 사람이 학교 문화를 새롭게 다듬는 데 디딤돌이 된다건데, 참 쉬운 것을 어렵게 풀었다.

박희란(E-mail: bin91@hanmail.net)

- 학교의 본질회복과 역할 성찰 -

학교업무 경감에서 학교업무정상화로

김 성 탁

(내곡초등학교 교사)

1.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교업무 경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학교란 무엇을 하는 공간이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글을 읽고 시작합니다. 지금의 학교혁신 운동은 근대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근대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만들고 관리해 온 사람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시각을, 그 시각이 학교와 교사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 ‘근대학교의 버그(Bug)’가 주는 시사점

‘삶이 곧 교육’이라는 새로운 등식의 전제는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처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기 마련이라는 것이 인류학적 통찰이다. 그런 면에서 근대학교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교사자격증 제도는 인류사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한 제도이다.

하지만 교사를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행정가로 본다면 그다지 특이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일선 교사는 교육행정의 말단 실무자에 가깝다. 교사들의 오랜 불만 중 하나가 잡무가 많다는 것인데, 사실은 근대학교에서 교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업무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일이다.

아이들을 관리하는 틈틈이 기초지식도 전수하는 것이 근대학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일이었다. 간혹 행정가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불량’ 교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학교 시스템의 ‘버그(Bug)’ 같은 존재로 취급된다. 근대학교 시스템은 버그를 치료하는 강력한 백신을 갖추고 있는데, 다름 아닌 승진제도다. 승진점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행정가의 길로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제다.

(현병호, 2018.)

승진(전직)에 대한 생각들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 글을 읽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가 교육이 아니라 행정하기 위한 존재한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교육혁신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하고 섬세한 교사의 역할보다는 시스템을 유지할 단순한 업무처리자로 교사를 바라보는 행정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조직문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초·중등교육법’도 ‘학교혁신 정책’들(권한과 자율성을 이양)도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나. 법률로 정한 교사의 역할과 경남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학급담당교원)

③ 학급담당 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표-1> 경남교육청의 행정업무 간소화 정책

교무행정전담팀 운영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전 학교에 교감, 비담임 교사, 교무행정원(혹은 실무사) 등으로 구성된 교무행정전담팀의 의무 구성
행정업무 간소화	교무행정원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여 교사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 행정업무 메뉴얼 보급
위대한 교무행정원	교무행정원을 추가 배치하여 교사업무 경감
보고절차 간소화	공모사업의 보고절차와 서식 간소화, 각종 대회와 우수사례의 의무 제출 폐지
생산공문 수 감소	각종 취합용 공문의 자료집계 시스템 이용

2. 교원을 교원답게

발령을 받아 학교에 처음 오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2005년 제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첫 교직원 회의 때 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본인 소개를 하고 업무전달을 하는 것을 눈치껏 지켜보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안녕하십니까, 2005년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체육부 직원체육계 교사 김성탁입니다. 앞으로 직원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직원체육계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선배들은 있었지만 우리학교 아이들의 특성을 알려주고 수업이나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선배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가. 업무경감은 교육하는 기관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작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를 집단의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는 학교에 계신지요? 저는 혁신학교에서 일한지 5년째입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바라는 만큼 수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운 학생은 모든 교사들의 관심과 배려로 돌봐야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3년간 학년 담임으로 있다가 전담교사로 온지 2년째라 그런 탓도 있겠지만 아직도 **완전한 학습공동체¹⁾**로 자리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혁신 정책들 중 교원업무의 경감은 위에서 말한 학습공동체로서의 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습공동체 내에서 교사는 말단행적직원에서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여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 업무경감의 원칙

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보내시길 원하시지요? 지금부터 제가 생각한 업무경감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한다.

- ➔ 만약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실행은 결코 열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 한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적자산과 호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이다.
- ➔ 학습집단 등에 속한 참여자들은 그들의 의식을 향상시켰을 때 행동을 취하고 싶어 했는데, 이때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업무에 적용해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필요가 나타났다.

(구기욱 역(2017). 『민주적결정방법론』 p. 10)

1) 수업과 학생들 생활지도는 철저하게 교사 개인의 몫이다. 보고기한을 놓치면 안달하고 질책하는 선배교사나 교감선생님은 있었지만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주는 교사는 없었다. 어떤 수업자료를 사용하고 어떤 수업방식이라야 교육적 효과가 높은지,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아이들 학습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습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교사들 간에 토론하고 연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획일적인 오래된 관행대로 하거나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하는 식이다.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혁신정책들이 추진되어왔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 결과 약간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중심사회로의 거대한 변화가 점점 더 깊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창의적이며,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길러내려면 지식전달과 지식습득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며, 교사 스스로 창의적이며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들 간에 아이들 각자에 대한 교육학, 각 학급에 대한 교육학,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학이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에서 이를 위한 여건이나 조직적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많은 교사가 행정업무 짬짬이 수업하고, 문서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담하던 학생을 돌려보내거나 기다리게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교권침해이며, 그 결과 아이들의 학습권도 침해당한다. (강민정, 2018)

학교 업무경감의 시작은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학교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간 학교구성원들이 맡아왔던 업무들이 꼭 필요한 일인지 따져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2) 학급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은 수업과 생활교육이며 학급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교조직체계는 학급을 중심으로 또는 학년을 중심으로 짜여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강민정, 2018)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가) 동학년이 업무부서로 흩어져서는 안됩니다.
- 나) 학년단위의 연구실(교무실)이 필요합니다.
- 다) 교육지원업무는 비담임들이 전담해야합니다.
- 라) 전시성, 비교육적인 행사나 대회는 전교직원이 협의하여 줄이거나 통폐합해야 합니다.
- 마) 교무행정사님은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분장하여 사기를 높여야 합니다.

다. 다른 학교 업무분장 분석하기

학교규모별로 업무전담팀 인원수가 다르니 학교규모와 전담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음부터 무리하게 업무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협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업무량을 조절해가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표-2> 내곡초 2019학년도 교육과정 업무분장 조직(2019. 3. 1.) : 53학급 규모

부서	업무명	업무내용
교장	통할	통할
교감	관리	학년복무관리(1,3,5학년, 보건, 상담), 업무부서관리(교무, 진로 자치, 인성, 안전, 방과후), 전보내신(근평,다면평가, 성과상여금), 인사기록변경, 교내인사(학년,업무배정), 청렴, 교권, 행동강령책임관, 자격(승진)연수, 학교연혁
교감	관리	학년복무관리(2,4,6학년, 수석, 사서), 업무부서관리(연구, 정보, 체육, 돌봄), 호봉(재확정)승급, 휴복직(정원외관리, 퇴직), 인사발령대장, 계약제교원, 교원표창, 학교폭력, 각종 증명
수석교사	교실수업개선	수업컨설팅, 교과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
교무	학사·일과운영	학교일지, 일과운영, 보결수업, 학교행사
	학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취학, 학업중단, 정원외관리(유예, 면제), 귀국

부서	업무명	업무내용
		학생, 전출입, 출결, 장기결석생관리
	학생포상관리	학생표창, 장학금
	학교규칙	학교규칙 재개정
	교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계기교육	통일 안보, 독도교육, 인권교육, 경제교육
연구부장	교육과정 기획	학교교육과정수립, 교육과정운영 평가, 교육과정설명회
	행복학교	행복학교 기획 운영 평가
	교직원다모임	교직원 다모임 준비 및 진행
	컨설팅장학	수업공개, 교사동아리, 교원연수
	창의적체험활동	학생 자치, 학생봉사활동
학교, 학생평가	학교 학생평가(학업성적관리위원회), 부진학생지도, 학력향상	
진로자치부장	학부모회 지원	학부모교육, 학부모회 조직 운영
	학생자치	학생자치위원회, 자매결연단체
	진로교육	진로교육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국악강사) 운영, 1교 1예술동아리
	외국어교육	영어캠프(방학)
원어민관리	원어민 관리(코티처)	
인성부장	인성교육	인성교육 일반, 자살예방(생명존중), 정서행동, 학생인권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예방지문등록
	상호문화이해교육	다문화, 탈북, 중도입국학생, 국제이해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일반, 개별화교육위원회
	교육기부	교육기부, 학생복지
체육환경부장	체육교육	PAPS, 육상지도, 수영, 스포츠클럽, 체육교구
	청소년단체	컵스카우트, 한국청소년단체 아람단
	환경교육	녹색환경교육, 환경동아리
	게시, 안내, 홍보	LED전광판, 교내TV전광판
과학안전부장	안전교육	안전교육 일반, 교통·생활안전, 녹색어머니회, 배움터지킴이, 재난안전, 소방·민방위 교육, 안심알리미
	과학교육	과학일반, 청소년과학탐구경진대회, 과학실 관리
	학교홍보	학교교육활동 홍보(교육청, 신문사 등), 학교신문
정보부장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 윤리교육, 인터넷 중독성검사, 스마트교육
	정보공시	학교정보공시

부서	업무명	업무내용
	정보화기교재	컴퓨터, 학내망 IP관리, 컴퓨터실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정보화수리접수
	NEIS	NEIS관리 총괄(권한설정), 인증서 발급
	방송	교내방송, 개인정보보호, 학교홈페이지
	영재교육	영재교육 일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학습자료지원	학습준비물 일반, 교육자료(음악교구 등)
교무행정원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돌봄 별도), 공문접수(발송), 비전자문서등록, 교과서, 학습준비물(행복학교 준비물 포함)
교무행정원	돌봄교실	돌봄교실, 학적(진출입 보조), 출결사항(개인현장체험학습), 녹색어머니회 관리(연락), 봉사기관/교무실대장
학년	졸업진학	졸업, 중학교진학
	학년 업무	학년교육과정편성운영, 학년현장체험학습, 사계절행복학교, 학생평가, 학생동아리 학년운영 계획 입학식(1학년부장), 수영실기교육(3학년부장), 영어마을(4학년), 수련활동(5학년부장), 수학여행(6학년)
보건	보건 교육	보건일반, 건강검사, 비만학생관리, 감염병 관리,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정화구역, 전염병 예방교육, 수질검사, 흡연예방교육
사서	독서 교육	독서교육, 도서관 운영
상담	상담	상담일반, 학생선도위원회, Wee클래스, 대안교실(꿈키움)

<표-3> ○○초 2019학년도 교육과정 업무분장 조직(2019. 3. 1.) : 15학급 규모

부서	주요업무	담당자	업무내용
교무기획부	교무기획부장	김○○	학교교육활동기획, 학교행사 및 일과운영, 학생표창 및 장학금, 학교생활기록부, 취학, 가정체험학습, 동창회, 역사관 관리, 보결, 학교홍보 및 보도자료, 교감직무대리
	학적	곽○○	학적관리(진출입, 생기부정정대장관리), NEIS 관리 및 연수, 정보교육, 학교정보공시
	특수교육	박○○	특수교육주무, 학교신문, 각종 교원연구회, 소프트웨어 관리
		김○○	특수교육, 학교홈페이지 관리, 학교행사 방송지원
		박○○	특수교육, 교육기부, 예절교육, 경제교육
학력향상부	학력향상부장	강○○	연구학교 운영, 사교육절감학교, 학력향상, 학교자율감사
	학생평가	김○○	방송실운영, 도농교류 협력사업, 공모평가, 학교자율감사
	교원연수	김○○	학생평가, 교원연수, 교사연구동아리, 청소년단체(아람단1), 학교자율감사
	독서교육	김○○	도서관운영(도서도우미관리), 독서교육, 양산도서관연계교육, 햇살언니체 운영, 대외문예행사(기획참가)
	과학·영재교육	이○○	과학실 관리(물품구입 및 NEIS 등록), 창의성교육, 과학행사, 영재 및 발명교육,

부서	주요업무	담당자	업 무 내 용
교육과정부	교육과정부장	양○○	교육과정운영, 장학활동, 학교특색교육, 학교평가, 동아리활동, 학교자율감사
	교육과정	이○○	6학년 업무(수학여행, 졸업앨범), 수학교육
	정보교육	김○○	수업공개, 교원능력개발평가, 인터넷 및 스마트교육(스마트교실,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학부모회	안○○	학부모회운영(자원봉사제운영), 현장체험학습, 학교통학차량운영, 탁구실관리(노인복지관협약)
생활안전부	생활안전부장	강○○	인성 및 생활지도 기획, 학교폭력예방교육,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	김○○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배움터자킴이, 안심알리미서비스, 나라사랑교육(독도, 통일), 실외놀이시설관리(안전교육)
	진로 · 환경	양○○	진로교육, 봉사활동, 환경교육, 교내환경관리, 놀이시간학생안전교육
교육복지부	교육복지부장	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B형), 학생자치활동, 돌봄교육, 텃밭관리
	다문화예비학교	박○○	다문화교육 일반, 예비학교운영, 중국어교육(이중언어 강사제), 한국어강사 관리
	교과서	최○○	영어교육(보), 연구학교(보), 보도자료(보), 교과서업무, 저소득층 정보지원, 청소년단체(아람단2)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장	조○○	6학년 업무(졸업, 진학), 축구부운영, 국제교류, 영어 코티지, 영어실운영
	체육교육	박○○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 운동회, 실내놀이시설관리(안전교육)
	보건교육	한○○	학교보건교육, 건강기록부관리, 성(폭력예방)교육, 건강검사, 음주흡연예방교육, 교육환경 보호구역, 양성평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감염병 관리, 미세먼지교육
	영양교육	김○○	영양교육, 급식일반, 급식소관리, 밥상머리교육, 우유관리
행정지원실	행정실장	김○○	행정실 업무통합, 학교운영위원회, 보안, 인사, 복무, 안전관리
	주무관(계장)	이○○	학교회계, 발전기금, 정보공개, 소방, 방재, 물품, 재산, 학교시설계약, 방역, 안전시설관리
	주무관	김○○	세입·급여, 세입세외, 민원, 맞춤형포인트, 수익자부담경비, 세출업무일부, 교육통계, 기록물, 경력증명
	주무관	손○○	시설관리, 수목관리, 소방, 전기 점검, 재산(neis), 정기등청, 교사관리, CCTV현황 및 관리
	조리사	김○○	급식조리, 조리원 관리, 음수대관리

<그림-1> 밀양 ○○초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분장표(2017. 3. 1.): 6학년 규모

팀명	구분	교직원	담당	구체적 활동		
				교육업무 추진	교육과정 운영	
행복교과팀	교과담당	학교장	000	지원		
		1학년	000	독서교육	다문화	입학식
		2학년	000	예술교육		계절학교(가을)
		3학년	000	행복운영부장	평가	계절학교(봄)
		4학년	000	영어교육	수업나눔	학생다모임
		5학년	000	생활교육		계절학교(여름)
		6학년	000	체육교육	학교목력	졸업식
행복지원팀	교무업무지원	교감	000	교무 업무지원	교무관리, 교원인사, 복무관리, 교원표창, 청렴교육, 학부모회 운영, 월중-주간계획, 홍보 및 자료집 발간, 교직원다모임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보건위생교육, 교원능력개발평가	
		교과전담	000	행복지원 부장	학교정보공시, 학생전출입, 컴퓨터관리, 안심알리미, 나이스 및 생기부 관리, 홈페이지관리, 학교규칙, 출결야간, 학습준비물, 돌봄교실, 과학교구 관리, 방송 및 기자재관리, 정보 및 과학교육, 안전교육, 가정체험학습 운영	
		교무행정원	000	교무 업무지원	공문접수 및 공문처리, 간행물관리, 가정통신문 관리, 재정부관리, 각종 통계, 기록물 정리, 환경물품구입, 자유수강권, 게시판관리	
		돌봄	000	돌봄교실	돌봄교실 운영 및 지원	
	행정업무지원	행정실장	000	행정업무 총괄	관인관리 및 인사·보안, 학교회계 예·결산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무직원관리, 계약 및 학교회계 지출, 재산, 소방	
		주무관	000	학교회계	학교회계(병설유치원)세입·세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급여 및 4대보험, 민원 및 정보공개, 교육통계, 기록물관리, 물품, 시설, 에너지 절약, 차량요일제 관리, 교육비지원, 연말정산	
		영양사	000	학교급식	급식업무총괄, 급식식단작성, NEIS급식관리, 급식 관련장부관리, 급식소위생관리 및 교육, 영양관리 전반, 중식지원자관리	
		주무관	000	급식조리	조리, 조리장 내 위생관리, 조리원 관리	
		조리실무사	000	급식조리	조리업무 보조	
		조무	000	시설관리	시설물관리, 교내외 환경관리, 양선(정기점검), 당직관리	

3. 업무 정상화는 확장적 학습공동체로 이어져야

지금 학교에서 공적인 영역인 수업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많지만 실제 교사 자신의 수업을 여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것은 수업열기용 수업이 거창해야한다는 강박과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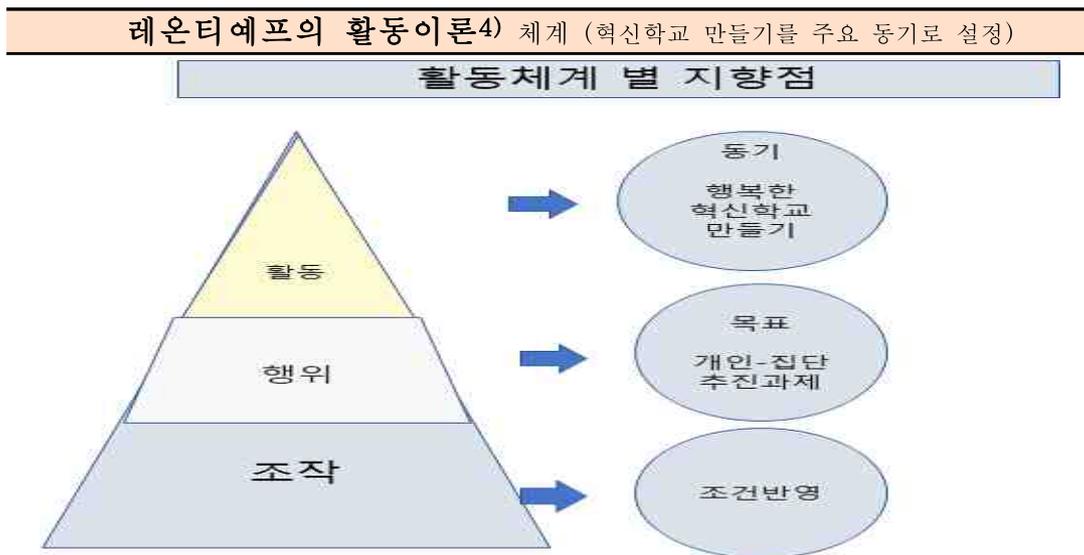
해도 있으나 그간 수업활동과 생활교육을 교사 개인이 혼자 책임져오던 관행의 타이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수업뿐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활동 또한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의 부재 즉, 수업 외 활동 또한 통합적으로 학습공동체 안으로 끌어안는 체계를 갖추어야지만 학교가 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업, 동아리, 축제, 체육대회, 봉사, 진로활동 등 또한 교원학습공동체에서 다루어야 할 교원들의 전체적인 학습주체여야만 합니다. 이는 (성열관 외 2019, 『활동이론으로 바라본 혁신학교, 학교는 어떤 공동체인가?』, 살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장적 학습공동체²⁾로서의 학교

비고츠키주의자들(레온티에프, 엥게스트롬)의 **활동이론³⁾**에 의하면 개인이 공동체속에서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는 동시에 개인은 다시 자신의 의지로 공동체를 변화·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습공동체의 리더는 이러한 공동체(활동체계)를 세밀히 분석하고 공동체의 주체들이 목표를 지향하고 목적(동기)을 지향하고 학습하도록 배려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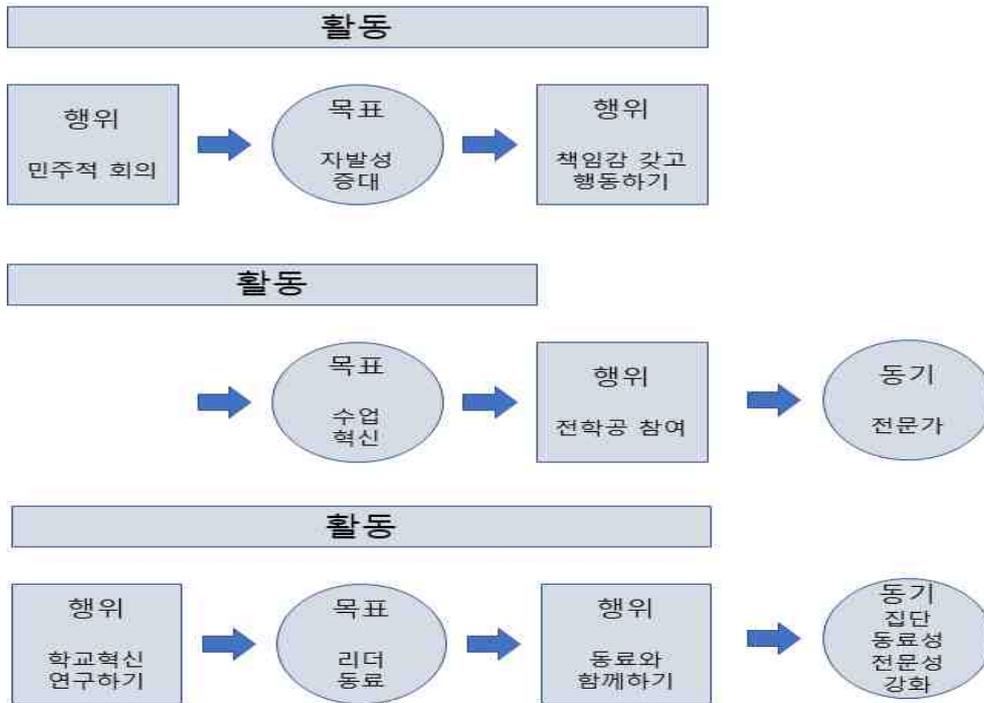
학교를 하나의 활동이론이 적용되는 활동체계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동기	활동	목표	행위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성과를 위한 시스템 전체	교원학습공동체 등	목표별 중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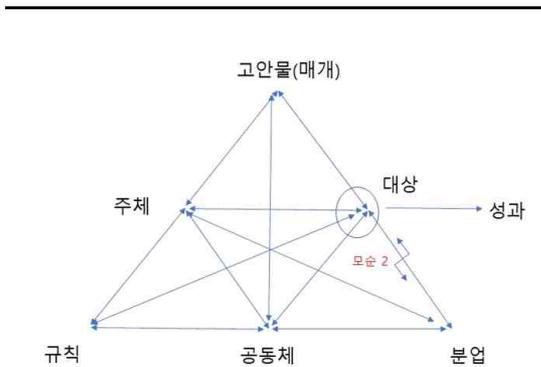
2) 개인의 학습이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공동체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요소별로 또는 전체에 지배적인 모순(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주체들이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에서 주체들의 사고가 확장된다.(2019, 성열관)

3) 후기 비고츠키주의 중에서 활동 중 나타나는 학습에 관심을 지닌 학문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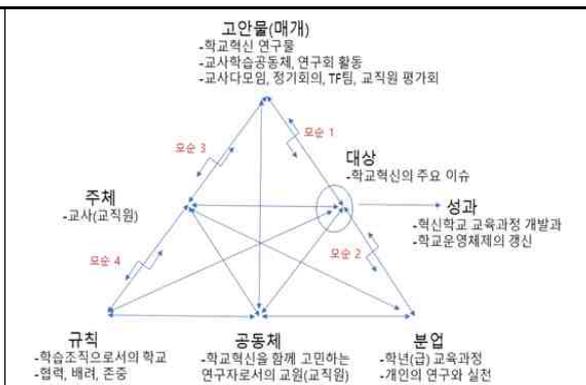


<그림 1. 레온티예프 활동이론을 혁신학교에 적용>

학교의 성과는 주체(교사), 노동분업, 규칙과 규범, 공동체와 문화 등 특별한 매개를 통하여 창의적으로 완성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학교라는 활동체계를 6가지의 구성요소⁵⁾를 통하여 각각의 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 2. 앙게스트롬 인간활동체계의 구조> (성열관, 2019에서 재인용)



<그림 3. 활동체계와 혁신학교의 확장적 학습공동체>

- 특정동기의 영향으로 인간은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그 행위의 목표가 동기로 전환되면 행위 수행을 끝낸다. 이것은 행위가 활동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행위들이 모여 활동이 되며 활동은 동기를 지향한다.(성열관, 2019)
- 앙게스트롬은 레온티예프의 활동체계를 이어받았으며 분석단위에 규칙, 노동분업, 공동체를 추가하였다. 주체와 대상사이의 매개인 도구, 주체와 공동체의 매개인 규칙, 공동체와 대상의 매개인 노동분업을 강조한다.

나. 교내학습공동체를 공식업무로

학교혁신을 시작하려니 모순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런 학습이 없이 각자의 욕구나 성취감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반드시 집단적인 학습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존 행정업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교사들은 교내학습공동체에서 다양한 교육연구활동에 전념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공식업무로 자리잡을 때 학교혁신의 길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사에게는 행정가, 지식전수자로서의 교사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 상담가 또는 멘토로서의 역할이다. 여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중에서도 수신능력이 중요하다. 근대학교는 교사들이 발신만 잘해도 그럭저럭 돌아가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교사상이 요구되는 시대다. 적어도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는 아이들이 발신하는 신호를 캐치해낼 수 있는 민감한 안테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정가나 지식전수자 역할만 하는 교사는 앞으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다. (현병호, 2018)

4. 교육청과 교육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학교업무정상화는 공교육이 교육적 본질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작이자 끝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업무정상화와 교내학습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부와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책사업과 공모사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전국단위와 시·도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과정의 대강고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삼아야 합니다. (강민정, 2018)

둘째, 교사가 되자마자 교단 이탈을 꿈꾸게 만드는 승진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활동이 최우선인 학교, 민주적이며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체계에서 활동해본 교사만이 학교를 학습조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에 가보면 의사와 간호사, 조무사는 철저히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소 약간의 행정업무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무과의 일입니다. 학교도 이제 학교 행정업무에 비례하는 행정실 인원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일 때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불량 교사’는 늘어나며, 학교가 바뀔 수 있습니다.

(e-mail : flyogolge@hanmail.net)

참고문헌

- 성열관 외(2019). 『비판적 실천을 위한 교육학』 「앵게스트롬의 문화역사적 활동이론과 교육」. 살림터
- 성열관 외(2019). 『활동이론으로 바라본 혁신학교, 학교는 어떤 공동체인가』. 살림터
- 이중현(2017). 『혁신학교는 지속가능한가』. 에듀넷
- 비고츠키교육학 실천연구모임(2015).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살림터
- 구기욱 역(2017). 『민주적 결정방법론-퍼실피테이션 가이드』. koofa books
- 강민정(2018).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 「행정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 살림터
- 현병호(2018). 『민들레』 120호 「탈학교운동을 돌아보며」. 민들레출판사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

(가좌초등학교 사례 중심)

황 현 숙

(가좌초등학교 교사)

1. 표지에 담은 학교 교육과정



직

이 활동

2. 학교의 철학과 비전

가. 가좌교육의 철학

2018년을 되돌아보며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2018학년도를 되돌아보면 **한 사람 보다는 열 사람 보다는** 함께했던 모두가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행복한 꿈을 간직한 우리 아이들, 사랑과 열정으로 참된 교육을 실현하는 선생님, 학교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는 학부모님,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가좌교육을 만들어 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2019학년도에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모여 2018학년도에 조금 아쉬웠던 교육 활동을 반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한 교육과정 다이어트 단계를 거쳐 교육 목표와 새로운 비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좌 교육공동체는 모두 함께 **“즐겁게 배우고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두박두박 걸어가고자 합니다.

가좌교육을 위한 약속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본질에 충실한 가좌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학교는 훌륭하고 멋진 수업을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의 행복하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화려한 실적을 만들기 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교육의 본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가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교직원들은 즐겁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학부모와 함께 참된 교육을 만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가좌 교육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나. 가좌교육 비전과 교육공동체 약속

가좌교육 비전

즐겁게 배우고 실천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교육공동체 약속

교사	학생	학부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들을 밝은 미소로 대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아이들의 행복 속에 나의 행복을 찾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배우며 실천합니다. 2.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를 실천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과 아이의 거울이 된다는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2. 배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신뢰하고 협조합니다.

3. 7월, 12월 교육과정 워크숍

가. 1학기 교육과정 워크숍(7월)

1차	내용	방법
1차	<p>동학년 중심 워크숍</p> <p>- 1학기 교육활동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 자체 평가회 실시(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 자치활동, 어깨동무 체험활동, 놀품누리 주간 운영 등)</p> <p>- 전체 협의 주제 제시</p>	<p>1. 1차 워크숍: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워크숍</p> <p>2. 2차 워크숍: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워크숍</p> <p>3. 3차 워크숍: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워크숍</p> <p>4. 4차 워크숍: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워크숍</p>

- 방법: 월드카페식 토론
- 주제 선정: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학부모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협의를 통한 토론 주제 설정
- 가좌교육과정 함께 그리기 안내장

교 육공동체가 함께 배움과 협력이 있는 가좌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가좌초등학교
http://gajwa-p.gne.go.kr/

52829 경성남도 진주시 내동로 348번길 17(가좌동)
교장실: 055-756-0532 교무실: 055-756-0536
행정실: 055-756-0530 F A X: 055-756-0531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가좌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함께 그리기

①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18:00~
② 장소: 가좌초등학교 강당
③ 대상: 학생, 학부모, 지역민, 교직원

시간 운영 일정표

시간	주요 내용
18:00~18:20	▶ 접수 및 등록
18:20~18:50	▶ 주제별 토론 [가좌교육과정 함께 그리기 토론 주제] ① 교육공동체 학부모 약속 만들기 ② 학부모 다모임 구성과 운영 ③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생 생활교육 ④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 ⑤ 녹색 어머니 활동 운영 방법
18:50~19:50	▶ 자유 토론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기타 의견 나누기
20:00~20:20	▶ 주제별 토론 결과 나누기
20:20~21:00	▶ 자유 토론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기타 의견 나누기

※ 참고사항
▶ 참가 신청서는 11월 21일(목)까지 당일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자차(5-6학년)와 함께 참여 가능하며, 어린 자녀 동반도 운영됩니다.
▶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식음 1권씩 선물을 드립니다.

▪ 가좌교육과정 함께 그리기 사진



2) 2차-동학년 중심의 2019학년도 학년(학급) 교육과정 자체 평가회

- 대상: 담임교사(전담교사 및 비담임교사는 해당 학년에 참여)
- 일시 및 장소: 2019.12.09.(월) ~ 12.12.(목). 학년별 지정 시간, 학년 연구실
- 주요 평가 내용
 - 2019학년도 학년(학급)교육과정 운영 평가(운영 성과, 적용 방안 및 개선의견): 프로젝트 학습, 학생주도 자치활동, 어깨동무 체험활동, 놀품누리 교육 등
 -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타 건의 및 협의 사항
- 협의 내용

2019학년도 2학기 학년(급) 교육과정 및 영역학교 운영 평가		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	
<p>1. 학년(급) 교육과정 운영 평가 가, 학생 및 학교 운영 교육활동 운영</p> <p>학년 2학기 운영 성과 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p> <p>4.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성과 교육과정 운영 성과 교육과정 운영 성과</p>	<p>교육공동체 약속 만들기 자정</p> <p>5. 녹색 어머니 활동 운영 방안</p> <p>나. 수행평가 및 학생 평가 결과 분석 방법</p> <p>다. 그 외 교육활동 운영</p>	<p>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p> <p>4. 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p> <p>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p>	<p>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p> <p>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p>
<p>3. 기타 건의 사항</p> <p>학년</p> <p>4. 기타 건의 사항</p>		<p>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p> <p>2020학년도 적용 방안(학급) 협의</p>	

3) 3차 -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2019년 12월 18일(수), 14:30~21:00, 도서관
- 대상: 전교직원
- 방법: 월드카페식 토론 및 전체 협의
- 주제 선정: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사 설문 문항 및 2차 동학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부장 협의를 통해 토론 주제 설정
- 시간 운영 일정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진행
1부	14:30 ~15:30	[2019학년도 너도? 나도!] • 구성: 20대~50대 연령별 모둠 구성(4모둠) • 내용: 2019학년도 학교생활 이야기 나눔	연구
	15:40 ~16:40	[주제 중심의 협의회] 1	퍼실리테이터
저녁식사(16:40~18:00)			
2부	18:00 ~20:00	[주제 중심의 협의회] 2 • 주제1: 전체 일과 운영 • 주제2: 중점 교육 활동 및 특색 교육활동 • 주제3: 학생 생활 교육 • 주제4: 꿈+기 놀품누리 주간 운영 • 주제5: 업무 분장 • 주제6: 교육 공동체(교사) 약속 만들기	퍼실리테이터
	20:00~	[주제별 협의회 결과 발표회]	퍼실리테이터

▪ 협의 사진



4) 4차 -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

- 일시: 2019년 12월 19일(목), 15:30~18:00
- 장소: 도서관
- 대상: 학부모회 및 학생회, 희망 교직원
- 주요내용: 1~3차 협의 내용 중심 협의

■ 활동사진



5) 5차 -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직원 최종 워크숍

- 일시: 2019년 12월 20일(금) 15:10~12월 21(토) 18:00
- 장소: 대전광역시 일원
- 대상: 참가 희망 교직원
- 주요내용
 - 공간 혁신 탐방 및 문화 관람
 - 2020학년도 가좌교육과정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전체 최종 협의

4. 2월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

다음 학년도 가좌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워크숍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 전입해 온 교사와 함께 학년(급)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 자료를 안내하고 함께 협의

2019학년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 일정표

가좌초등학교

교시	시간	2월 19일 ~ 2월 22일			
		2월 19일 화요일	2월 20일 수요일	2월 21일 목요일	2월 22일 금요일
1	09:10 ~ 10:00	교직원 소개, 학년(반) 발표, 학교장 특강 가좌초등학교 교장 박진우 <장소: 도서관>	학년 비전 세우기 및 재구성 방향 작성하여 함께 나누기-① <장소: 도서관>	알과 삶이 연계된 어깨동무 체험활동 계획 작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 반영 동학년 협의회(1,2,5,6학년) <장소: 학년연구실>	빛깔 있는 배움중심 프로젝트 계획 작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 반영 동학년 협의회 <장소: 학년연구실>
		교직원 친교 활동 <장소: 도서관>			
2	10:10 ~ 11:00	2019학년도 가좌교육과정 및 행복학교 운영 계획 안내 연구부장	(특강)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 신동규 <장소: 도서관>	※ 초등 3~4학년군 지역화 교재 활용 연수 •대상 3~4학년 담임 •장소: 진주교육지원청 2층 •시간: 10:00~12:00	
		2019학년도 교무 행정사항 안내 교무부장 <장소: 도서관>			
3	11:10 ~ 12:00	학교 중점 교육활동 공유하기 <장소: 도서관>			실과 놀이가 있는 '감성 1교시' 운영 계획 작성-① 동학년 협의회 <장소: 학년연구실>
♡ 점심 시간 ♡					
4	13:00 ~ 13:50	2019학년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조직-① <장소: 도서관>	학년 비전 세우기 및 재구성 방향 작성하여 함께 나누기-② <장소: 도서관>		실과 놀이가 있는 '감성 1교시' 운영 계획 작성-② 동학년 협의회 <장소: 학년연구실>
5	14:00 ~ 14:50	(특강)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방안	학년 비전,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학년 업무분장 사례 공유하기 <장소: 도서관>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동학년 협의회(1~4학년) <장소: 학년연구실>	
6	15:00 ~ 15:50	주석초등학교 수석교사 문지영 <장소: 도서관>	체육교구 활용 및 교직원 건강 연수 전교직원 <장소: 체육관>	※ 초등 5~6학년군 지역화 교재 활용 연수 •대상 5~6학년 담임 •장소: 진주교육지원청 2층 •시간: 14:00~17:00	2019학년도 학년(급) 교육과정 공유하기(체험활동, 프로젝트, 감성 1교시 등) 학년부장 <장소: 도서관>
7	16:00 ~ 16:40	2019학년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세우기-② <장소: 도서관>			2019학년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 반성 및 협의회 연구부장 <장소: 도서관>
★제출		2019학년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의 내용 제출 <전문적 학습공동체별 회장 → 연구부장>	2019학년도 어깨동무 체험활동 협의 내용 제출 <학년부장(취합) → 연구부장>	2019학년도 프로젝트, 감성 1교시 운영 협의 내용 제출 <학년부장(취합) → 연구부장>	
비고		★ '2019학년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 일정표'는 학교 여건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5. 가좌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체제표

순	차례	내용	쪽수	비고
I	학교의 상징	교화, 교표, 교목, 교가	1	
II	학교현황 및 실태분석	1. 학교 연혁 2. 학교 현황 3. 실태분석 및 전략수립	2	
III	가좌교육의 기본방향	1. 2018년을 되돌아보며	1	※2020학년 도에는 가좌 교육의 철학 을 좀 더 구 체적으로 담 을 계획임
		2. 가좌교육을 위한 약속 (교육공동체 약속)	1	
		3. 교육목표	1	
		4. 교육 목표의 구현체계	1	
		5. 중점 교육 활동	5	
		6. 특색 교육 활동	1	
		7. 행복학교 운영 계획	1	
IV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	1	
		2. 일과 운영표	1	
		3. 학년군별 교육과정 시수 편성	2	
		4.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1	
		5. 학교 행사활동 운영 계획	1	
		6. 2019학년도 학사 일정	2	
V	학생 평가 계획	목적, 방침, 평가의 종류와 방 법, 평가 결과의 활용	1	
기타	부서별 업무 추진 내용	업무 분장	1	※일반 학급 운영 담임교 사 업무 제 로 현행유지
	학교 안내도	학교 안내도	1	
	학사 달력	2019학년도 학사 달력	1	

(e-mail: hyunsook-76@hanmail.net)

행복학교 학년 교육과정, 함께 만들자

이 미 라

(증산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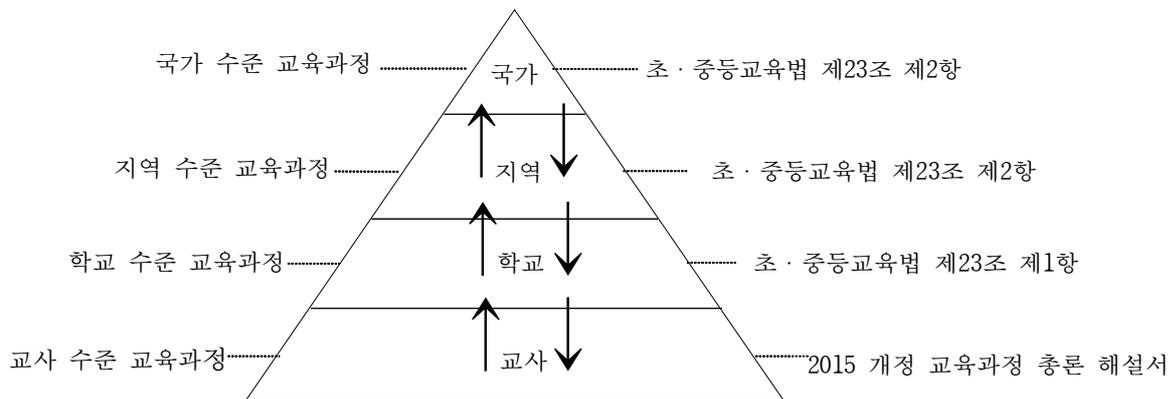
1. 들어가며

증산초등학교에 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작년에 왔고, 행복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2년을 보냈다. 작년에는 2학년 평교사로, 올해는 3학년 부장교사라는 업무를 가졌다. 행복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사실 나는 모른다. 그냥 무늬만 따라 흉내만 내보았는데 오히려 이 글을 정리하면서 아주 조금 행복학교라는 곳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나처럼 정말 행복학교에 대한 ‘초차’(初)인 선생님들께서 이 글을 보시고 ‘행복학교에서의 학년 교육과정 그쯤이야! 나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시길 바라며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2. 학년 교육과정은 뭘까?

교육과정이란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 따르면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결정 주체와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지역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사회, 문화 및 학부모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실태, 학교 환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를 단위 학교(학급)별로 편성·운영하는 실천 중심의 교사 수준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학년 교육과정은 바로 학년 단위의 교사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년 교육과정이라면 흔히 학년별 교과와 창체 시수를 맞추고 진도표를 짜고 평가 문항을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보다는 학교

의 비전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과 교육을 비롯한 학년의 교육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교육과정의 적정화**라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교육과정 문해력’이 필요하다. 즉,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해석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의미 있게 구성하고 수업, 평가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아이들의 삶과 얹어 하나가 되는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학년 교육과정은 교실 안에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규모 학교일수록 동학년 체제의 협의와 합의, 통합 과정이 매우 필요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수준]

3. 행복학교의 학년 교육과정은 특별한가?

처음 증산초등학교에 갈 마음을 먹고 선배 선생님에게 여쭙보니 “거기 행복학교인 거 알고 있나? 엄청 회의를 많이 하고 힘들 수도 있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여기 행복학교에 온 지 2년. 진짜 일반 학교에 비해 행복학교의 학년 교육과정은 뭔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기에 힘들 것이라고 지레 걱정하시는 걸까? 찾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2019. 증산초등학교 3학년 학년 교육과정 정리 워크숍 자료를 바탕으로 월별 학년 교육 활동을 정리해보았다.

< 2019. 증산초 3학년 월별 교육과정 정리 >

시기	내용	운영방법	시기	내용	운영방법	
연중	아침 마음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일 아침활동 시간 8:40~9:00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반별 활동(독서, 아침 마음 나누기(감정출석부), 글똥쓰기(감정공책), 바르게 걷기 등) 	2월	관계 맺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학년 선생님과 마음 열기 학년내 업무 배정 / 학년 특색교육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창체 동아리활동 등 전반적 학년 교육과정 방향 잡기 	
	건강 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강사 초빙 건강안전교육 실시 -양산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4월) -굿네이버스 학교폭력예방교육(4월) -양산시 찾아가는 물놀이 안전교육(7월) -양산부산대치진학생들과 함께하는 구강교육(11월) -치과선생님과 함께하는 구강검진(11월) 	3월	새학년 적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하루 1~2시간씩 운영 학급 적응활동 2시간, 자기 소개하기 1시간, 친교활동 2시간, 우리 반 약속 정하기 1시간 	
	온책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 주제, 체험 중심의 반별 활동 국어과 재구성을 통한 독서단원 수업 진행 및 아침활동 활용한 독서의 습관화 	4월	과학 체험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체험의 날 - 4월 10일 2시간 운영 - 활동내용(자석의 원리를 깨치는 자석 다트 판 만들기) 봄 현장체험학습 연계 - 4월 12일, 국립해양박물관 - 활동내용 : 전시관 관람하기(해양문화, 해양생물, 해양산업 알기 등), 4D영상보기, 해양생물 만져보기, 로봇물고기 관람 등 	
	학교 특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1악기(리코더) 운영(연간17시간) 12월 교육활동 나눔 발표회에서 공연 및 음악시간 학급별 작은 음악회 실시 		1학기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체험부 - 학기당 10시간 운영 활동내용 - 마을교사 협력 수업(양산역사놀이 2시간, 전통놀이 8시간) 	
	학년 특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스태킹 운영(연간 14시간) 12월 교육활동 나눔 발표회에서 공연 	4월 5월	녹색 생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과 수업 및 과학의 날 행사와 연계 숲해설 외부강사 협력수업 체험 중심 학습으로 구성 활동내용 -숲해설가와 함께 우리 학교나무 알아보기 -미세먼지 경감, 스칸디아모스액자만들기 	
	학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별 / 영역별 / 평가기준 / 실시 시기 합의 / 평가문항은 만들어감. 		4월 5월	생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놀이 운영 방안 협의 -1학기: 동학년 공통의 지도방법 도출 -9~10월 복도통행캠페인 실천
	4월 6월 10월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과를 중심으로 국어, 수학 연계 6월 18일~21일, 양산시립박물관 및 북정동 고분군 견학 1학기 양산시립박물관 및 북정동 고분군 견학 및 2학기 녹색생태교육과 연계한 범기수원지 현장체험활동 실시 동아리 활동으로 학급당 양산 역사놀이 2시간 실시 	9월	2학기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당 10시간 운영 활동내용 - 마을교사 협력 수업(연극놀이 5시간, 행복놀이 체험한마당 2시간, 찾아가는 놀이터 2시간, 학급놀이 1시간)
				10월	현장 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7일~11일, 성지체험농원 및 범기수원지 방문 활동내용 - 향초 만들기, 허브농원, 전통놀이 체험 및 범기수원지 숲 체험
5월	어린이날 기념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2일, '난장앤관' 국악 공연 관람 기존 어린이날 행사(운동회, 체험활동)에서 탈피한 행사 다른 학년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국악공연팀을 섭외, 국악 수업과 연계 	9월 10월	예술 강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24일~10월 30일, 학급당 4시간 운영 놀이 활동과 함께하는 국악 수업의 재구성 	
			11월	행복 놀이 체험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체 동아리활동 - 전통적인 운동회 행사에서 벗어나서 함께 뛰어놀고 협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놀이체험한마당으로 구성함. 	
6월 7월	생존 수영 실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17일~7월 16일, 국민체육센터 활동내용 - 생존 수영교육, 기초적인 수영 기능 체득 	12월	교육 활동 나눔 발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6일, 강당에서 3시간 운영 교육과정 중의 교육활동 6작품 발표 및 알뜰장터를 통한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함. 	

위 표에서 증산초 3학년 교육 활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일반 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일반 학교에서도 아침 활동이며 적응 활동이며, 동아리 활동, 현장체험학습 다 한다. 그리고 초등 3학년이라면 올해부터 온책읽기도 하고, 그리고 수영 실기 교육은 의무참여로 모두 한다. 위 표를 보시고 사실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지극히 학년 부장의 역량이 부족하여 행복 학교의 취지에 맞추어 짠 하고 보여드릴 멋진 재구성된 교육과정들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 증산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은 이것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평범한 학년 교육과정인데 그래도 일반 학교와 차이점은 있지 않을까? 나는 첫째도 둘째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바로! **선생님의 자발성! 의지! 다양성! 자율과 책임! 치열한 고민! 멋진 동학년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와 다르다고 본다. 증산초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이 있지만 그 누구도 학년에 강요한 교육 활동은 없었다. 3학년의 온책 읽기도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도 현장체험학습도 그 누구도 꼭 해야 한다, 꼭 이런 형식으로 해라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 오롯이 동학년 선생님들의 협의 하에 계획되었다. 많은 시간 동학년 협의로 교재 연구를 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실제 삶 속에 녹아들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고 또 찾으려 노력했다. 또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다. 복도통행 캠페인을 예로 들면 4학년 학급자치 다모임에서 학생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고 2개월 간 학생들 스스로 실천을 했고, 그 활동의 효과를 느낀 타 학년에서도 복도통행 캠페인을 따라 실시해보았다. 문제점도 당연히 있었지만, 학생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교육과정을 꾸릴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들도 교육과정 설명회뿐만 아니라 학교종이 앱을 통해서 매일 학교, 학년, 학급의 소식을 접하고 학년 학부모회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시고 아침맞이 활동에 참여해주셨다. 그 누구도 부탁을 드리지 않으셨는데도 말이다.

바로 이러한 **선생님들의 자발적 의지와 민주적 허용적 학교 문화**가 결국 일반 학교의 학년 교육과정과 행복학교의 학년 교육과정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나. 2019. 증산초등학교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이번에는 뛰어나게 잘 구성되었다기보다는, 학년별로 재구성의 수준도 범위도 모두 다르지만 **함께 만들어갔던 2019. 증산초 학년별 교육과정**의 일부를 참고하셔서 2020학년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1학년 예시-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통합교과)

단원	성취 기준	차시 내용	교과			재구성 내용		활동 계획 (안전 및 창체활동과 연계)	수행 평가	그림 책	
			바	슬	즐	작제 통합 연계 증배	이유				
가을 2. 현규 의 추석	2슬06-02 여러 가지 자료를 활 용하여 가 을의 특징 을 파악한 다. 2슬06-02 가을과 관 련한 놀이 를 한다.	(증) 가을 운동회			2	◎	10.17 학년행사 와 연계	즐거움 가을 운동회 참여하기		가을 운동회	
		[22-23] 파란 가을 하늘이 좋아요	1	1		차시 이동	10월 말~11월 초 가을을 느끼기 에 좋은 계절에 맞게 시기 조정	-파란 가을하늘(작사: 어효선, 작곡: 김공선) -주변의 가을풍경(단풍든 모습, 들판 등) 살펴 보기 ▶가을 현장체험 학습과 연계		바빠요 바빠	
		[24-25] 반가워요! 가을 친구들			3	차시 이동 ◎		-가을에 볼 수 있는 곤충과 식물 살펴보기▶ 가을 현장체험 학습과 연계 -특징에 따라 무리짓기			가을을 파는 마법사
		[26-27] 가을 잠자리			2	차시 이동		-잠자리 만들기			
		[28-29] 잠자리를 잡아라			2	차시 이동		-잠자리 풍뎉(전래동요) -잠자리 잡기 놀이		✓	
		[30] 낙엽을 밟으며			2	차시 이동 ◎		-낙엽 모으기, 낙엽 밟으며 놀기, 낙엽 날리기 -낙엽으로 동물 나타내기, 가을 나무 만들기 ▶가을 현장체험 학습과 연계			
계			6	15	22						

2) 2학년 예시-호락호락(好樂好樂-2베로 즐겁고 신나는) 생활밀착형 체험중심 교육과정

*2학년 국어과 : 온책읽기로 재구성 / 1학기 :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주제		배려와 나눔 생활밀착형 프로젝트 - 배나온(배려와 나눔을 온누리애) 증산어린이				
학기 및 교과		1학기 국어 2-1-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재구성 후) - 온작품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성취기준	재구성 배움활동 및 내용	시 수	
1 학 기	문 학	작 품 낭 독 · 감 상	[2 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 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 를 감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물의 마음 떠올리며 이야기 듣기 -이야기 듣고 인물의 모습 떠올리며 인물 표정 그린 후 이야기 나누기 -내가 생각하는 '욕심'이란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누기 -내가 욕심 나는 것에 대해 생각한 후 줄이에 적고 이야기 나누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 읽고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그림책 읽기(전체-꼭 읽기) -내용 파악하기(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놀이)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말하기 -카드에 제시된 상황을 모둠별로 조각상으로 표현-상황 맞추기-인물 인터뷰(타블로 기법)-인터뷰한 인물에게 감정카드를 건네며 공감해 주기 -교과서 그림에 말풍선 그려 인물들의 생각이나 대화글 넣기 · 형성평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이야기 읽기 	2	
	쓰 기	쓰 기 의 태 도	쓰 기 에 대 한 흥 미	(자기 생활-계 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기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한 생각과 느낌(나라면 어떻 게 할까? 내용 추가 제시) 쓰기 · 형성평가: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쓰기 	2
창 체 (자 율)	나눔과 배려의 놀이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나온 증산어린이" 재능 나눔 잔치 열기 -재능무스 구성하기. 같은 팀원과 준비 하기 (음식, 마술, 종이접기, 핸드페인팅, 네일아트 등) -일반 친구들을 초대하여 나의 재능 나누기 (무스 참여 후 쿠폰북에 도장 찍어 확인받기) -"배나온 필곤선생님"께 필곤을 받아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 (필곤기계를 대여하여 필곤나눔 코너 만들기) -배려와 나눔의 놀이로 마무리하기 (1차시에 했던 "내가 욕심나는 것" 줄이를 버리는 욕심버리기 놀이 등) -활동 후 소감 나누기 	4	
계					13	

3) 4학년 예시-이해중심교육과정(사회과)

단원 / 성취기준		내용 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성취기준-4사04-04]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물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간 경제 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탐구한다.	경제	경제생활과 선택	경제활동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 소비, 시장	
	지도상의 주의점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물건의 생산지를 조사하여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이 물자를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처음으로 경제 영역을 다루므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경제 영역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핵심질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을 시장, 생산, 소비 개념을 이용하여 어떻게 설명할까요?		
	수행과제		나의 경제활동 탐구 보고서(모든 활동지는 A4용지에 작성하며 포트폴리오로 만들)		
	개념		·생산: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소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자 돈을 쓰는 것 ·시장: 자유 경쟁 원칙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롭게 의사 표현을 하며 가격을 조정하여 거래를 형성하는 곳		
	기능		·조사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상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사할 수 있다.		
역할		·정보활용능력: 일상생활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 생산, 소비, 시장의 뜻을 알 수 있다.			
설계의도	돈돈돈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물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도록 한다. 자신의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하여 생산, 소비, 시장의 뜻을 탐구하고 자신의 경제활동을 생산, 소비, 시장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내용			자료	지도상 유의점
1차시	㉠ 1차시) 일주일간 내가 쓴 돈돈돈(과제) -일주일간 나의 경제활동을 조사한다. -반드시 들어갈 내용: 원산지(없으면 생략), 어디에서 돈을 썼나요?(시장), 무엇에 돈을 썼나요?(소비)			일주일간 내가 쓴 돈돈돈(활동지)	㉡가목의 경제활동 사례 속에서 원산지, 시장, 소비를 알아보도록 한다.

4) 5학년 예시-학기초 적응활동 프로젝트

날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부제	#사랑으로 시작하는 너와나		#공동체 안에서 빛나는 우리		#함께 만드는 울타리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로 마음열기(선생님 은 몬스터) ◆선생님 사용설명서(작년 학생들) ◆선생님에게 비행기 날리기(궁금한점) ◆자기 소개활동(3有 1無/얼굴에 스티커 붙여주기) ◆행복한 1년 그리며 마무리(잔잔한 음악/초콜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각이름표만들기 ◆이름외우기 활동(이름빙고) ◆서로 돕는우리 ◆써클활동안내 ◆어제감정과 기분이야기하며 써클열기(토킹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동화 읽으며 공동체 이야기 (독수리와 굴뚝새) ◆니를 힘들게 하는 것과내가 버리는 것 학습지 하며 친구들과 과소화하기 ◆꿈꾸기(내꿈아 날아라) ◆관계맺기 놀이하기 바람이 불어와 -손님모셔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가치만들기 (우리반이 중요하게 여길 가치 찾기) ◆자리바꾸기 ◆모둠구성과 모둠활동의 마음가짐 ◆손바닥 그리기(짜공의 손) 활동 및 협동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동화읽기(도서관에 간 사자) ◆예절과 규칙(규칙은왜 필요한가?) ◆우리학급 규칙정하기 ◆내가 누구에 놀이하기(이불) ◆ 리더의 조건 이야기나누기-자치위원 선거
날짜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부제	#함께 만드는 울타리	#협동과 배려로 성장하기		#함께 배우며 꿈키우기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밴드 소개하고 사이버예절 교육 ◆사이버예절 우리반 규칙 만들기 ◆진단활동 ◆감정카드 안내 ◆감정카드 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동화읽기 (년 정말 멋져) ◆친구와 함께 다양한 교실놀이하기-신뢰의 원-인간사슬 ◆감정이야기하기 ◆5학년 전체 다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들영화감사하기 ◆마니또 활동 소개 및 진행 ◆학급 반가 영상만들기(비타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움노트 작성법 교육 및 실습 ◆마인드맵 및 비주얼씽킹 실습하기 ◆성격 유형별 맞춤형 학습방법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의 목록 영상 시청 및 작성하기 ◆1년간의 버킷리스트 만들기 ◆나의꿈꾸기 ◆배움노트, 일기 작성법, 주제일기

5) 6학년 예시-주제중심교육과정(주제: 아낌없이 나누는 배움)

구분 내용	1학기		2학기	
	만남&어울림	도전	성장	나눔
주제 선정의 취지와 목적	다양한 만남(나, 우리, 책, 생명)을 통해 나를 직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낌.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통해 나의 한계를 넘어서보고 새로운 분야를 접해보면서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탐색.	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도전으로 얻어진 배움을 새롭게 표현하고 실천하면서 좀 더 나은 나, 우리, 세상을 위해 노력.	자신에 대한 믿음, 배움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나의 배움과 재능을 봉사와 기부를 통해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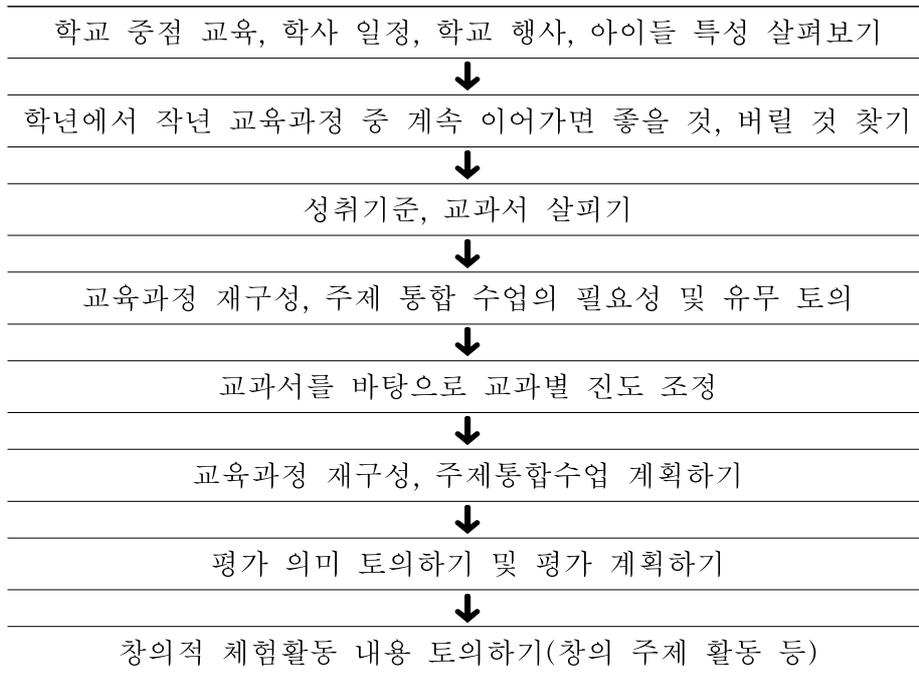
대주제	성취기준	교과	배움 활동 및 내용
만남 & 어울림	[도1-02] 자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현방법을 익힌다. [실1-04]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서로 간의 배려와 돌봄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제1-06] 건강 증진을 위해 계획에 따라 운동 및 여가 활동에 열정을 갖고 꾸준히 참여한다.	도덕 1.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나의 성향 및 특성 마주하기 ▶자유존중감 향상을 통한 주제적인 삶 인식하기 - 집단상담활동, 공감대화카드 활용 배움활동 ▶다양한 관점을 통한 가족구성원 역할, 입장이해 ▶나의 신체능력에 적합한 체력향상 활동 참여
		실과 1. 나와 가족의 관계	
		체육 1. 건강	
생명의 만남	[과12-02] 식물의 전체적인 구조 관찰과 실험을 통해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현 방안을 제안한다.	과학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식물 재배 활동을 통한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이해 ▶직접 재배한 식물 관찰을 통한 식물의 구조와 기능 이해
		실과 2. 지속 가능한 생활	
책과의 만남 & 어울림			
읽기 전 활동	[국1-06]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여 듣는다. [사05-0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현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태도를 기른다.	국어 6. 내용을 추론해요 사회 2-2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질문 만들기 연습 (단원-열린 질문) ▶책 도입-내용 및 인물 성격 추론하기 ▶민주주의 의미와 민주적 선거 과정과 가치
1. 다짜고짜 금요일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국어 독서단원	▶배움중심 질문수업 : 내용-창의 질문 공유하기 ▶이야기 속 배경 탐색 - 국제시장 영화 관람

4.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고민하자

가. 학년 교육과정 만드는 과정

이제 2020학년도 학년 및 학급이 정해지면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만들어보자.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2019.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 자료 중 119쪽 표에 잘 정리되어 있어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바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활동이다. 학교 상황도 중요하고, 작년의 교육과정도 중요한데 그보다 선생님 본인이 우리반 학생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셨으면 한다. 학년협의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교육 활동 또는 교육내용을 나열해보고 그 중에서 학년 단위로 해볼 만한 것을 추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쉬울 것이다.

< 학년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



- 2019.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 자료 중 119쪽 발췌

나. 3학년 프로젝트 학습(사회과 지역화 재구성)의 세부 예시

Oh! My 양산 프로젝트				
이름	Oh! My 양산 프로젝트			
방향	양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시설 견학, 체험 등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배움 중심 수업 진행			
목표	1. 사회과 중심의 통합적 교육과정 구성 2. 다양한 체험 및 경험 등 직접 체험의 기회 가지기 3. 학급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재구성 교재(활동지) 수정 보완하기			
단원	성취기준	핵심개념	차시 재구성 내용	수행평가
1. 우리 고장의 모습	4사01-01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한다. 4사01-02 디지털영상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백지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또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1. 장소감의 표현과 공유 2. 고장 내 주요 지형지물의 위치와 분포 파악 3. 고장의 실제 모습	1. 양산의 장소 카드 만들기	
			2. 머릿속에 떠오르는 양산 모습 그리기	
			6~7.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 고장 살펴보기	디지털 영상지도를 보고 개인/모둠별 주제를 정해 우리 고장의 주요 장소를 살펴보기
			8. 우리 고장 사랑합니다.(놀이)	
			9~10. 양산 8경 알아보기	
			11~13. 양산 8경 소개하기	
14. 단원정리 ◆장체 동아리 활동 연계 (마을고사 협력 수업 / 양산역사놀이 2시간)				
2. 우리 가	4사01-03 고장과 관련된 옛이야기를 통하여 고장의 역사적인 유래와 특	2. 고장의 문화유산	6. 누리집을 방문하여 양산의 문화유산 알아보기	문화재청 누리집을 방문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중 자신이 찾

알아 보는 고장 이야 기	정을 설명한다. 4사01-04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 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른다.			고 싶은 것 조사하기
			7. 양산 시립 박물관 알아보기	
			8.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서 작성하기	
			9~12. 현장체험학습: 양산시립박물관 및 북정동 고분군 견학	
			17~18. 단원정리 ◆2학기 현장체험학습: 범기수원지	
국어	4국03-01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단을 쓴다.	2. 문단의 짜임	19. 우리 고장에 대해 한 문단으로 글 쓰기	
	4국03-04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다	20~21.우리 고장에 대한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 ◆거제 내곡초 3학년과 편지교환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쓰기
미술	4미01-03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2. 나는 캐릭터 디자이너	22~23.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설명하기	
음악	4음01-06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거나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우리 고장의 노래	24~25.우리 고장 양산을 소개하는 내용의 'Oh My 양산/ 노래 부르기	

5. 마치며

행복학교를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 “행복학교에서의 학년 교육과정은 이렇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 드리려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특별한 것이 없다. 왜냐면 지금까지 해 오셨던 수많은 경험과 지식 속에 이미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오셨고 이미 나보다 더 높은 수준에 계실 테니까.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이다. 그리고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아이들과 하고 싶은 교육활동을 먼저 생각해보시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의논하신다면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 더 알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학년에서, 학급에서 교재 연구며 프로젝트 학습이며 오롯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업무지원팀 및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 감사한 마음을 보낸다.** 조금 힘들고 낯설지라도 분명 행복학교에 있음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실 날이 올 것이다.

(myra9552@hanmail.net)

<참고자료>

1. 경상남도교육청(2019), 학교교육과정, 학교를 담다.
2. 강정(2019), 교사 수준 교육과정 연수 자료
3. 이정아(2019.). 행복학교 학년 교육과정(2019.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 자료)
4. 경상남도교육청(2017), 삶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과정 이야기

충무공 행복학교 첫 1년 이야기

서향아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충무공 행복학교 첫 1년 이야기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서향아

-주의: 본 원고는 발표자의 개인적 경험의 산물이며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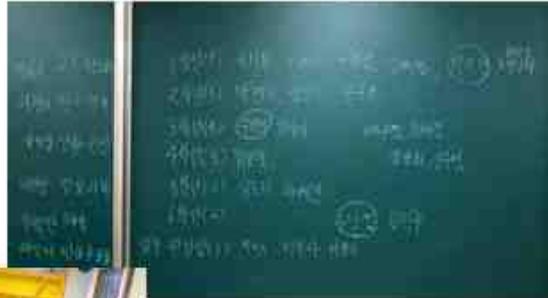
1. 새로운 학교를 꿈꾸다

- 진주초등행복학교연구회 중심-혁신2초를 준비하는 모임
- 2018.8.19.(일) 19:00시, 이제마스터디 카페, 첫 모임
- 6개월간, 10회+a
- 내곡초 이야기 나눔
- 가입학식 보조
- 선정행복학교 연수 참가
- 학교 공사장 둘러보기
- 자율학교 신청



2. 첫 만남

- 준비된 첫 만남
- 첫 만남에서 학년, 업무 배정



3. 새 학교 새 학년 맞이 워크숍

- 첫 일주일 만남 프로젝트 준비
- 총무공 회의규칙



•다모임 규칙

1. 총무공조 다모임은 전교직원들 대상으로 한다.
2. 다모임은 월1회 셋째 주 목요일 3시 10분부터 하고, 사안이 있을 때 임시 다모임을 연다. 임시 다모임은 23 이상의 찬성을 얻을 때 열고, 열리지 않을 때는 정기다모임 회의로 갈음한다.
3. 다모임 때는 차를 마시는 여유와 친목을 다질 수 있다.
4. 자기 의사표현은 확실하게 한다.
5. 결정은 합의로 한다.
6. 다모임 때 전원연수 안하기로 한다.
7. 인간은 일주일 전부터, 늦어도 하루 전에는 공지한다.
8. 친성, 기록, 공유는 교육지원부에서 한다.
9. 회의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회의 시간 안에 끝낸다.
10. 참석치 못하는 사람은 다모임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11. 이 규칙은 다모임을 통해 수정, 삭제, 추가 가능하다.

4. 일정 및 세부 내용

일시	189(1)	199(2)	209(3)	219(4)	229(5)
1	8:10~10:00				
2	10:15~11:00	학년별 협의	학년별 협의	목요일 ①	3~4학년 교직원 ②
3	11:10~12:00			목요일 ②	5~6학년 교직원 ③
휴일	12:00~13:00	휴일(연수휴일)			
4	13:00~13:50		목요일 ③	5~6학년 교직원 ④	목요일 ④
5	14:05~14:50	목요일 ④	합계학교리 이원 (1교부공시)	목요일 ⑤	5~6학년 교직원 ⑤
6	15:00~15:50			목요일 ⑥	목요일 ⑥
7	16:00~16:50			목요일 ⑦	목요일 ⑦

4. 민주적 학교문화? 끝없는 갈등의 과정

- 전체회의 없는 3월
- 학년 대표가 모이는 징검다리 회의
- 월 1회 다모임
- 갈등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
- 회의의 딜레마
 - 모여서 함께 결정합시다: 수업 연구할 시간 부족해요.
 - 결정해서 알려드려요: 비민주적이다. 묻지도 않고 결정한다.
 - 메시지로 물어보면: 언제 왔지? 못 봤는데...

5. 애증의 업무전담팀

-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 잘 해야 하는 것인가? 줄이고 없애야 하는 것인가?
- 이러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 나에게 이런 능력이?
- 담임하는 업무부장도 있는데...
- 업무스타일인 사람은 업무하고...
- 그래도 담임보다는 낫잖아?

6. 행복학교 회의는 왜 다모임이야?

- 침묵의 첫 다모임
- 회의로 끝나버리는 결정
- 다수결로 빨리빨리?
- 방법을 바꾸자
- 진행은 번갈아 가며



7. 전학공이 뭐예요?

- 학년별 전학공
- 주제별 전학공
- 애매해져 버렸다?



8. 와글와글 학생 자치

- 학생자율동아리
 - 학생다모임 이게 가능해?
 - 학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 학생회가 만드는 학교행사
 - 물총놀이
 - 담력훈련
 - 보물찾기
- 등등



9. 문턱 낮은 학교

- 월1회 학부모 다모임
- 학부모 동아리
 - 짜요, 그림, 판판
- 학부모 봉사동아리
 - 놀천사, 책천사
-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울마당



10. 충무공 행복학교 지속 할 것인가?

- “이미 현판에 못 박았습니다.”
- “내신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학교
- 행복학교와 행복한 학교 사이

11. 함께 만든 학교 비전

- 학교교육에 대한 철학공유
 - 랜덤워드
 - 씨앗카드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가치
- 가치를 모아모아



12. 교육공동체 원탁토론

- 동그란 탁자에 모여 앉으니 원탁토론
- 퍼실리테이터?
-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성장한다.



13. 그리고 다시 업무분장

- 담임업무배정 원칙
 - 첫째, 희망은 공개적으로, 1희망만 받아서 합의될 때까지 조율한다.
 - 둘째, 우선순위
 - 1) 이전 학년도 기피 학년(희망 비율이 가장 낮은 학년)
 - 2) 학년곤란도(1,5,6/2,3,4)
 - 3) 이전 학년도 부장
 - 4) 만55세 이상, 교육경력 2년 이내
 - 5) 학년부장 희망
 - 6) 통합학급 담임 희망
 - 셋째, 최초 1희망 시 기피학년에 전담시수 배려(스강, 문화예술강사, 원어민)
 - 넷째, 업무전담팀은 경합 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전 해 부장, 행복학교 관련 연수시간 고려한다.
 - 여섯째, 부장 경합 시 부장경험 없는 사람 우선. 이전 연도 담임 학년 우선.
 - 일곱째, 부장 희망자 없을 시 공석으로 둔다.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김민주

(갈전초등학교 교사)

1. 여는 말

갈전초등학교는 2014년 13학급으로 개교, 2019년 현재 44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2016년 행복학교로 지정되며 자발적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 행복학교의 철학을 실현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행복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히 커지는 학교 규모만큼 행복학교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복학교 철학의 이해, 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금부터 4년간 함께 성장해 온 갈전초등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소개하려 한다.

2.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가. 책과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음동아리]

이음동아리는 대규모 행복학교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년·업무 부장, 즉 중간리더십의 성장을 목표로 2017년 시작된 책 나눔 형태의 독서동아리다. (당시에는 섬김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고, 2019년 이음동아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1회 월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운영되는 이음동아리는 퇴근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마치는 시간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구성원들 스스로 이음동아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부터 그 불만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니 말이다.

사실 갈전초등학교 부장교사의 오후 일과는 상당히 빠듯하다. 월요일-이음동아리, 화요일-학년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요일-교직원 자율동아리, 목요일-디딤돌회의(업무부장 필참, 학년 1명 참석), 금요일은 꼭 필요한 연수나 업무전달이 종종 이루어진다. 이런 빡빡한 일정에도

2017년은 혁신교육과 관련한 책을 선정하여 혁신교육의 철학과 사례를 바탕으로 2016년 갈 전초등학교의 운영을 돌아보는 것에 집중했다. 이음동아리 구성원들 간에는 철학의 공유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한 2018년은 부장교사의 리더십 성장을 위한 책을 선정하였다. 행복학교 4년차인 2019년은 그 동안을 돌아보고 행복학교 운영에서 잘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구분 지어보고 혁신교육, 학생 자치활동, 수업과 관련한 책 중에서 나눔 책을 선정하였다. 그렇게 정해진 책이 자치활동에 집중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생각을 반영한 「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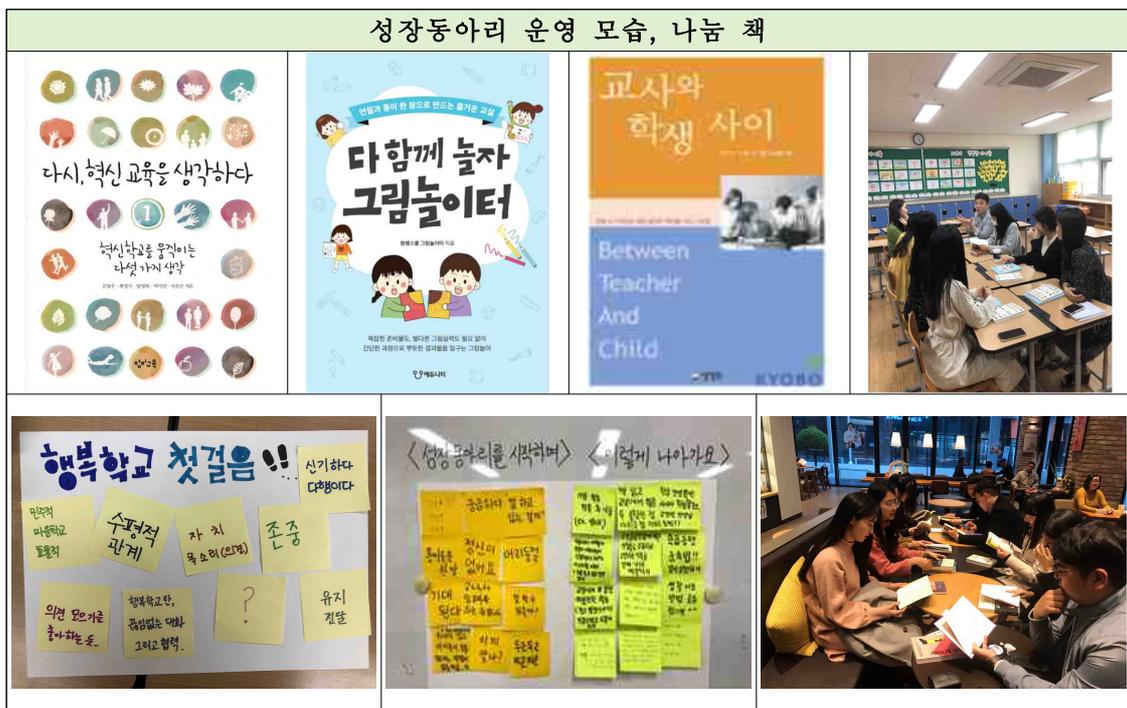
이음동아리 운영에는 구성원간의 약속이 있다. 이 시간을 업무관련 회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관리자와 부장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간단한 전달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우선으로 하는 것은 늘 책 나눔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이음동아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음동아리 나눔 책			
<p>혁신학교 최초 기획자의 행복한 교육 멘토링 혁신학교, 행복한 배움을 꿈꾸다 교육전문가 추천 도서</p>	<p>교실 속 자존감 SELF-ESTEEM IN THE CLASSROOM 교재명 1차 교사의 실천이 학생을 살린다 허버트데 조세핀 '인' 교수의 교사를 위한 자존감 교형</p>	<p>새로운 교육생태계를 위한 제안 유령에게 말 걸기 김영호 지음</p>	<p>행복한 혁신학교 만들기</p>
<p>새로운 리더십을 위한 지혜의 심리학 이걸지 말고 따르게 하라 tvN 프리미엄 특강쇼 이따다리는 김경일 교수의 책!</p>	<p>켄 로빈슨 엘리먼트 타노만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p>	<p>가장 민주적인, 가장 교육적인 가장치는 민주주의를 넘어</p>	<p>두려움 없는 조직 The Fearless Organization 심리학 박사인 에릭슨의 학습, 혁신, 성장을 일으키는 법</p>

[성장동아리]

성장동아리는 저경력 교사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학습 공동체다. 저경력 교사들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회가 마땅치 않은 점을 반영해 성장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성장동아리는 행복학교 철학의 공유를 우선으로 하되 그들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한다. 그렇게 나눔 책으로 「다시, 혁신교육을 생각하다 1」와 학급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다함께 놀자 그림 놀이터」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2학기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고 「교사와 학생 사이」를 선정했다.

2019년 성장동아리는 갈전초등학교에 처음 발령받은 5년차 교사가 운영을 담당하였다. 사실 운영 과정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 2018년 운영했던대로 부장교사가 함께 참여해 활동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경력의 교사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자리로 꾸려보겠다는 의지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저경력 교사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성장동아리는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선배 교사에게 문기에 조금 부끄럽거나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야기 하고 나누며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 다수가 함께 고민하는 집단 지성이 발휘되니 혼자서는 찾지 못한 해결 방법을 얻기도 하고, 비록 해결 방법을 얻지 못하더라도 함

께 고민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형성되고 동료애가 생겨 학교가 단순히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닌 심리적인 안정감이 드는 공간이 되었다는 후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성장동아리 역시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 한 사람이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소도 호스트의 교실을 이용해 교실나들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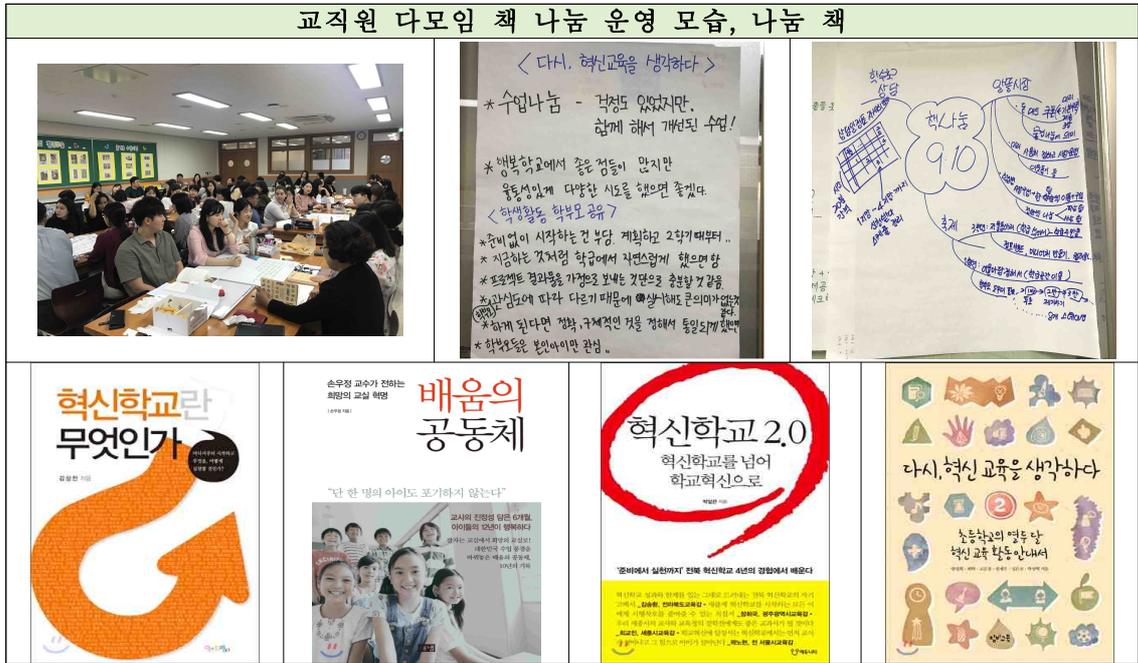
한 해 동안 운영을 담당한 교사는 성장동아리 시간이 좀 더 유의미한 배움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행복학교, 그리고 성장동아리를 처음 경험하는 구성원이 부담없이 참여하는 데에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순수한 학습 공동체의 의미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아쉬움이 내년 성장동아리 운영에 숙제로 남아 저경력교사들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1시간,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담없이 뺄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다. 하지만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쌓여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교직원 다모임 책 나눔]

갈전초등학교에는 행복학교 운영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이음동아리, 저경력 교사들의 혁신교육 철학 이해, 학급 경영 사례 공유를 위한 성장동아리와 함께 전교직원이 행복학교 철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교직원 다모임 책 나눔이 있다.

2016년 행복학교 1년차 교직원 다모임은 학년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구성원이 함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2017년 월 1회 교직원 다모임 시간을 활용한 책 나눔을 진행했다. 사실 책을 나눠주고 읽기를 권한 것은 2015학년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하면서 부터였지만 전 교직원이 모두 모여 읽은 내용을 나누고 고민한 것은 2017년에 시작되었다. 전교직원이 모이는 다모임 시간은 정해진 안건을 협의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당시 행복학교 운영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철학의 공유였기에 모두가 모이는 교직원 다모임 시간을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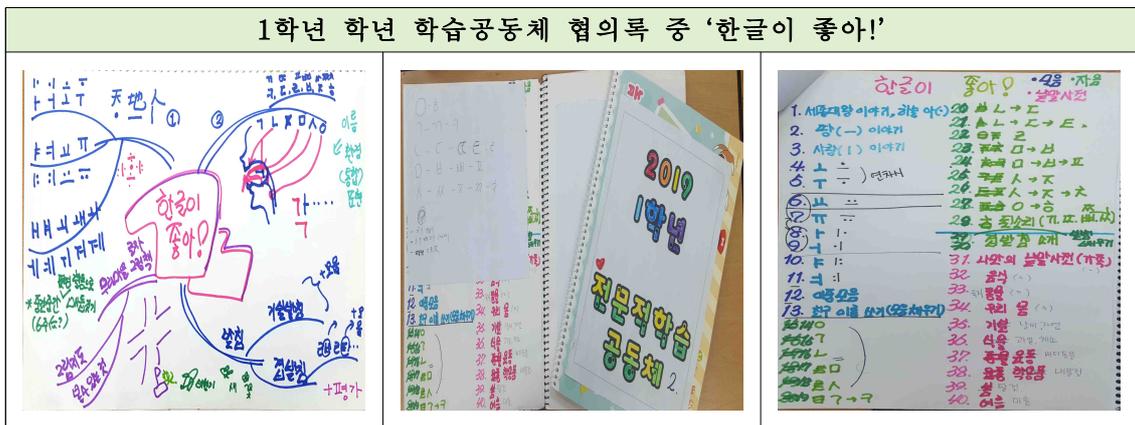
책 나눔은 말로 하는 설득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는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다. 아직 책 나눔을 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각자의 태도와 생각에 따라 받아들이는 속도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철학이 공유되고 스며들고 변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나. 동학년과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44학급, 104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갈전초등학교에서 전학년의 일괄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주제중심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스몰스쿨을 통해 학년의 자율성 보장하고 특색 있는 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년 교육과정은 매주 화요일 오후 동학년과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에서 만들어진다.

학년별 학습 공동체는 2월부터 시작된다. 2월 새학년맞이 워크숍에서 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운다.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3월 첫 주 새학기맞이 프로젝트 기획에 집중한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매주 화요일 학년별 학습 공동체 시간을 이용해 앞으로 진행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과와 단원을 재배치하고 성취기준에 맞는 내용을 구상하며 학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된다.

학년별 학습 공동체는 사실 갈전초등학교 학년 교육과정 운영의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해 동안 운영한 것을 기록한 학년 교육과정 협의록은 그 학년의 역사가 되고 보물이 되었다. 어떤 학년에는 단언컨대 한 주도 빼먹은 적이 없으며, 퇴근 시간인 네 시 사십분에 마무리를 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실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하고 수정·보완하다 보면 퇴근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이 다반사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갈전초등학교 학년별 학습 공동체는 행복학교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처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시작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학년별 학습 공동체가 갈전초등학교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활동이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느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단순히 운영하는 위치가 아닌 교육과정을 직접 만들어가는 위치로 변하며 스스로 느끼는 교사의 성장이 학년별 학습 공동체의 자발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맺음말

다가오는 2020년에는 갈전초등학교에서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를 함께 지내 온 교사 대부분이 다른 학교로 이동한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에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행복학교 4년을 운영하며 갈전초등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함께 성장했다. 그리고 계

속 될 것이다. 3월이면 책을 내밀고 함께 읽자 권할 것이다. 화요일이면 교실은 잠시 두고 동학년 연구실로 모이자 할 것이다.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야 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이 함께 한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집중한 4년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갈전초등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계속 될 것이다.

행복학교의 가장 큰 특권은 교사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이다.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지치게 되지 않을까.

(e-mail: q1213q2000@gmail.com)



직무연수 초등 2반

행복학교 ‘문화’로 다가가기

손 명 기

(마암초등학교 교사)

1. 문화의 일반적 견해

가. 문화의 정의

서구에서 정의한 문화인 ‘culture’는 라틴어 ‘colore’라는 경작, 재배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어원에 비추어볼 때 문화는 자연적 상태의 그 무엇에 인간의 힘을 불어넣어 변화나 전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화는 다양한 형태의 담론 속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나. 문화의 종류

문화는 교양, 진보, 예술, 생활양식 등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양으로서의 문화는 ‘인간의 사유와 표현의 뛰어난 정수’라는 의미로 정의되는 서구 문학비평을 출발로 삼는다. 문학, 미술, 음악 등 정신적 완성을 추구하며 수준 높은 교양을 갈망하는 사람인 문화인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수준위 변별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로 인해 교양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엘리트층이 산업사회의 도전을 받았을 때,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라는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정치, 경제적 영역과 단절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보로서의 문화는 서구 사회가 그들 이외의 세상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서구중심주의 또는 자민족중심주의 등에 기반하여 서구 자신들의 문화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술로서의 문화는 문화를 물질적 생산이나 분배와 관련된 사회관계와 분리된 것으로 사고하는 관념으로 교양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수준의 의미가 아닌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함으로 만들어진 정의이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정의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상징체계를 통해 소통하고 사고하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등 생활양식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세워진 개념이다. 이 때 문화를 집단의 대표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집단 사이의 문화는 위계가 아닌 차이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진보로서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개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 문화의 기능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회의 재생산이다. 사회의 질서, 규범, 가치를 따르게 하는 것으로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닌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문화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자연화(naturalization)라고 한다. 자연화는 역사 속에서 거부와 강제가 균형 또는 균열을 일으키며 문화는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포함한다.

라. 문화의 과정 - 변동

문화의 자연화가 내부적인 속성이라면 문화의 변동은 외부적인 속성으로서 이질적 문화(또는 집단)과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로 변하는 것으로, 이를 문화 접변(acculturation)이라고 하며, 그렇게 형성된 문화변동을 혼종 문화(hybrid culture)라고 한다.

문화접변은 문화간 상호교류를 통하기도 하지만 침략과 약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국주의가 그 한 예이다. 하지만 이때 문화 변동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적 지체(cultural lag)가 일어나며 사회적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2. 행복학교의 특성

가. 지원체제

혁신학교에 속하는 행복학교는 일련의 지원체제와 상호관계성을 가진다. 지원체제는 외부와 내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부적 요인은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지원, 행복학교를 지지하는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미래에 대한 확신, 전문연구자 집단 및 교육단체 등에 의한 지원이다. 외부적 요인은 행복학교에 다양한 방향 설정을 비롯해 이론과 철학적 바탕, 각종 전략을 제공하며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부적 요인은 학교 내 관리자의 리더십, 교사 집단의 열정, 학생에 대한 기대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높은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부 조직의 의사소통방식, 의사결정 방식의 질

적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어 행복학교 성공의 직접적 관련성을 지닌다.

나. 지속가능성

행복학교의 가장 큰 고민이자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교육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생산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 인적·물적 지원의 중단으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성공의 결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행복학교는 성공이라는 결과의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또는 준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추진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교육정책으로부터 차별화된다.

2기에 이르는 행복학교 정책 추진 중에 일반적인 학교혁신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이 드러나는데 그 요인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잘못된 출발점을 가지거나 특정문제에 대한 잘못된 조치이다. 핵심가치 또는 철학의 이해 부족과 실제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두 번째 요인은 지나친 자신감 또는 자만심을 들 수 있다. 비판적 견해를 비난이나 비하로 받아들이거나 특정 사조나 이론이 옳다고 맹신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는 자칫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혁신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가진다.

반대로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과거의 학교에 대한 철학을 존중하고 개선·발전해나가는 전통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산에 대한 존중으로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실현가능한 성장으로서 학교가 점진적으로 혁신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적 접근은 구성원을 소진하게 하며 문화의 변동에서 다루었듯 지체 또는 부조화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장기적 개선과 단기적 개선의 명확한 구분이다. 이는 단기적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장기적 목표와 핵심가치를 혼동하거나 목표 추진에 있어 그 힘이 분산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를 정교하게 설정하며 이 장기적 목표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연동시킬 수 있도록 단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리더교사

과거 전통적 학교 구조에서의 리더교사는 교무업무,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일컫는 의미가 강했다면 행복학교에서의 리더교사는 학교문화와 관계성을 주도하는 부류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문화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존경 받고 인정받으며 개방된 의사소통 등으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이상적인 행태를 말한다.

리더교사에 의해 교사집단의 응집성이 커지고 집중도가 확대되는 현상은 학교문화가 자율성을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행복학교의 준비단계와 시작점에 있어서 리더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목표설정 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은 리더교사의 양성이다. 리더교사는 단기적 목표의 관점에서는 꼭짓점 역할을 부여 받겠지만 단기적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을 때 리더교사가 다수가 되는, 다원적 관점에서 그 누구나 입안자와 조정자가 될 수 있도록 다수의 리더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문화와 행복학교

문화의 다양한 종류를 보며 우리가 떠올리는 행복학교의 문화는 무엇이었을까? 시작과 과정, 끝이 각각 다른 종류였을까? 여러 종류가 혼재된 모습이었을까?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로 설정해야 할까?

문화의 기능과 그 과정을 충실히 받아들이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 답을 찾는 과정이 행복학교의 문화가 아닐까?

참고문헌

- 『새로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원용진, 한나래, 2011)
- 『대중문화의 이해』 (김창남, 한울, 2010)
-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정수복, 생각의 나무, 2007)
- 『문화이론사전』 (에드거, 세즈워к 위음, 박명진 외 옮김, 한나래, 2003)
- 『문화의 이해』 (전경수, 일지사, 1994)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5)
- 「교사의 열정: 교사 리더십을 중심으로」 (양성관, 2019. 행복학교포럼자료집, 2019)

손명기(E-mail: ildongan1@naver.com)

업무혁신, 학교혁신의 시작입니다.

신용호

(송진초등학교 교사)

1. 왜 업무혁신을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수업을 잘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왜 이런걸 교사인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내키지 않는 일과 각종 공문과 맡은 업무들을 처리 하느라 항상 시간에 쫓겨왔다. 교육활동도 운동회, 학예회, 현장체험학습 등 왜 하는지 조차 잘 모르는 활동들을 일단 시키니까, 기존에 해왔으니까, 힘들지만 우리도 무작정 했다. 이런 행사들과 업무처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업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 마저도 부족한 시간에 바쁘게 지나가기 일수였다.

이러한 학교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혁신이 필요하다. 업무혁신을 통해 선생님들을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와 정체불명의 전시성, 일회성 행사로부터 해방시켜 아이들 곁으로 돌려 보내줘야 한다. 학교혁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학교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인식에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철학이 아닐까 생각한다.

업무혁신이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잡무들과 비교육적이며 왜 하는지 모르는 전시성, 일회성 행사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업무혁신인 이유이다.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본연의 교육활동과 수업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행정기관이기 이전에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2. 업무혁신의 철학

1기 행복학교가 생긴 이후 많은 학교들이 행복학교의 성공적인 업무혁신 사례를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최근엔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준다며 업무전담팀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아무 효과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누가 업무전담팀을 하려고 하겠느냐?” 등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분명, 업무혁신을 이뤘다는 행복학교의 것처럼 했을 텐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가? 아무런 철학과 원칙도 없이 기계적으로 행복학교의 것만 베껴왔기 때문이다. 철학과 원칙이 없는 업무혁신(업무덜어내기, 업무나누기)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업무혁신 전 반드시 구성원 간에 공유해야 할 철학과 원칙을 알아보자.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학교(송진초등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토의를 통해 공유한 것으로 학교혁신의 한 가지 사례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고는 하되 각 학교 구성원들의 철학과 처한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기 바란다.

가. 관계형성이 먼저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철학공유와 관계형성이다. 관계형성이 없는 업무덜어내기, 업무나누기와 민주적인 문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 관계형성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학교구성원 간의 신뢰형성이다. 구성원간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무엇을 하든 그 학교는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다. 아니면 겉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무엇이든 형식적으로 떼우고 말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업무를 왜 나누는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우리의 목적(교육)을 위해서 나부터 한 발 더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관리자와 앞바퀴 교사(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학교혁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업무도 교육활동도 결국은 생각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관리자와 앞바퀴 교사들이 동료 선생님들을 믿어주고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선생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한 발 더 움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두가 함께 매워 나간다면 조금씩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갈 것이다. 이러한 관계형성의 바탕위에서야 민주적인 학교문화도 업무혁신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도 업무혁신은 이상 속이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업무는 나누는 것이 아니다.

업무를 나누는 목적은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즉,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본연의 교육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제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모든 업무는 교무행정지원팀에서 맡아야 한다. 담임 선생님들은 업무전담팀의 술선수범 덕분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말 그대로 학교의 구성원이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이다. 학교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다. 교장, 교감 선생님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학교현장에서 업무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필자가 공문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2017년도부터 업무다이어트, 학교업무적정화 추진계획을 세워 교육청과 지원청은 물론 일선학교에서의 업무경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부서별 업무폐지 또는 개선방안 마련, 공문생산 건수와 의무 집합연수 줄이기 등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을 가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행사와 보고공문들이 많이 줄어 든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여전히 부서별로 날아오는 공문은 똑같다. 공문생산 건수를 줄이려고 1년 동안 보고해야 될 내용을 하나의 공문에 모두 적어 보내거나 업무메일로 알려주는 등 절대적인 업무의 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봐도 교육부 산하 행정기관인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업무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절차를 간소화 하고 필요 없는 업무를 없애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절대적인 행정업무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마저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이 맡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때 교장, 교감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본연의 교육활동을 하면서 업무 또한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한다. 업무전담팀을 운영 한다고 해도 결국 업무전담팀의 선생님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업과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이 때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조금만 업무를 나누어 주신다면 모든 면에서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해오던 일을 맡아 주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하는 척이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을 믿고 지지해 주셔야 업무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지시와 명령을 일관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들은 지치고 말 것인 반면,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선배교사로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후배교사들을 믿고 맡겨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교사라도 그 교장, 교감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할 것이다. 업무혁신에서 교장, 교감선생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라. 민주적인 문화가 우선이다.

업무혁신 이전에 민주적이 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행복학교의 첫 번째 추진과제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인 것처럼 학교혁신은 민주적인 문화의 바탕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학교문화는 권위와 복종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만연해 왔다. 이런 교직원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는가? 말이 안 된다. 교사들이 먼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경험해야 교실에서 민주적인 학급을 운영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 협의절차에 의해 계획된 교육활동은 말 그대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해야 하는지 등 의문 또한 없을 것이다.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업무혁신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업무분장이라면 아무도 불만 없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지시와 통제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일례로 얼마 전 행복학교네트워크에서 업무경감을 주제로 모인 원탁회의에서 민주적인 업무분장 사례라면서 자기 학교를 소개하는 선생님이 있었다. 그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과 교무부장 등 몇몇 부장선생님께서 업무분장을 다 짜놓고 그 담당자만 비워둔 채 각자 고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보통은 교감선생님 혼자서 다 정해서 주는데 자기 학교는 아주 민주적이라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고른다는 것이다. 내 눈엔 교감이 마음대로 정해 주는 것보다 더 짜증 날 것 같은데 말이다. 결국 일반학교의 업무분장과 다른 것은 담당만 내가 직접 고르는 것 밖에 없지 않은가? 선배 선생님들부터 먼저 쉬운 업무를 고르고 남는 것을 후배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를 것인데 무엇이 민주적이고 무엇이 일반학교와 다르다는 것인가? 결국 이 학교는 애초에 민주적인 회의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업무혁신은 업무 털어내기와 업무나누기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3. 업무 혁신 실천하기

가. 업무 덜어내기

1) 업무 덜어내기의 원칙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관계형성, 그리고 업무혁신에 대한 철학공유 및 원칙에 합의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유한 후에 업무 덜어내기를 시작해야 한다. 업무 덜어내기란 글자 그대로 우리학교에 있는 업무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놔두고 불필요한 업무는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첫 해에는 표가 잘 나지 않는다. 해마다 조금씩 그 해 업무를 되돌아보면서 업무 덜어내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눈의 띄게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업무 덜어내기는 그 해 구성원이 바뀌기 전 12월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그 업무체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그 학교의 업무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업무 덜어내기 방법과 절차

업무를 덜어내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업무를 포스트일에 적어서 전지(또는 4절 도화지 등 큰 종이)에 붙인다. 가능한 빠짐없이 모든 업무를 적어야 한다. 업무 분장표에 없는 것도 실제로 시행한 것은 모두 적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 생각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업무 나누기에서 원칙만 잘 세운다면 큰 문제는 없다.

다음으로 전지에 붙은 업무들을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그리고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분류한다. 업무분류기준은 학교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예: 유지할 것, 없앨 것, 애매한 것, 또는 버릴 것, 줄일 것, 고칠 것, 애매한 것 등)이 때 개별 업무에 대한 분류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불필요하거나 애매한 것은 구성원들과 토의를 통해서 내년에도 남길지 없앨지 또는 개선할지를 결정한다. 이 절차가 끝나고 남은 업무들이 내년에 우리학교 전체업무가 되는 것이다.

나. 업무나누기

1) 새 학년도 주요가치와 교육활동 정하기

업무 나누기에 앞서 2월에 새롭게 맺어진 학교 구성원들과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교육목표는 우리학교 비전 속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목표가 나오면 올 한 해 우리학교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교육활동들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업무 나누기를 한다.

2) 업무 나누기1

다음 학년도 교육활동과 관련한 업무는 물론 행정적인 업무가 모두 정해 졌으면 업무 나누기를 실시하면 된다. 먼저 표1과 같이 4절지 혹은 전지 등 큰 종이에 행복운영팀, 경계선, 행복지원팀으로 나누고 여기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나눠 붙이면 된다. 여기서 행복운영팀은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들이 할 업무를 정하는 것이다. 행복지원팀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정적인 업무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들을 모두 맡는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교육적인 것과 비교육적인 것이 구분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데 경계선에 위치한 업무들을 어떻게 나누냐는 것이다. 반드시 민주적인 토의절차에 의한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따라 경계선상의 업무를 나누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부 (교육활동)	애매한 것(경계선)	교육과정 지원부 (단순행정업무, 교육활동지원업무)
1~6학년 담임, 수학여행, 학생평가, 계절학교 등		학습준비물, 방송기자재, 정보, 돌봄교실, 정보공시, 학적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표1]

3) 업무나누기2

교육과정 운영팀과 교육과정 지원팀의 업무가 나누어지고 나면 교육과정 운영팀(담임교사)은 운영팀대로 지원팀은 지원팀대로 모여서 업무를 나누면 된다.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팀은 학년별 담임과 담당할 교육활동만 정하면 된다. 이 때 교육과정운영팀의 팀장은 행복운영부장(연구부장 겸 행복학교 담당)이 된다. 행복운영부장의 역할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교육과정지원팀은 교감이 팀장이고 전담교사, 교무행정원 2명으로 이루어진다. 우리학교는 6학년이라 전담이 1명 밖에 없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교무행정원 선생님의 참여와 소통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교무행정원 선생님들은 주로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의 업무를 대신 하거나 선생님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지원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선생님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부여받아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따라서 교무행정원 선생님도 반드시 업무나누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들의 동의까지 모두 얻어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확정지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 할 것이다.

다. 교육과정 운영부장과 교육과정지원부장

1) 교육과정 운영부장(행복운영부장)

우리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부장(이하 운영부장)은 교육과정운영팀의 중심으로서 일반학교의 연구부장과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운영부장이 보통 연구부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행복학교운영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맡는다. 왜냐하면 행복학교 추진과제 실천의 핵심이 교육과정 운영과 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행복운영부장은 연구부장과 행복학교 담당을 함께 겸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다. 각 교육활동은 담당 선생님 혼자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부장이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담당 선생님께서 정리하여 계획을 세우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 외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행복학교 추진과제 관련 활동들도 마찬가지로 다.

2) 교육과정 지원부장

교육과정 지원부장은 전담교사로서 담임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역할이다. 즉, 담임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전담교사는 16시간~20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원부장은 매우 힘든 역할이다. 이런 지원부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담임교사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바로 수업시수 조정이다. 지원부장이 업무를 덜어주는 대신에 담임교사들은 지원부장의 수업을 덜어주는 것이다. 비록 담임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은 일부 늘어나겠지만, 업무혁신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수업을 하면서 많은 업무까지 담당하려면 지원부장의 수업시수가 최대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지원부장은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므로 최소 2~3년에 한 번씩은 바뀌어야 한다. 한 마디로 지원부장은 봉사직으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업무혁신이 곧 학교혁신의 시작이다.

서두에 업무혁신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더불어 학교혁신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바탕위에 업무혁신이 있을 수 있고, 업무혁신이 되어야 교사들이 업무에서 해방되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교사들이 수업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어 나갈 여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업무혁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생님들

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수업이 바뀌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직생활의 첫 시작부터 업무에 파묻혀 살아온 교사들이 갑자기 업무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곧바로 수업을 혁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업무가 없어진 교사들이 여유로운 오후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학교혁신이다. 시간을 두고 믿고 맡겨두면 교사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해 갈 것이다.

(e-mail: revivalsyh@naver.com)

행복학교 교육과정 만들기

김민수, 이제호, 주봉준

(동광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동광초등학교 교육과정 역시 위의 교육과정 구성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동광초 뿐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마찬가지이다. 모든 학교 교육과정 속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철학을 가지고 교육목표와 내용이 편성되어 있다. 적어도 나쁜 말이 들어간 교육과정을 본적은 없다.

하지만 그 나름의 의미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교육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내용이 담긴 학교교육과정이 학교구성원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학교교육과정은 그 안에 담긴 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특성 중 하나인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과정'이 앞서 말한 질문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이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해야한다.

2. 동광 교육과정의 의미

동광초등학교 구성원들은 소통과 합의에 의한 학교 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한 행복학교를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학교교육과정은 학교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의 소통과 합의로 이루어져야 마음을 담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며 내용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현재와 내일의 삶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은 학생-교사-학부모의 두터운 신뢰 관계 형성으로 시작한다.

배움과 나눔, 행복의 학교 핵심 가치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며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 교직원 개개인 모두가 자율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솔선수범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한다.

일방적 지시 및 통제에 의한 의사결정 문화를 탈피하여 공공성에 입각한 대화와 협의, 토론을 통한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형성한다. 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조직을 탈피하여 학습 조직화로 구축하고 개별 교사 중심의 연구 풍토에서 서로 묻고 서로 답하는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공동 연구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개방과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이 가능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한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구체화 한다. 문화 예술, 생태 체험, 인권 평화 등 비판적, 반성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과 학생-학생, 학생-교사, 학생-상황 등의 교육을 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과 성장과 배움을 추구하는 교사별 상시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자기 수업 성찰과 수업나누기를 체계화 한다.

동광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참삶을 함께 가꾸는 행복 자람터**로 만들어 나간다.

3. 학교교육과정 편성 과정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편성,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교육공동체 전체 다모임이다. 동광초등학교의 교육공동체 전체 다모임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모두 모여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토론회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을 한 자리에서 서로를 이어준다는 의미로 이음자리라는 명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전체 다모임은 새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교육활동의 방향을 담은 것이므로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가. 교육과정 평가하기

1) 환경 조성하기

학부모가 학교로 들어오기는 여전히 문턱이 높으며, 더군다나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함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시골의 작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심이 적은 학부모가 많고, 가정환경도 여의치 않은 가정들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로 들어오기란 더욱 어렵다. 즉,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 학교도 첫 해부터 교육공동체 다모임이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첫 해의 노력은 학부모를 학교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별빛기행이다. 별빛기행은 학교의 온 가족들이 모두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산책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학교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다. 이 자리를 통해 학교의 문턱은 조금씩 낮아지게 되었고 학부모의 학교의 교육활동 참여도 높아지게 되었다.

2) 교육공동체 전체 다모임(이음자리)

교육공동체 전체 다모임은 사전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토론 주제를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론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당해 교육활동의 우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알아본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들 중에서 중요도와 시급성, 그리고 교육공동체 모두와의 연관성 등을 따져 주제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우리 학교의 토론 주제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도전프로젝트 추진방안, 나눔프로젝트의 추진 방안으로 설정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올 한 해 계속 제기되었던 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대립하는 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관심있는 사항이라 토론의 주제로 매우 적합하였다.

토론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 다모임 한 자리에서 모두 함께 할 수도 있고, 주제별로 모둠을 정할 수도 있으며, 모둠별로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할 수도 있다. 방법은 토론주제와 구성원 수, 토론환경을 고려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3) 교직원 워크숍

교육공동체 전체 다모임에서 논의된 결과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직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전체 다모임에서 결정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숙고하지 못했던 학교의 여건과 다른 교육활동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교육공동체 다모임을 통해 제시된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검토하고 학교의 여건,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대강화하게 된다.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교육 활동 중 교육활동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덜어내는 작업이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교육활동 등을 덜어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활동을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 교육활동을 보다 알차게 꾸려나갈 수도 있다.



교육과정 평가 설문



이음자리 모둠 협의



모둠별 논의 결과 발표

나. 교육과정 편성하기

준비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그려나갔다. 이 후의 과정은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엮어가는 만드는 과정이다. 교육공동체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의 핵심 가치와 비전,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중점 교육과 특색 교육을 만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이다. 학교의 비전은 교육공동체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이자 실천 과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학교의 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다 실천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의 교육목표와 중점 교육들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 중에서도 학교의 특색 교육은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그 학교만의 개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다. 교육과정 공유하기

새 학년도에는 학교의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구성원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1년의 교육활동의 큰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시기가 2월에 있는 새학년 맞이 워크숍이다.

새학년 맞이 워크숍의 목적은 학교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3월부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 지도록 준비하는 데 있다. 특히 작은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전교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교도 학교의 특색 교육이 무학년제로 이루어지고 학생 다모임과 동아리 활동 등 여러 학년이 함께 해야 하는 활동이 많이 있어 학교 교육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업무와 학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업무 분장과 학년 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새학년 맞이 워크숍은 2월 중 2~3일 정도 거치게 되고 학급 교육과정의 큰 틀도 이 시기에 완성하게 된다.

4. 동광초등학교의 중점교육

전 학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중점교육으로 운영한다. 동광초등학교에서는 중점교육을 ‘배움을 실현하는 교육과정’과 ‘소통하며 나누는 배움공동체’로 나누었으며, 각 중점교육에 대한 실천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움을 실현하는 교육과정	소통하며 나누는 배움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연계된 배움중심수업 • 꼼꼼한 기초·기본교육 다지기 • 참삶을 가꾸는 생태환경교육 • 오감 품은 문화예술 감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을 배우는 학생다모임 • 스스로 끼를 펼치는 학생동아리 •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문화 조성 • 소통과 나눔의 마을학교 만들기

가. 중점교육 수립

중점교육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말한다. 사회에서는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무수히 많다. 안전 교육, 성평등 교육, 코딩 교육 등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 모든 교육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교가 모든 교육 내용을 다 강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중점교육을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점교육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가 바로 중점교육을 선정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한다. 즐겁고 흥미로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면 배움중심수업이 중점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 성취수준에 대한 고민을 교사가 하고 있다면 기초기본교육이 중점교육이 되어야 한다.

나. 중점교육 실천 및 평가

중점교육이 선정되면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녹여 넣어야 한다. 온책읽기를 중점교육으로 설정

했으면 각 학급에서 어떤 방법으로 온책읽기를 준비할지,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등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학교 차원에서 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학급에 자율성을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중요하다. 무리한 계획은 부담감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엉성한 계획은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니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학기 또는 한 학년도가 마칠 때 쯤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워크숍을 한다. 이때 중점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학교는 그동안 문화예술 감성교육을 계획한대로 잘 실천하였는지,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을 자극했고 효과가 있었는지,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문화예술 감성교육을 실천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광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새롭게 온책읽기를 중점교육으로 정하여 도서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실천하였다. 온책읽기라는 중점교육에 대해 평가한 결과 온책읽기는 배움중심수업의 일환이므로 배움중심수업이라는 중점교육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 중점교육이 수정되었다. 또한 특색교육로 있던 생태환경교육이 특색교육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여서 중점교육으로 반영하고 내년에는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 활동을 하자고 협의를 하였다.



온책읽기 수업



찾아가는 국악교실



블루베리 텃밭 가꾸기

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

중점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학생다모임과 동아리, 학부모 다모임, 마을학교는 행복학교라면 강조해야 할 부분이다. 더 이상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학교에서 이전에 실시하던 전교어린이회를 **학생다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 동광초등학교에서 학생다모임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된다는 점이었다. 전교어린이회에 비해 학생다모임은 학생의 자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이 즉시 반영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그만큼 학생들의 책임도 부여하고 있었다.

동광초등학교의 학생다모임의 형태는 해마다 변해왔다. 2019학년도에는 학생 이끔장이 다모임을 진행하였으며, 3~6학년이 환경부, 생활부, 도서부, 놀이부, 체육부, 보건부 등 6개 부서를 구성하여 매주 쉬는 시간에 모여 자신이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치활동을 하였다. 다모임 시간에는 부서별로 학교 건의안건과 학생 실천안건을 정하였다. 정해진 안건은 교사 다모임에 건의하여 실천가능한 안건을 정하였으며, 이는 곧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동아리 활동은 1학기에는 나눔 프로젝트에서 나눔 동아리를, 2학기에는 끼 프로젝트에서 끼

동아리를 운영하였다. 나눔 동아리와 끼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로서 학생들이 서로 협의하여 동아리를 구성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다. 하지만 그 성격상 정해진 틀에 얽매일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이음자리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논의 내용이 방과후 수업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이었는데, 교육 공동체의 치열한 논의 끝에 수요일 방과후 시간에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새 학년도에는 창체 동아리와는 다른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 다모임 및 동아리는 활동이 소극적이었다. 동광초등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된 첫해부터 학부모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해왔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피로감을 호소해왔고, 이러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올해는 학부모 활동을 최소화하였다.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 교육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교육 공동체의 요구다. 자발성이 바탕이 되지 않고 참여하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반발만 살 뿐이다. 동광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설문결과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학부모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 정도만으로도 일반 학교보다 훨씬 협조적이고 적극적이기에 교육과정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된다.

2019학년도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역사회와의 연계이다. 학급별로 마을교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을 전개하였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지 못하였다. 내년에는 우선 마을 산책을 통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점차적으로 **마을학교**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학생다모임



이음자리(방과후 수업)



학부모 동아리

5. 동광초등학교의 특색교육

가. 왜 사계절 프로젝트일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아이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마음에도 도전·나눔·동행·끼라는 네 가지 주제를 던져준다. 물론 동광초등학교의 네 가지 프로젝트가 계절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성장에 담고 싶은 네 가지 가치들을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제시하는 것이 동광초의 사계절프로젝트이다. 계절과 시간이 변화만큼 학생들 역시 변화하고 그 변화를 되돌아보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동광초등학교의 사계절프로젝트이자 4학기제이다.

학생들이 배움을 즐겁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학습이 각광을 받고 있다. 즉,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배움을 통해 현재 삶과 앞으로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해야한다고 믿는다.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어 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동아리활동, 야영, 운동회, 수학여행, 학예회 등이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신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배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계절 프로젝트이다.

나. 도전프로젝트(봄)

프로젝트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목적을 설정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도전프로젝트의 첫 번째 활동은 새 학년을 맞이하여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도전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즉, 목표달성여부보다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도전과제(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스스로 반성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는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도전프로젝트이다.

도전프로젝트의 두 번째 활동은 우리고장 산 오르기이다. 무학년제 다모임별로 우리 동네 거류산을 등반한다. 이 활동은 개별 도전과제가 아니라 우리 동광구성원 모두의 도전과제가 되는 활동이다. 누군가에게는 쉽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우리고장 산 오르기 활동에서 고학년은 저학년을 독려하고 저학년은 고학을 의지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도전이 나쁜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다.

도전프로젝트의 세 번째 활동은 학생들이 운동회와 뒤편야영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운동회와 야영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교사가 만들어주는 운동회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운동회와 야영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와 진정한 배움이 있는 활동이 된다.



우리 고장 산 오르기



우리가 만든
동광가족 놀이한마당



학교에서 하룻밤 뒤편야영

다. 나눔프로젝트(여름)

여름기간동안 나눔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나눔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동아리활동에서 얻은 성과물을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과정이 나눔프로젝트이다.

나눔프로젝트는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

아간다. 학생들이 나눔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교사, 학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을 깨닫길 기대하는 프로젝트이다.



나눔 동아리 활동



나눔장터 열기



불우이웃 기부활동

라. 동행프로젝트(가을)

동행프로젝트는 동광사계절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학년별 프로젝트이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고, 새로운 세상을 친구들과 맞잡은 손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프로젝트이다.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주제는 아래와 같다.

학년	교육과정재구성 주제	학년	교육과정재구성 주제
1학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4학년	교류와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2학년	나의 가을 일기	5학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 서울에서 추억을 만들어요.
3학년	경험하고 기록하고	6학년	온작품읽기로 너영나영 구름비에서 놀자

소규모학교에서는 무학년제활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년교육과정운영의 장애물이 된다. 학년별 성취기준과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동광초등학교는 동행프로젝트라는 학년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 전주 문화교류(4학년)



서울 역사 탐방(5학년)



온책읽기로 제주 탐방(6학년)

마. 끼프로젝트(겨울)

2월에는 아이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저마다의 ‘끼’를 아낌없이 선보일 ‘끼’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 2학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끼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 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자신의 특기를 키우고 서로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다. 2월에 끼 동아리

발표회가 열리면 무대를 꾸미고 노래와 춤, 연극, 악기 연주 등을 선보인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화려하게 잘 차려진 무대가 아니라 소박하고 서툴지만 아이들이 직접 차려낸 무대이기에 더욱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끼 동아리 활동



동아리 발표회



축제가 있는 졸업식

6. 맺음말

학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학교는 정해진 크기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숨차게 돌아가는 기계의 모습이 아니다. 긍정적 에너지는 전체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고, 생채기가 생기면 함께 아파하며 이겨낸다. 각 부분이 함께 어울려 제 기능을 다할 때 활기차게 살아간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래서 학교구성원들의 힘을 한 데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무리한 변화의 시도는 갈등과 포기를 가져오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합의하는 일들은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감을 가져오고, 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력의 순간들, 그리고 성취의 순간들, 아이들의 성장들을 보는 것들은 구성원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온다. 이러한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그 성과는 어느덧 놀랄 만큼 커져 있는 것이다.

동광초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묻어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형성되어진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한 주인으로서 함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을 체득하고 있다. 변화의 모습은 빠르지 않지만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 스스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김민수 k13182na0@hanmail.net

이제호 ylyi@naver.com

주봉준 bongjoorrr@gmail.com

다시 보는 학년교육과정

박춘화, 박은정

(수곡초등학교 교사)

1. ‘교육과정’ ‘재구성’?

몇 년 사이에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말이 학교현장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혹자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이 짜여진 교육과정을 재배열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의미라서 ‘교육과정 만들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 머리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것과 다르지 않기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려고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주제중심 교과통합, 프로젝트학습, 온작품 읽기, 슬로리딩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런데 한 권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교육과정이 무엇이고 재구성이 무엇인지, 학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재구성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로 넘기고 말았는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교육과정’과 ‘재구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 ‘교육과정’과 ‘재구성’이 뭐길래?

교육과정은 무엇일까? 교육과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학기 초에 만들어 내는 단순한 문서’나 ‘교과서’가 가장 먼저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이야기 나누어 본 경험도 부족하고 그럴만한 여유도 없이 진도와 학교 행사, 수많은 잡무에 쫓기어 살아왔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교과서에는 국가가 인정한 정보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동안 교과서를 잘 가르치려고 무던히도 애써왔다. 그런 교과서를 이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재구성 하라고 하는 것일까?

교육기본법 제 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은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인간상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각 과목의 목표가 정해진다. 결국 교육과정은 한 인간이 민주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과정을 학교급별로, 교과별로 정한 항목들의 집합체로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인간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배움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자료가 교과서이고,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교사인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도달하는 데에 있어 국가가 ‘그 정도면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괜찮다’고 인정을 한 자료이자 전국의 학교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이므로 교사나 학생에게 맞춤형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한 아이가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교양이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고 다양한 자료와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사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왜 해야 할까?

첫째, 교과서 때문이다. 앞에서 교과서는 학교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고 만든 표준화된 자료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 수준과 특성이 다르지만 교과서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 그리고 교과서가 표준을 따르다 보니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교사나 학생 주변의 생생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버려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기가 힘들다. 또한 교과서가 아무리 최신의 정보를 담는다고 해도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과거의 일일 뿐이다. 더군다나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교과서가 그 속도를 더욱 따라가기 힘들어졌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과서에서 단원별로 늘어놓은 교육과정을 다시 자신과 학생들의 배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교과서 단원을 재배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내용과 학습 자료를 선택하고 수준을 조절하는 등 교과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과정을 요구한다.

둘째, 역량을 기르기 위함이다. 교사가 알려주는 지식을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해 21세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능력을 꼽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꼽았고 이를 위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길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들은 교과서 한권으로, 한 분야나 한 영역으로 하루 아침에 딱딱 만들어지기 힘든 것들이다. 매 수업 시간을 통해, 그 시간의 성취 기준 달성이 쌓이고 쌓여 길러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과가 도덕교과이다. 도덕교과에서는 하나의 가치를 익히고 내면화하는 데까지 4차시를 배정하였다. 내용을 떠나 배정된 차시만 보더라도 교과서 내용을 익히는 것이 도덕 교과의 목표라면 문제가 없지만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도덕교과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교과는 우리 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가치를 품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역량이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것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다.

셋째,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교과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정을 여러 차례 개정을 하면서 성취기준과 내용을 줄였다고는 하나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우리 교육현장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전교육, 환경 문제가 생기면 환경교육을 위한 시수를 확보하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이 생기면 계기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교과

의 내용을 다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늘어나는 범교과와 계기교육까지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진도’를 나가느라 학생과 소통하고 질문 하나 받아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교과 안과 교과 간에 중복이 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다면 주제중심으로 모아서 가르치거나, 계기교육과 학교행사를 교육과정 안으로 가져오는 등의 교육과정 재구성성이 필요하다.

2. 학년교육과정 만들기

가. 교육과정 철학 나누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에 앞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아이들로 기르고 싶은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신의 교육 철학이 구체화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1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등대가 되어 줄 것이다.

< 내 교육철학 세우기 >

1.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2. 어떤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가?(가르치고 싶은 가치나 역량)
3. 학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구분	일반적인 특성	우리 반의 특성
몸		
마음		
지적		
생활		

4. 내가 하고 싶은 활동

나. 학년교육과정 구성하기

나의 교육철학이 세워졌다면 학년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이해를 위해 성취기준을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취기준 만으로 가르칠 내용 선정이 어려울 경우 맵핑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성취기준에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활동과 평가 내용,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모든 교과목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 가르칠 내용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이 어렵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엮지 않아도 된다. 하나의 교과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교과를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내용과 방법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교사의 안목이다.

둘째,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재구성과 관련된 책이나 사례를 접하다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별한 것을 쫓다보면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맞추게 되어 재구성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재구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어 교육과정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다.

다음은 교과와 계기교육을 통합한 6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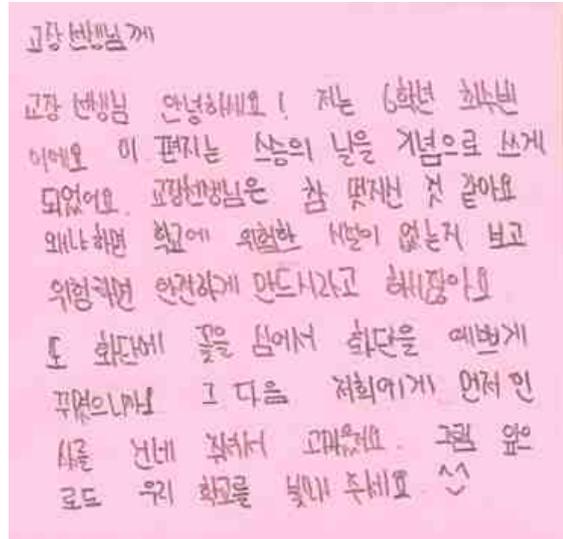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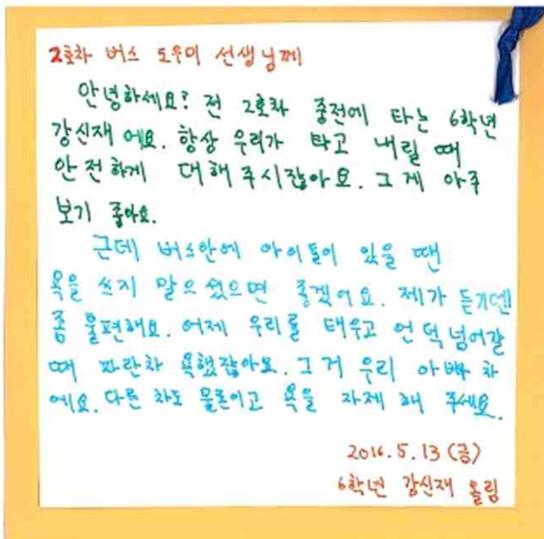
<재구성 계획>

활동 내용	교과	핵심성취기준
학생을 위해 애쓰시는 분 면담 *국어4단원에서 면담의 절차와 주의사항, 방법 학습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을 면담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보람을 느끼는지, 어떤 경우에 힘든지 조사하기 감사카드 만들기 *국어3단원에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 배우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적어 전달하기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인상 깊은 점 등을 들어 소감 나누기	국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미	면담 목적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도	평면, 입체, 영상 등 다양한 표현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필요성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일관된 태도를 지닐 수 있다.

학생들은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선생님께 편지쓰기를 하고 있다. 진심 없이 습관처럼 매년 똑같은 내용을 담아 쓰다 보니 쓰는 아이들도 받아보는 선생님들도 민망할 때가 있다. 학교에는 학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교직원이나 반이

없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스승의 날에 소외가 되어 왔다. 마음을 담아 글을 써서 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남몰래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봉사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담아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면담활동을 생각했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카드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다. 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고 행복해 하시며 다음 날에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주기도 하셨다. 특별한 결과물도 없고 체험학습도 없지만 학생들에게는 유의미한 경험이 되었고 교사가 재구성을 해야하는 이유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활동 결과 및 평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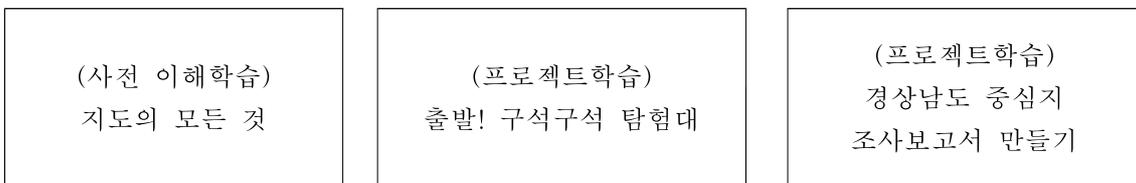
다음은 4학년 1학기 사회과 재구성 사례이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취기준을 보고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4학년 1학기 사회과 1단원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다른 과목과 통합하기에는 사회교과의 성격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서 통합하기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1단원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른 사회과 개념을 충실히 익힐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은 후, 사회교과서 1단원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분석해 보았다. 두 가지의 성취기준 중에 첫 번째 성취기준은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

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인데, 교과서 학습만으로는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두 번째 성취기준은 ‘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행정, 교통, 상업, 산업, 관광 등)를 조사하고, 각 중심지의 위치, 기능, 경관의 특성을 탐색한다.’인데, 교과서에는 중심지의 의미를 먼저 배운 뒤에 다양한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성취기준을 달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 성취기준을 보다 유의미하게 달성하려면 중심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취기준과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지도의 기본 요소를 배우고 직접 목적지를 찾아가 보는 경험이 필요하고, 중심지가 무엇인지 관찰하여 중심지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귀납적 접근이 아이들의 사회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였다.

- 관련교과 및 단원 : 사회 1단원
- 적용학년 : 4학년 1학기
- 수업차시 : 15차시

< ‘구석구석 탐험대’ 프로젝트 수업의 흐름 >



< ‘구석구석 탐험대’ 프로젝트 세부 활동 계획 >

교과	수업주제	활동 내용	시수	성취기준
사회	지도의 모든 것	<사전이해학습-지도 구성요소 배우기> -수곡면과 평거동 지도를 살펴보고 지도의 기본요소(방위표, 기호, 범례, 축척)의 의미 추측하기 -지도의 기본요소의 의미를 정리하기 -땅의 높낮이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기 -기본요소를 활용해서 친구 집 찾기 -축척을 활용하여 친구 집 사이의 거리 알아보기	4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p>출발! 구석구석 탐험대</p>	<p><지도의 활용 및 중심지의 특징 찾기> -종이 지도를 보고 여러 목적지의 경로를 정해서 구석구석 탐험하기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곡면과 비교해서 ‘많아요’와 ‘있어요’를 조사하며 중심지의 특징 조사하기 -어떤 목적으로 목적지 주변에 왔는지 목적지 주변을 오가는 사람 면담하기 -모둠별로 지도를 보고 점심식사 장소 찾아가기 (체험학습-학부모 도우미 요청)</p>	6	<p>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행정, 교통, 상업, 산업, 관광 등)를 조사하고, 각 중심지의 위치, 기능, 경관의 특성을 탐색한다.</p>
	<p>중심지 조사 보고서 만들기</p>	<p>-중심지의 특징 정리하기 -중심지에 가면 ~가 있고 게임 -중심지의 이름과 의미를 스스로 정해보기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행정, 교통, 상업, 산업, 관광 등)를 찾아 경상남도 중심지 조사 보고서 만들기</p>	5	

(gash21@hanmail.net)

벌써 1년, 반짝반짝 빛나는 동행의 행복학교 첫 해 이야기

양 진 호

(반동초등학교 교사)

1. 행복학교, 그 도전의 시작

벌써 1년이 지났다. 행복학교 선정 공문을 보고 함께 기뻐했던 것도 잠시, 행복학교 첫 해로서의 2019학년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보냈던 작년 겨울방학이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훌쩍 1년이 지나버렸다니.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 ‘도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반짝반짝 빛났던 우리 학교만의 행복학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도전했던 1년간의 행복학교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우리 학교 구성원 대부분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행복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쏟아지는 행복학교에 대한 공문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계속 줄어드는 학생 수, 죽어가는 학교를 살려보고자 학교 교직원들의 뜻을 모았다. 2018년 12월, 행복학교로 선정된 이후 행복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짤 것인지,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분장,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년 차 행복학교인 OO초등학교에 다녀왔다. 당시 업무담당자 선생님과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딱 하나.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와 행복학교 리더쉽 연수, 행복학교 전문과정 연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복학교 컨설팅에서 이야기 듣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올 한해 목표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다지기,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배움중심수업 운영으로 잡고 그것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2.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기반 다지기

행복학교의 첫 번째 과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다. ‘민주적’. 우리가 쉽게 쓰면서도 정말 어려운 이 철학적인 단어를 한 문장으로 개념화 짓기가 어렵다. 하지만 내가 몸소 느낀 ‘민주

적인 학교 문화의 시작'은 내가 무언가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반영된다고 느낄 때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된다. 학교 교직원 사이에서의 민주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작은 바로 교직원 다모임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주 월요일 4시, 스쿨버스 운전 주무관님, 탑승 안전 도우미 분들은 학생들 학교를 위해 학교를 떠나 있는 시간이라 한 번도 다모임(그 때는 명칭도 직원협의회였다)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교사들만 모인 그 자리에서는 우선 교무부장님이 회의 개시를 알리면 계원들이 이번 주에 할 행사, 업무들을 전달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순으로 지켜야 할 것, 안내할 것들에 대해 지시·전달 등으로 회의를 끝마쳤다. 올해 우리 학교의 교직원 다모임은 완전히 탈바꿈 하였다. 우선 교직원 전체가 모여 교직원 다모임 규칙을 제정했다. 시간은 27명 학교 교직원이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오후 3시로 정했으며 아무리 회의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오후 4시 안에는 꼭 마치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업무전달은 하지 않는다. 필요한 업무 전달은 업무 메신저로만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멘트를 하셨던 교장선생님의 갈무리 말도 빠졌다. 의견을 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1인 1표를 행사하며 다수결로 정했다. 3월에는 매주 전체 교직원이 모이는 다모임을 실시했었는데, 횟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교직원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중요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협의를 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텃밭 가꾸기였다. 텃밭은 재작년부터 우리 학교의 남는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을 해왔다. 주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을 했었는데, 텃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보니 많은 실패들이 있었다. 우리 학교의 탑승 안전도우미 분들이 텃밭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을 올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어느 시기에 무엇을 심는 것이 좋은지, 어떤 그림을 해야 하는지, 수확은 언제 하는 지 등등 이런 내용들로 함께 모여 교직원 다모임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분들께서 도맡아 텃밭을 관리해주시면서 올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지난 3년 간 반동에서 근무하면서 그 분들과 이야기 나눈 횟수보다 올해 교직원 다모임 시간에 이야기 나눈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모임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웃으면서 일상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같은 주제로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그 의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우리 학교도 민주적인 학교 문화의 초석이 다져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3.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올 한해의 가장 중점 목표 중 하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었다. 담임교사가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실질적인 업무 전담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천해 보기로 했다. 우선 업무분장표를 펼쳐 놓고 학생 교육과 관련된 일과 관련 없는 일을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교감, 교사 1명, 교무행정실무원 2명이 업무전담팀으로 구성하여 학생 교육과 관련 없는 대부분의 공문을 처리하기로 했다. 담임교사는 학생 교육과 관련한 꼭 필요한 공문만 처리하도록 하여 공문 처리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 특색교육활동인 계절학교(봄, 여름, 가을, 겨울) 운영을 한 명씩 담당하며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업무 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 전담팀에 들어가 있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사의 수업 시수는 9시간으로 줄여 주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이나마 확보해 주었다. 처음에는 업무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작년 업무를 맡았던 선생님들의 도움이 조금씩 필요했다.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안착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담임교사들은 교실에 들어오면 업무포털을 거의 들어가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 오롯이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학년 말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실질적인 업무 전담팀의 운영으로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교육과정 중심의 업무 분장, 업무 전담팀 간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학교의 운영이 업무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학생 교육과 관련 없는 단순 학교 업무는 매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업무들을 매뉴얼화 하여 누가 맡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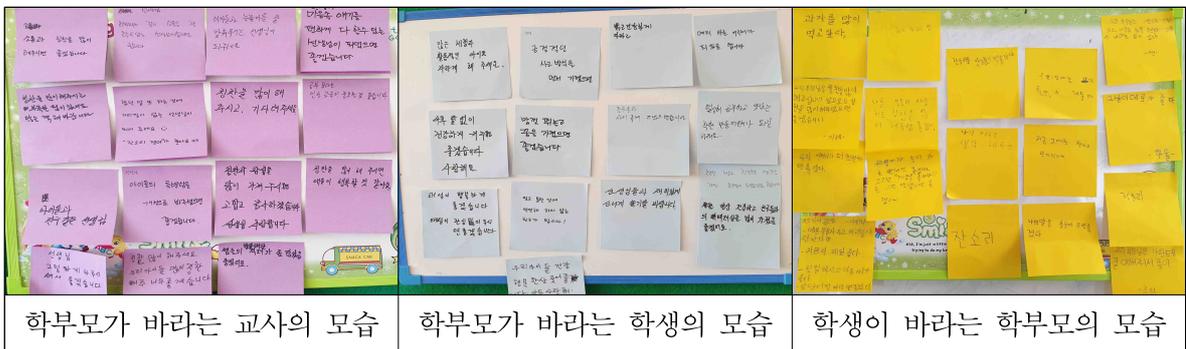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해 우리 학교의 비전은 ‘반짝반짝 빛나는 동행, 꿈과 사랑을 담아가는 반이동이의 행복학교’이다. 이 비전은 연구부장이 혼자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작년 교육과정 워크숍 때 전 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 낸 것이었다. 학교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 철학 나눔부터 시작하여 우리 학교는 어떤 지향점을 가질 것인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자라면 좋을지에 대한 학교 비전, 교육 목표 설정을 함께 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공유와 공감의 자연스런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토대로 학급 교육과정의 목표를 세워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연스

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4.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의 3주체 중 학부모는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는 ‘멀고도 가까운 존재’이다. 교사-학생-학부모의 사이에서 ‘을’ 같던 학부모가 어느 순간 ‘갑’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관계. 이런 관계들로 피로가 누적된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조직하고도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고 아예 없애기도 하는 학교도 생기고 있다. 행복학교를 시작하기 전,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우리 학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고자 학교 구성원들과 치열하게 이야기 나누고 나름의 실천을 통해 1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조금씩 변화의 과정이 눈에 보이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학교만의 도전의 시작을 풀어내 보려고 한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첫 단계는 3월에 실시하는 교육과정 나눔의 날이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과정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올 한해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연구부장이 일방적으로 설명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다. 올해는 ‘교육과정 나눔의 날’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았다. 5학급의 소규모 학급이다 보니 참여하는 학부모님도 15명 내외로 그리 많지 않아 장소부터 학교 행사 시 항상 활용했던 넓은 급식소에서 벗어나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사 연구실로 정했다. 이 날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교육공동체 약속 정하기’ 였다. 교사-학생-학부모 교육 3주체가 1년 동안의 배움공동체 안에서 지킬 약속을 함께 정했었는데, 내가 지킬 약속을 써 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어보았다. 가령, 교사는 내가 바라는 학생, 학부모의 상을 적어보았고 학부모는 내가 바라는 학생, 교사의 상을 적어보았다.



교육 3주체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모습을 적은 의견을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배움공동체 약속을 정하고 1년 간 함께 지키기로 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본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 반동 배움공동체의 약속

★ 이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1.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즐거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2.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3.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며 학부모와 소통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 이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1.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2.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3. 건강하고 씩씩하게 뛰어놀며 꿈을 가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 이런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1.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2.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격려해주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원하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3.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소통하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관계 형성 이후, 학부모 다모임의 정례화를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교 인근 식당에서 학부모님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연수와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연수 주제를 알려주면 학교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체험은 학부모님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부모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학부모 다모임의 발달 단계로 보면 우리 학교는 이제 막 기지개를 피는 태동기 단계이다.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학교 행사를 진행하거나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관계,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가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를 위한 도전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며칠 전, 우리 학교 학부모 다모임 회장님께서 학부모들이 주최하여 학생 아침 맞이 캠페인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해주셨다. 다른 행복학교에서 보았을 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의 환경에서는 학교의 권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내주신 것이 처음이라 너무 감사하고 또 뿌듯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학부모회가 주체가 학교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배움과도 연결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5. 맺음말

5학급의 학생 수 29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학교 문화 혁신에 대한 철학을 교육공동체가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우리 학교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 뿐 아니라 학교 혁신의 의지를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하나씩 실천한다면 모든 학교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복학교 첫해를 시작하는 모든 학교를 응원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darhor@hanmail.net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이해와 실습

서영현

(남명초등학교 교사)

1. 전문적학습공동체, 왜 하나요?

가. 교실에 나 혼자 산다

수업을 마치면 대개 교사는 교실에서 혼자 지낸다. 교사의 ‘혼자 라이프’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교실 밖에 나갈 일이란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일이거나 회의일 것이다. 모두 다 끝내고 다시 교실로 오면 혼자 일하거나 혼자 수업을 연구한다. 퇴근 시간 전 수업 연구에 몰입할 시간이 있다면 다행이다.

혼자 수업 연구를 하다보면 배움 문제에 알맞은 과정과 내용을 잘 풀어나갈 때가 있는 반면, 학생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학생에게 필요하고 유의미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계획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럴 때 교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업무를 하다가 막히면 교실 밖으로 나가 물어볼 사람은 많다. 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업무나 문제는 회의나 다모임을 하면서 집단지성으로 풀어나간다. 수업을 계획하다가 막히면 교실 밖으로 나가 “선생님, 이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사람이 있는가?

나. 누구와 함께 고민하고 있나요?

수업이 고민되고 수업을 더 잘하고 싶은 교사는 몇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창에서 인디스쿨이나 티셀과 등의 사이트를 열거나 교과서 활동 자료가 담긴 CD나 USB를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자료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 최대한 가까운 자료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만든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 반 학생에게 맞지 않아 많이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방법은 각종 연수 및 연구대회 참가, 컨설팅 장학, 동료수업 참관과 수업 협의회 참여, 멘토-멘티 활동이나 수업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자율장학 활동이 있다. 연수 활동을 다녀오면 강의하는 선생님의 수많은 좋은 철학이나 기법 중 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지 다시 고

민의 홍수에 빠지기도 하고, 수업에 적용했다가도 시나브로 다시 원래의 수업 방식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개인 또는 공동의 연구대회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정말로 고민하게 되는 연구대회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문턱이 높아 원하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으며, 상시수업나눔교사제는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올해 한 명의 교사도 없었다. 컨설팅 장학과 동료수업 참관으로 배울 점도 많지만 40분 단위 시간 수업 준비와 공개에 매우 큰 부담이 있다. 동학년 교사와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는 많지만, 교사 연구실에서 고민하는 수업이나 학생의 문제를 동료교사와 깊게 연구해 보기란 쉽지 않았다.

세 번째는 연구회를 가는 것이다. 교과 연구회와 주제 중심 연구회 등 나와 비슷한 관심사나 고민을 가진 교사를 찾아 수업을 함께 고민한다. 이럴 때 연대나 공동체의 힘을 실감한다. 연구회의 경우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학교에서 일하다 오는 선생님, 가정으로 돌아가 또 다른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선생님에게는 저녁이나 주말에 하는 연구회 활동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다. 학교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다

행복학교 1년차에는 교감선생님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맡아 혁신학교 한해살이를 소개하는 ‘책 나눔’과 수업 나눔의 날에 공개수업을 하는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사전 협의회와 사후 협의회를 진행했다. 사전 협의회 후에도 교실에 돌아가면 수업 공개 교사의 고민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협의한 내용과 다른 수업 활동 및 과정이 전개되기도 했다. 공개 수업 구성과 전개의 몫과 부담감을 개별 교사가 크게 가지고 있었다.

행복학교 2년차에는 전근 온 지 6개월째인 교장선생님, 3월 전입한 교감선생님과 네 명의 초등교사 그리고 영양교사까지 앞바퀴 교원이 빠진 자리를 뒷바퀴 교원이 빼곡하게 채웠다. 2년차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행복학교 담당교사가 운영을 맡고 교사 의견을 수렴하여 수업 나눔의 날에 교사별 수업을 공개했고, 전년도에 ‘수업 고민, 비우고 담다’ 초청 연수에서 익힌 ‘비담 협의회’ 방식으로 사후 협의회를 진행했다. 교원이 많이 바뀌었지만 1년차보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방식, 특히 횡수를 줄이니 학교 업무는 잘 진행되었으나 업무 회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생님과 마주치거나 이야기할 일이 드물어졌다. 6학년 담임이라 5학년 선생님과 가장 높은 3층에 오른 상태로 수업도 가장 늦게 마치다보니 더 그랬다. 수업 친구인 두 분의 선생님과 했던 팀티칭 수업 협의는 한 해의 행복한 기록과 기억으로 남았다.

각 교실에 머무르던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반 교실 수업과 우리 학교 교육에 물음표를 가질 때, 손을 내밀어야 할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학교 밖 공동체보다 우리 학교 교육의 전문가인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었다. 우리는 좀 더 자주 만나기로

했고, 특히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한해살이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자고 했다. 행복학교 3년차, 담임교사의 행정업무를 좀더 덜어내어 업무지원팀이 지원하도록 업무를 분장하였고, 그로 인해 확보하게 될 일주일 중 최소 1시간의 시간을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내어보기로 했다. 2019년 3월부터 주 1회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모든 교원이 같은 공간에 둘러앉아 마주보며 우리의 교육과정과 수업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다.

2. 전문적학습공동체,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가.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무엇인가요?

2019년 도내 전 학교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학교회계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예산도 편성하도록 했다.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만나 연구하는 것이 기꺼이, 즐거운 일일까?

지금까지의 학교의 교원 역량 강화·지원 시스템은 교사 개개인이 역량을 높이는 방식, 상대적인 평가 방식이 큰 틀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은 개별 교사의 몫이 컸다. 기존의 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혁신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학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위학교 교원들이 함께 모여 집단지성으로 학교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협의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다른 지역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수업공동체, 수업평가공동체 등의 이름으로도 부른다. 경남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임이다. 교사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교의 역량을 키우고, 교실을 열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함께 연구며 전문적 지식을 축적해가는 공동체이다. 그 바탕은 ‘동료성’에서 출발하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여 수업을 혁신하며 수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가고자 함이다.⁶⁾

행복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배움과 협력의 토대 위에 성찰, 소통, 공감을 지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형 학교’다. 학생은 지식의 창조자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교육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가며, 교사는 협력하며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키워 간다. 이에 주요한 학교 교육활동이 바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일 것이다. 그래서 행복학교 4대 과제 중 하나의 단독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의미 있게 운영하려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무

6) 경상남도교육청. 2015. 『배움과 협력이 있는 행복학교 정책이해』

엇인지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학교와 교원이 무엇을 얻고자하는지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껴야 그로부터 자발성이 발휘된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띤 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다. 하나는 집단지성의 학습공동체 운영; 책 나눔 등 자발적 교사 연구 모임 운영, 질 높은 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 컨설팅 활동 등이고, 또 하나는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학년별 수업 나눔 활동, 배움중심수업 동아리나 수업 친구 운영 등이다.

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준비하기

시기		활동 주제	활동 내용	비고
2월	4주	따뜻한 관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첫 만남에 따른 관계 형성 활동하기 (손놀이, 짝 인터뷰-나누기 활동) ● 자체 진단을 통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간 활동 내용 및 방법 토의하기 	새학년맞이주간
		교육과정 이야기와 따뜻한 관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함께 들여다보기 ● 다량이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감 약속 만들기 	

표 1. 새학년맞이 주간 운영에 다량이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간 활동 준비하기

1)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자체 진단하고 계획하기

새학년맞이주간에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준비했다. 앞서 살펴본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정의를 바탕으로 역할과 기능을 진단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성찰 질문으로 시작하여 다음의 관점으로 자세히 진단하고 처방해 보았다.

관점 ①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공동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

- 처방: 학교 비전에 맞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디자인하여 실천하기

관점 ②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가?

- 처방: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관계 형성하기

관점 ③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협력적 연구를 하고 있는가?

- 처방: 수업 혁신을 위해 집단지성을 통한 공동 연구하기

관점 ④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 처방: 공동 연구를 교실에서 수업과 생활교육으로 실천하기

진단 후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적 연구 활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처방하고, 연구 활동 내용 및 방법을 토의하여 결정한 후 1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감 약속(운영 규칙) 만들기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참여와 협력으로 책임과 약속을 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하려면 적절한 약속이나 규칙이 필요하다. 역발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방해하거나 망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면 필요한 규칙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랑이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감 약속

1. 편안한 분위기로 돌아가며 말해요.
2. 발언권은 1인 1회씩(가급적 1인 1회 이상, 독식 지양)
3. 한 번 발언에 2분 넘지 않아요.
4. 의견이 없을 때는 발언권 넘길 수 있어요.
5. 연관된 이야기가 있다면 이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림 1. 남명초 다랑이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감 약속

3) 운영 예산 확보 및 협력적 배움의 분위기 형성하기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지원한 학교회계 예산으로 2020학년도에는 교원 1인 당 30,000원을 확보하도록 시달되었다.(2020.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1인 당 40,000원) 컨설팅 장학, 연수, 교사용 도서나 자료 구입 등을 할 수 있다.

배움의 공간 속 테이블은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원형, 소집단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목적에 맞게 진지한 토의·토론이 필요한데 지친 일과 후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수렴하는데 있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신선한 다과도 도움이 되고 때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음악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았다. 연구가 잘 일어나는 분위기도 중요하게 여겼다.

다. 집단 지성으로 연구 활동 계획하고 실행하기

실습

우리 학교 선생님과 공동체를 운영할 ‘필요성’이 생기니 ‘자발성’이 더해졌다. 운영 시간은 매주 목요일 3시 20분부터 시작하여 퇴근 시간 10분 전인 4시 30분까지 운영하기로 약속했고, 시간이 되면 모였다. 학급에 특히 집중해야 할 학기 초와 휴일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있는 모든 교원이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다. 교육과정과 수업이라는 재료 속에서 교원이 협력하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다.

시기	활동 주제	활동 내용	비고	
매월	1주	교육과정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학년 교육과정 협의, 학급 살이 나누기 	활동내용은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주	따뜻한 관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세우기, 자존감 높이기, 철학 공유(회복적 생활교육 서클, 필요 시 독서 토론 도서 선정 및 함께 읽고 나누기 등), 자율 연수 	
	3주	교육과정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학년 교육과정 협의, 학급 살이 나누기 	
	4주	수업 나눔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및 교실 공개, 수업 성찰 협의회, 교사 희망 시 수업 코칭·컨설팅 병행 	

표 2. 2019. 다람이 전문적학습공동체 주별 활동 개요

1) [공동체 만들기] 따뜻한 관계를 만들다

; 교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덜어주기

교실 속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에 교사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을 꺼내어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지지와 격려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매월 2주 목요일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서클 방식이나 간단한 놀이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독서토론을 했다. 한 권의 책을 매개로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교실 속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꺼내어 보거나 집단지성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1학기에는 교원에게 책을 추천받은 후, 그 중 한 권인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를 선정하여 독서토론을 했다. 교육과 학생을 보는 관점,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와 해결하는 방법이 모두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2) [학습공동체 만들기]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다

; 학교교육과정을 학년교육과정과 수업으로 실행하기

7학급 규모의 작은 학교라 학교교육과정의 중점교육으로 계절학교, 학생 놀이문화 활성화, 학생 자치 활동 등을 운영할 때 무학년제 활동이나 전교생이 함께 하는 교육활동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행복학교는 회의하다 볼 일 다 본다.’고 하지만, 교직원이 모여 학교에서 할 일련의 교육활동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은 곧 수업 시간에 배울 문제와 내용,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매월 1, 3주째는 학교 교육과정 속 교육활동의 본질과 목적, 방침과 활동 등을 협의했다.

하나의 사례로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 놀이문화 활성화의 열개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무슨 놀이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도록 할지 구체적이지 않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에 학생이 자신들의 놀이문화를 만들기 위해 놀이의 종류와 노는 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고 함께 놀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지원할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반과 우리 학교 학생이 노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학생 놀이 문화를 진단하고 지원할 방향과 방법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교사들은 고민을 더하고 지원해 나갔다. 놀이의 본질과 목적, 방침과 활동 등 교육과정을 논의하니 그것이 수업의 흐름이 되었다.

3) [전문적학습공동체 만들기] 수업을 나누다

; 수업 공개, 수업 사후 협의회 등 수업 나눔의 날 운영하기

매월 4주 목요일에 8명의 교사가 연 1회, 한 차시의 수업과 교실을 공개했다. 이전에는 수업 공개를 하는 시간에 교원들이 수업 참관을 하러 가면 각 교실에 남은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활동을 자율 해결했던 적이 있었다. 2018, 2019학년도에는 중간놀이 시간 30분과 3~4교시 블록타임을 운영하여 마련한 10분의 시간을 더하여 40분의 수업을 공개했다. 오후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에는 '비담' 방식의 사후 협의회를 진행했다.

3. 전문적학습공동체, 나아갈 힘을 더욱 얻으려면?

가. 둘러보고 돌아보며 주변과 함께 가다

1) [교직원 다모임]과 함께 가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교원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약속과 실천으로 협력적인 배움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함께 학교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교직원의 소통과 협력 관계이다. 이를 만들어가는데 교직원 다모임이 중요하다. 다모임은 주로 회의로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이 구축된다. 가끔은 회의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위기 환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교직원 저마다 1인 1기여를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포트럭 파티나 실외 활동 등)도 열었다. 이러한 방식은 공동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했다.

2) [교육과정 평가와 워크숍]으로 이어가다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주 1회를 만나다 보니, 만남은 어느 새 습관이 되고 우리 학교의 문화가 되었다. 교육과정과 수업을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다보니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와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그대로 이어 학기말, 학년말에는 교육과정 워크숍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 평가 및 편성 활동을 진행했다.

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다

1) 함께 걸어온 선생님들에게 묻다

2019학년도 행복학교 만족도 조사 및 학교 자체 평가 결과 교사는 배움중심수업, 학생과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노력 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학교 및 학년교육과정을 녹여낸 교사교육과정을 재구성 실행 정도는 낮았다. 교내 교사 공동 연구가 교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과 교내 학습공동체가 학교 문화로, 수업 공개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수업 나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시사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2019학년도에는 배움중심수업에 앞서 우리 학교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다. 2020학년도에는 교사교육과정과 수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교 및 학년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큰 주제로 하여 교원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일상 수업 사전 공동 협의회 및 수업 공개로 ‘보다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동료교사들과의 공동 연구과 실천이 ‘보다 즐거운’ 학습공동체라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바라는 점, 그 목표를 재설정했다.

2020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워크숍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일상 수업의 질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한 결과 2020학년도 다량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매월 1주 배움중심수업 동아리 활동 (교육과정과 수업 고민 나누기, 주제 연수, 컨설팅 등), 매월 2주와 3주에는 배움중심수업 사전 협의회, 매월 4주에는 일상 수업 공개 및 사후 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SNS(‘남명 배움중심수업공동체’ 밴드)에 기록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는 SNS 주소를 연동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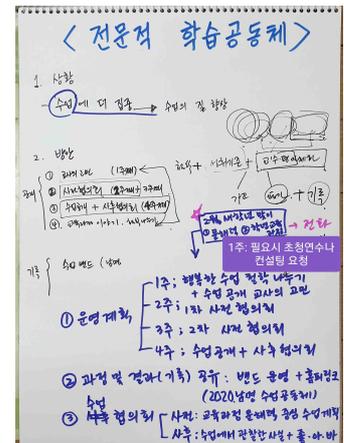


그림 2. 교육과정 워크숍 협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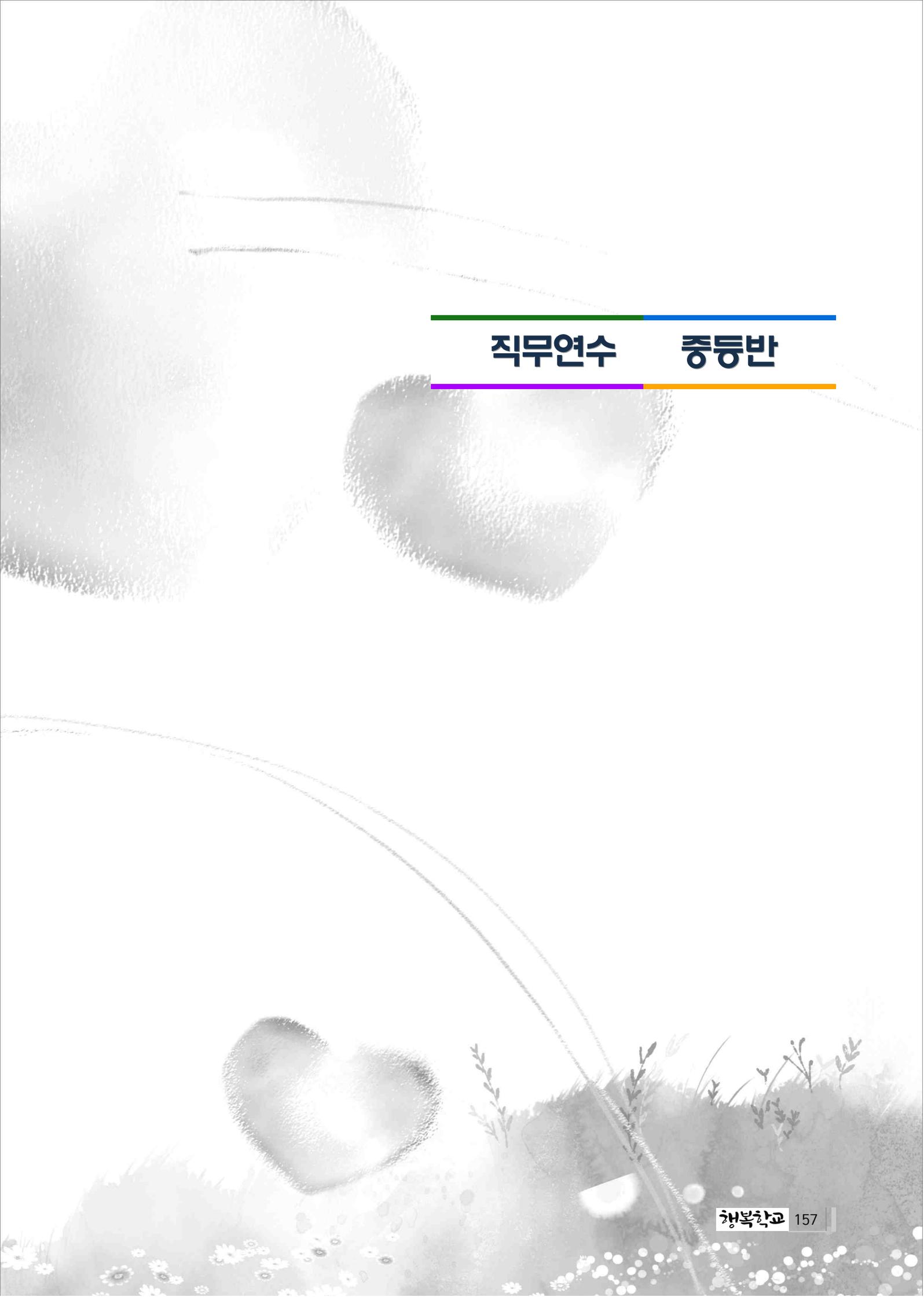
2) 실제 도움이 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들은 기꺼이 교실에서 나왔고 시간과 노력을 함께 들여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교실에서는 매일 4~6시간의 수업 활동이 연속하여 일어난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분절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일상적인 수업 나눔과 상시적인 공동연구 문화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교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고민, 실패와 성공 경험의 수업 이야기로 시작하여 ‘공동연구-실천-돌아봄-다시 나아감’의 과정으로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동체

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과정과 수업에 우리 학교와 학생을 보고 담으며,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서로 성장하는 교사를 마주 보며 함께 하는 연대의 즐거움을 담아내는 유쾌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다.

(e-mail : lady1258.yhs@gmail.com)



직무연수 중등반

교육과정중심의 학교 운영

(학년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김 은 수

(봉명중학교 교사)

1. 서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 속에 창의력을 키워낼 수 있는 과정을 담아내야 한다. 그렇기에 과목들은 따로 나뉘져 있지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연히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가르치되, 동시에 과목별로 나누어진 지식들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교육과정 속에서 살려내야 한다.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으로 바꾸려면 교재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업 과정에서는 아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사가 전문가로서 어떤 능력과 식견을 형성해야 하는지 등의 새로운 수업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료 교사와 더불어 구체적인 수업 실천에 대하여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움 중심의 새로운 수업을 위한 수업 연구는 학년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결국에는 전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개된 수업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임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동료 간의 연수를 만들어 교육 공동체의 관계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가. 봉명중에 ‘배움의 공동체’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을까?

- ① 2015년 수업을 힘들어하던 교사와 젊은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바꾸어보자는 운동이 일어남.
- ② 먼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교실의 좌석배치를 ㄷ자형으로 만듦.
- ③ 공개수업을 통해 수업의 새로운 시도를 널리 알림 - 강당공개수업이라는 큰 시도를 함.
- ④ 점점 수업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사들도 동참 - 전 교사가 공개수업을 하도록 학기초에 계획을 잡음
- ⑤ 공개수업이 학교의 문화가 됨. - 전입교사도 받아들이는 문화가 됨
- ⑥ 반드시 수업 전후의 협의회가 이루어짐. (사전협의-수업공개-사후 협의를 통

해 수업자의 부담이 줄어듦)

- ⑦ 공개수업과 협의회를 통해 학생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자
동적으로 학년생활교육이 이루어짐.
- ⑧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을 보는 안목을 키워줌.
- ⑨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공개수업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
가 강해짐.

나. 매년 지난해의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함

- ① 전임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연수를 학교
단위로 단체 신청함.
- ② 매월 학년 수업 교사 중심으로 학년단위의 공개수업을 방과후에 실시함.
- ③ 외부 공개 수업의 의미를 생각하며 새로운 시도를 함. 외부공개수업을 강당
공개수업→ 특별실에서 3개 학년이 동시에 여는 공개수업으로 바꿈
- ④ 2019년 전임교사와 신규교사가 15명- 새학년맞이 워크숍을 1박4일로 실시함.
(학교 전반적인 이해-2일, 학년단위의 교육과정과 프로젝트-1박2일)
- ⑤ 전임교사와 신규교사를 위해 기존 교사들의 수업 공개가 먼저 이루어짐.
- ⑥ 학년, 교과협의회가 상시 이루어짐
- ⑦ 학교 운영진들의 협의회는 매주 화요일 4시30분~9시까지 교장실에서 교장,교
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짐.-학교의 전반적인 사항과 애로점, 나
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마라톤 협의회가 이루어짐.- 생활교육, 교육과
정재구성,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 ⑧ 운영진 협의회를 바탕으로 매주 금요일 3시40분~ 학년협의회가 이루어짐.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협의회가 없다면 전문적학습공
동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봄. -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의지가
중요함.**

2. 본론

가. 공동체 철학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1) 학교 교육과정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

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전체 계획된 교육과정이다. 여기에는 교과활동, 생활 교육, 창의적체험활동 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담은 다양한 문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 교과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각 지역 교육청, 학교, 학년, 교과 내에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되어 있다.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교의 1년살이 나침반이자 지도이며, 밑그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성장의 목표이자, 과정(내용)이며, 그 결과이다. 그 교육과정 안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는 철학과 비전, 아이들의 삶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들이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교사 스스로 그 내용과 방법을 구안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교사의 본질적 활동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단순히 진학을 시켜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 좋은 교육과정을 갖고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이다.

2)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전에 필요한 것

학교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려면 그 학교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은 그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 실천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 정책연구팀 소속 이형빈은 살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채워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원칙을 수립해 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범주	대상	지향
살려야 할 것	교육이념	‘홍익인간’, ‘참교육’,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등의 보편적 가치
	성취기준	교과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
버려야 할 것	고난이도, 과도한 분량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적정화
	단편적 지식 위주의 교육과정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의 변화
채워야 할 것	학생의 실생활 및 경험과 연계된 교육과정 타 교과의 내용과 연계된 통합적 교육과정 학교를 넘어선 사회적 실천, 미래지향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고민해야 할 점이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null) 교육과정이다.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로 해석되고 전달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null)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수업 또는 학교의 관행으로 학생들이 은연 중에 배우게 되는 가치, 태도, 행동 양식으로 경험된 교육과정이다. 과학시간에 실험 기자재가 부족하여 개인 실험 대신에 조별 실험을 시켰더니 학생들이 협동심이 길러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null)’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영(null) 교육과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적인 문서에 들어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내용이다.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과나 지식, 가치, 태도, 사고양식을 말하며 아이즈너가 개념화한 용어이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조선어교육을 배제시킨 것 등이 있다

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생각하다

1) 교육과정 - 수업 - 평가 방향

교육과정 혁신의 방향은 교과서 진도 나가기 식의 교육과정 극복이며 교사의 자율적 전문성과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핵심원리 중심으로 적정화된 학습량을 질 높은 교실수업으로 구현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며, 교수학습과 연계한 과정 평가 실시이다. 곧 수업 방법을 개선하여 강의식 수업보다는 협력학습, 토의·토론 학습, 체험학습, 탐구학습을 통한 배움 중심 수업을 권하고 있다. 평가 방법 또한 지필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술, 구두, 듣기 평가 형태의 수행평가에서 프로젝트형 평가, 체험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일방적 강의식 수업 극복으로 학생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배움 중심 수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평가에 영향을 주어 학생의 서열화를 위한 일제식 평가를 극복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교육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었던 제도적 뒷받침도 있었다. 혁신학교 확산, 자유학기제 도입(2015년), 학생부 전형 확대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서는 교과 간 장벽과 입시 관행으로 수업과 평가 혁신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왜 필요한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찰하여 필요한 교육과정(학교-학년-교실, 지역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

하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교 실정, 지역 사회, 학교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새로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재구성은 왜 필요한가?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한계이다. 교과서를 제작할 때의 상황과 지금 학교 현장, 사회적 상황이 다르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사회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 통섭적 능력과 지식의 재구성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윤리 의식, 안전, 추모 등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풀어낸 것도 그 예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어려움이다.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교실에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그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 스스로 탐구하는 배움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강의 형태 수업에서 수업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사는 수업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3)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지는 의미

교사로서 ‘전문가의 권리’이다. 교육과정에서 객체로서의 교사가 아닌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교사인 것이다. 교사에게 전문가이기에 주어진 독립적인 자율성과 재량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와 함께 모든 교사는 자기 나름의 철학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을 만나야 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육활동을 한다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자기만의 교육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시험을 치고 점수만 받아가는 곳이라면 교사와 학생, 학교라는 공간이 필요할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만 생각한다면 EBS 방송 교재와 방송만 보면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곳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 협력적 배움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배움을 일으키기 위해 협력적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교육활동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다.

4) 학교 교육과정 만들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

‘교사 공동체’이다. 연구와 계획, 실행의 견인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의 구심점으로 교사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교육과정 실행자뿐 아니라 계획자, 연구자, 탐색자로서 교사여야 한다. ‘교과 전문가’임과 동시에 교육 철학과 사회적 실천력을 지닌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독서와 토론, 실천을 통한 교사 자신의 성장이 필요하다.

다. 교과 교육과정 만들기

1) 교과의 교육 목표를 고민하자.

교과의 궁극적인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자. 단순히 교과서 속의 내용을 잘 알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교과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국어과의 경우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알고 쓸 줄 알며, 상호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민주시민(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줄 알며, 이를 통해 협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만들고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교사의 철학을 세우고, 교육과정에 반영하자.

수업도, 교육과정도 결국은 교사의 철학이 녹아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 아이들과 함께 내가 만들고 싶은 수업, 아이들을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하는지,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배우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게 하고, 교사 자신도 배우는 존재로서 함께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아이들과 그런 생각을 공유하자.

3) 교과서를 극복하자.

교과서는 전문가들이 다년간 연구를 통해 만든 훌륭한 교재이다. 그렇다고 별 고민 없이 교과서 속의 제재를 읽고, 활동을 정리하면서 수업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사는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한 기능인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이미 수많은 출판사에서 자습서와 문제지를 출간한 상황에서 그것에 의존하여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가능할까? 교과서를 골격으로 하되, 그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 해석하여 각각의 단원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보조 자료와 교재의 개발, 활동을 디자인해야 하지 않을까?

4)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세트화하자.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전체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수업 속에서 그런 교육과정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수업이 곧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상해 보자.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지금의 평가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정기 고사를 통해 그동안 배운 내용을 테스트 하는 평가가 아니라 교사별, 과정별, 수시 평가가 가능하도록 고민해 보자.

5) 교과 통합(융합)적 사고와 접근을 하자.

그동안은 교과 간 단절이 심해 타 교과의 교육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는

통합(융합)적 인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다른 교과와 수업을 참관하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다른 교과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활동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래야 깊이 있고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6) 학년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자.

학년마다, 지역마다 학생들의 특성이 많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기에 집중해야 할 교육 목표를 고민해 보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

7) 지역화 할 내용과 지역 연계를 고민하자.

지역 인프라(자원)를 활용하면 교육과정은 더 풍부해지고, 내용도 더 깊어질 수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목표의 하나이기도 하다.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학습 주제와 활동을 고민하고, 전문기관이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자.

8) 시기, 계절, 계기, 교과 간 지식 연계를 고려하여 재구성해 보자.

교과서의 단원 차례는 교과 지식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기와 계절, 계기 등을 고려하여 단원과 주제를 재구성하고, 교과 내용과 깊이가 담길 수 있도록 시도해 보자.

라. 교육과정의 몇 가지 지향들

-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하나의 비전 아래 수렴되는 교육과정
- 철학과 영혼이 담긴 교육과정
- 시대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교육과정
- 구성원 모두가 지향과 플랜을 공유하는 교육과정
- 고정된 틀이 아니라 유연한 방향성으로서의 교육과정
- 제대로 된 배움을 일으키는 교육과정
- 지성-인성-감성-공동체성의 조화로운 추구

마. 교육과정 만들기 로드맵 제안

1단계	학교 비전(철학) 수립	4단계	학년 교육과정 수립
2단계	비전에 따른 역량 수립	5단계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3단계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활동(학교, 학년, 학급, 교과 등)		

■ 그 외 이어질 일들

- 교육과정 편제표 점검 (학년별 주요 편성 교과 및 선택 교과 등)
- 학교 연간 일정 및 월간, 주간, 일일 시정표 확정하기
(창체 시기, 각종 행사 배치, 통합 프로젝트 및 블록 타임제 여부 등 세부화)
- 업무 분장 및 부서 조직 등 협의하기
- 학교 비전을 담은 “학교 헌장” 만들기
- 교과별 교육과정 구체화 / 학년 공동 프로젝트 내용 구체화 (2월 확정)

바. 교육과정 재구성 만들기

1) 학교 비전(철학)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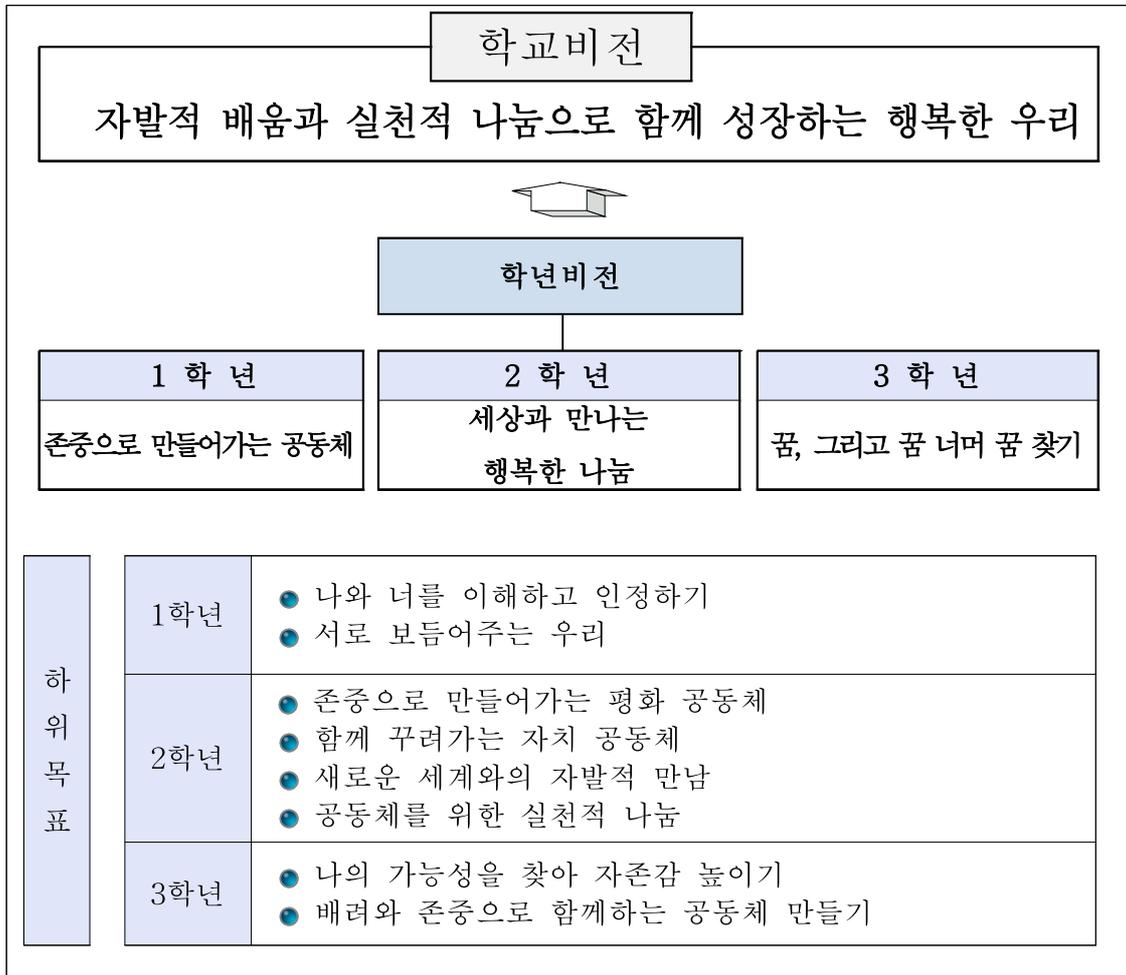
학교 비전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왜’ 기르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지향점을 세우는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첫 단계는 학교 철학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을 기르려 하는 것인지를 먼저 명료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낱알의 교육활동들은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된 방향으로 각각 작용하기도 한다.

학교 철학 세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학습자의 삶에 있어서도, 시대적인 요청에 있어서도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실은 이 질문은 교사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삶의 자세와 만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철학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최선의 답을 내놓으려 노력한다면 학교 철학의 긍정적 작용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우리 스스로 “사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목표가 없는 학교는 없다. 교육목표가 아름답지 않은 학교도 없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 교육목표에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와 ‘진정성’이 담긴 학교는 드물다. 또한 그 교육목표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학교는 더더욱 드물다. 영혼과 울림이 있는 교육 비전은 그 자체로 추동력을 가지고 학교 교육을 이끌어간다.



<봉명중학교 2019 비전 예시>

2) 비전에 따른 핵심 역량 선정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지식 중심에서 역량 기르고자 교육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활용되지 않는 지식’ 교육보다는 역량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자이다.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부터 지식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다. 단위 학교별로 ‘핵심 역량’을 정하여 교육활동을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학교의 핵심 역량을 선정하여 보자.

- * 총론 -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 자기 관리 ▪ 지식정보처리 ▪ 창의적 사고 ▪ 심미적 감성 ▪ 의사소통
 - 공동체 역량
- * 교과별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핵심 역량]

3) 핵심 역량을 실현 할 수 있는 교육활동

각 핵심 역량에 따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나누어보자.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교육활동이 있을 것이다. 그 교육활동을 실현 가능성에 따라 학급, 학년, 수업, 전체 교육 활동으로 분류가 필요하다.

4) 학년 교육과정 수립

새학년 맞이 학년 워크숍 때 학년별 교육과정 중심 주제인 가치나 비전을 선정하면 그것이 학년 중점 목표인 것이다.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하위 목표(내용)를 정하는 과정이다.

그때 그 학년만의 구체적인 학생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단순히 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진단을 받아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출발이 잘못되면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후 학년 비전과 하위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학년에서 실현할 교육 활동을 어디에서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제 통합 프로젝트, 창체, 수련회 등 학년 활동에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활동1 '학년비전' 세우기

- 1) 아이들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공동 실천 비전
- 2) 학교교육과정의 연차별 체계화, 집중화를 통한 구현

활동2 '학년비전'을 실현할 학년별 교육과정 짜보기

- 1) 학년은 교육과정운영과 생활교육의 자율적 단위
- 2) 학년프로젝트수업, 생활교육을 통해 실현

5)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1) 교과 교육과정 확인 및 교육 철학 정하기

교과 교육과정에서 큰 그림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나는 왜 이 교과를 가르치는가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활동1 확인 및 교육 철학(비전) 정하기

1. 교과 교육과정 확인
2. 학교 교육목표 확인- 학교 교육을 내 교과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3. 나의 교육 철학(비전) 구체화
 - 나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
 - 나는 왜 이 교과를 가르치는가?
 - 아이들이 내 교과를 배운 후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예) 재료인 교과를 통해 학생을 만나 세상을 이야기한다.

활동2 교과 비전(철학) 실천

1. 나의 교과에서 내가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핵심어 10가지 적기

- 교과 교육내용 및 나의 교육철학을 고려하여

예) 국어과: 소통/성장/창작/공감/문해력...

2. 나의 수업 방안 5가지 확립하기

예) 일상의 경험과 교과 지식을 연계하여 되돌리기한다.

교과 관련 독서를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과에 대한 흥미를 일깨운다.

(2)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2단계)

(가) 개념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취지나 한계를 성찰하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교사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나) 근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 총론)

(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원칙

; 살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채워야 할 것을 고민한다

(라)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들

- ① 단원들의 통합, 축소, 이동
- ② 텍스트 변경, 추가
- ③ 활동 변경, 재창조
- ④ 새로운 주제 단원 만들기
- ⑤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되 단원 및 주제 등을 전면 재구성
- ⑥ 통합 /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만들기

(마) (1학기) 교육 과정 짜기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가지고 수업**

* 교과 성취기준을 통해 수업 주제를 정한다.
 * 주제는 교재에서 아이들과 무엇을 중심으로 추구할 것인가, 그 주제를 수업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있게 다루는가에 따라 배움의 질이 결정된다.
 * 단순하게 만들면서 양을 줄이고, 수준은 높여야 한다.

[활동] 단원별 세부 내용 및 활동 계획, 평가 계획 구상 : [자료] 참고

2019학년도 1학기 (국어)과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 년	(3)학년	
				담당학급	(1)반 - (7)반	
				담당교사	김은*, 양소*	
주	기간	시수	대단원	소단원/수업내용	지도중점사항/성취기준	비 고
1	3.4~3.8	2	마음열기	수업 및 평가 계획 안내 ▶ 서로 마음 열기(다시, 첫 마음으로) ▶ 학년 비전 연계 수업	▶ 국어 수업과 평가 계획 및 방향 소개 ▶ 공책 만들기 및 국어공책 사용법 소개	시험식일학식(3.4) 기초화력인문평가(3.5)
2	3.11~3.15	4				
3	3.18~3.22	4	4. 문학과 시대 상황 * 화진가 (관동 어미 화진가)	•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 파악하기	2351-1. 문학적 표현 방식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그의 의미와 문학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학년공개수업(3.20)
4	3.25~3.29	4	<학년프로젝트> 봄을 풀어봅시다	• 봄과 관련된 시 짓고 암송하기	2351-2.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동아리초점(3.20)
5	4.1~4.5	4	3.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 높임 표현, 시간 표현과 부정 표현,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설명하기	2349-1.2349-2.2349-3.2349-4.2349-5. 높임·시간·부정·피동·사동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리더십캠프(4.5~4.6)
6	4.8~4.12	4	2. 표현과 설득 전략 (1) 다양한 시 활용	• 표현방식(언어, 역설, 비유와 상징)에 유의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 시 쓰기를 통한 표현기법 익히기	2351-1. 문학적 표현 방식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그의 의미와 문학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2351-2.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영어듣기평가 (4.9~4.11)
7	4.15~4.19	4	3.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 <생활호 추모> 학년자치 연계수업 2. 표현과 설득 전략 (2) 양반전. (글꼴도 종이 될 수 있다)	• 높임 표현, 시간 표현과 부정 표현,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설명하기 • 생활호 관련 작품 읽기 • 글에 담긴 의미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글의 가치 생각하기 • 풍자의 표현 방식과 작가의 태도 이해 • 광고의 표현 방식과 설득 전략 이해	2349-1.2349-2.2349-3.2349-4.2349-5. 높임·시간·부정·피동·사동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2329-1.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2354-1. 문학적 표현에 담긴 작가의 태도와 표현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2314-1. 다양한 설득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학년공개수업(4.17)
8	4.22~4.26	2		• 1차고사		1차고사(4.25~4.26)
9	4.29~5.3	3	1. 삶의 기록과 성찰 * 스티브잡스 연설문 * 향아리/꽃들에게 희망을	•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서전 쓰기 (주제 수행평가)	2329-1.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2337-3.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개교기념일(5.1) 학생건강체력평가(5.3)
10	5.6~5.10	3	<진로탐색보고서> <자서전쓰기>	• 진로 탐색 보고서 쓰기 • 글에 담긴 의미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글의 가치 생각하기	2363-3.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다. 2357-2.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진로공개수업(5.8)
11	5.13~5.17	2	* <학년프로젝트> <진로캠프> 공동수업 및 진로캠프	• 진로캠프 관련 공동수업 및 진로캠프	2337-3.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수학여행(5.14~5.16) 수련회, 진로캠프 (5.15~5.17)
12	5.20~5.24	4	4. 문학과 시대 상황 * 수난시대 (운수 좋은 날, 대리사회, 고궁을 나오면서)	•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 파악하기 • 시에 반영된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작품해석하기	2356-1.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 등을 통해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13	5.27~5.31	4	5. 토론과 주장 (1) 토론하기	• 6모둠을 3가지 주제의 찬반으로 나누어 토론하기 • 공청회 관련 자료 공유 및 토론	2316-1. 다양한 논제에 대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316-2. 규칙을 준수하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년공개수업(5.29) 수학여행중유의 날(5.31)
14	6.3~6.7	3	<학생자치> 생활규정공청회			학생생활규정공청회 (6.4~6.5)
15	6.10~6.14	4				학년공개수업(6.19)
16	6.17~6.21	4				
17	6.24~6.28	4	<김해 책 도서관레이> 참가	• 올해의 김해 책 <당신이 옳다> <숲으로 간 사람들> 읽고 이야기 나누기	2310-2.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말할 수 있다.	
18	7.1~7.5	2		• 2차고사		2차고사(7.2~7.3)
19	7.8~7.12	3				동아리발표회(7.12)
20	7.15~7.18	2	방학과제 안내 및 준비	• 방학과제 안내 및 준비 <진로탐색 후 직업인 인터뷰>	2337-3.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글을 쓸 수 있다.	학급발표회(7.17) 방학식(7.18)
<p>* 23510-2.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말할 수 있다. (독서 수행평가)</p> <p>* 2351-3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 그 느낌을 살려 암송할 수 있다. (시 암송 수행평가)</p> <p>* 독서공동수업 : 각 월의 마지막 주에 수업<학년프로젝트> 진로캠프 연계 : 꽃들에게 희망을, 향아리, 김해책, 학급별 선택 도서 3권></p> <p>* 주제 프로젝트 수업 :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평가</p>						

너와 나,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을 위한 국어수업		단원명	<교육과정 재구성 3학년 진로프로젝트>	
주제		1. 삶의 기록과 성찰 (1) 의미 있는 삶 (항아리/정호승)		
학습지 주인	3학년 ()반 ()번		이름()	학습지 번호 1학기-

✓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나 마음에 와 닿는 인상적인 구절에 줄을 그으며 읽기 ⇨ 다 읽은 후 이야기 나누기

① 나는 한 젊은이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젊은이가 처음으로 만든 항아리라서 좀 못생긴 항아리로 태어났습니다.

“에이, 뭐 이래? 이거 정말 못생긴 항아리잖아.”

가마 속에 들어갔을 때 불타 죽는 줄만 알았지, 내가 다른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가 항아리로 태어났으니 그 얼마나 스스로 대견스럽고 기쁘던지요.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기쁨일 뿐 젊은이는 울퉁불퉁하게 생긴 내가 보기 싫었는지 나를 멀리 마당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잊혀졌습니다. 내 가슴은 무척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소중한 쓰일 데가 있을 거야. 세상에 항아리로 태어난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버려진 하나의 항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빗물이 고이고, 고인 빗물에 흰 구름, 가랑잎이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고, 밤에는 이따금 별빛들이 찾아와 줄 뿐이었습니다.

② 그러던 어느 해 가을날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낙엽을 헤치고 땅을 깊게 파고는 모가지만 남겨둔 채 나를 땅에 묻고 돌아갔습니다. 내 가슴은 뛰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소중한 무엇으로 쓰여지나 싶어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 날 밤이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에 휘영청 걸려 있는 달그림자를 밟으며 나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는 젊은이의 발소리가 내 머리맡에 와서 딱 멈추었습니다. 아,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젊은이가 바지춤을 끄르고 나를 향해 갑자기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그만 오줌독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 온 것이 고작 오줌독이 되기 위한 것이었나 싶어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젊은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오줌을 누고 갔습니다.

‘내가 오줌독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결코 그렇지 않아. 소중한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서일 거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오줌독이 되어 가슴 가득히 오줌을 담고 살게 되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자 오줌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내 몸이 그대로 터져 버릴까 봐 조마조마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터지면 안 돼. 터지면 내가 죽어 버린단 말이야.’

나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강물도 녹아 흐르고, 얼어붙었던 오줌도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에는 내 몸에 가득 고인 오줌을 퍼다가 밭에 뿌렸습니다. 배추밭에는 배추들이, 무밭에는 무들이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나는 그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줌독이 되어 오줌을 모아줌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비록 오줌독이 되었지만, 항아리로 태어난 보람은 있다 싶었습니다.

③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오줌독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를 만든 젊은이가 세상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향아리를 만들던 가마터도 허물려 수북이 풀들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땅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이제 오줌독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번에는말로 다른 소중한 무엇이 되길 간절히 꿈꾸는 향아리였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향아리를 굶던 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몇 해에 걸쳐 일주문을 짓고 대웅전을 짓고 종각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절을 다 짓자 종각에 에밀레종보다 조금 작은 종을 달았습니다. 종소리는 날마다 새벽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들지 못하는 내게, 종소리는 새소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소리가 맑지 않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아니라 그냥 쇳소리야, 쇳소리!, 저런 걸 종이라고 종각에 매달다니!”

절의 주지 스님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④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 머리맡에 흰 고무신을 신은 주지 스님의 발이 와서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보시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으음, 이건 아버님이 만드신 향아리야. 이 향아리가 아직 남아 있다니 정말 놀랐군. 맞아, 이 향아리를 종 밑에 묻으면 좋겠군.”

주지 스님은 무슨 큰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얼굴에 환히 웃음을 띠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곧 종각의 종 밑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 종 밑에 묻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종 밑에 묻고 종을 치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소리가 텅 빈 내 몸 안에 가득 들어왔다가, 조금씩 조금씩 숨을 토하듯 내 몸을 한바퀴 휘돌아 나감으로써 참으로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에는 주먹만 한 우박이 세상의 모든 바위 위에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갈대숲을 지나는 바람이나 실비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이어지는가 싶으면 끊어지고, 끊어지는가 싶으면 다시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종소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비록 못생긴 향아리로 태어나 오랫동안 오줌독으로 버려져 있었지만, 참고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종소리를 담아내는 향아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소중한 그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의 삶이든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그 삶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만일 참고 견딜 수 없었다면 종소리를 담아내는 향아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요즘 스님이 종을 치실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맑은 종소리를 내는 일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내가 종소리를 담아내는 향아리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종소리를 낸다는 것이 내가 바라던 내 존재의 의미이자 가치였습니다.

[읽기 후 활동] 읽기를 끝낸 모둠은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나 마음에 와 닿은 인상적인 구절과 그 이유를 짝지끼리 나누어 봅시다.

[활동1] 내용 이해하기

1. 향아리의 삶을 정리해 봅시다.

- ① 향아리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함. 주인은 못 생긴 향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림
- ②
- ③
- ④

2. 향아리가 오랜 시간 버려져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아봅시다.

.....

.....

.....

[활동2] 함께 생각하기

<보기> 사람들은 종소리가 맑지 않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아니라 그냥 쇳소리야, 쇳소리!” “저런 걸 종이라고 종각에 매달다니!”
 절의 주지 스님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맑고 아름다운 종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3. ‘아름다운 종소리’에서 종과 향아리의 관계(역할)를 통해 향아리의 삶이 주는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종과 향아리의 관계(역할)	향아리의 삶이 주는 의미와 가치

4. 3번에서 정리한 향아리 삶을 생각하며, 비슷한 삶의 모습(사례)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봅시다.

[활동3] 더 생각해 보기<향아리>의 삶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어떤 의미와 가치로 다가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 평가 예시

보기의 「향아리」를 읽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한 향아리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자신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서술하시오. [25점]

<조 건>

1. 향아리가 처한 상황을 <보기>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향아리의 상황과 노력을 연결하여 서술할 것. [9점]
2. 작가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서술할 것. [6점]
3. 자신에게 일어난 배움을 2개 이상 서술할 것.(반드시 [바]와 연관 지어 서술하는 하는 것이 포함되게 할 것.) [10점]
4. 서술할 때 각 조건에 따라 문단을 구분하여 서술할 것. (조건에 따라 문단을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을 경우 1점을 감점)

학년 통합 프로젝트(월)

학년비전	
추진 배경	
주제	

교육과정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상제활동	상제활동

통합활동	
------	--

실시일자 수업시수								
--------------	--	--	--	--	--	--	--	--

2019학년도 ()학년 1학기 수업 계획 () 교과

시기	주제	단원	수업내용	성취기준	평가계획	학교행사
3월	1주					입학식 학급회 조직 반장선거 동아리 조직
	2주					
	3주					
	4주					
	5주					
4월	1주					사제동행 1차 교사
	2주					
	3주					
	4주					
5월	2주					수련회(1) 수학여행(2) 진로캠프(3)
	3주					
	4주					
	5주					
6월	1주					수련회(1) 수학여행(2) 진로캠프(3)
	2주					
	3주					
	4주					
7월	1주					작은 발표회 학생생활규정 공청회
	2주					
	3주					

학생자치

송 순 호

(봉명중학교 교사)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자치는 서로 돕아가요.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자치는 서로 돕아가요.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봉명중학교 자치는요...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봉명중학교 자치는...

학생회 자치
학년 자치
학급 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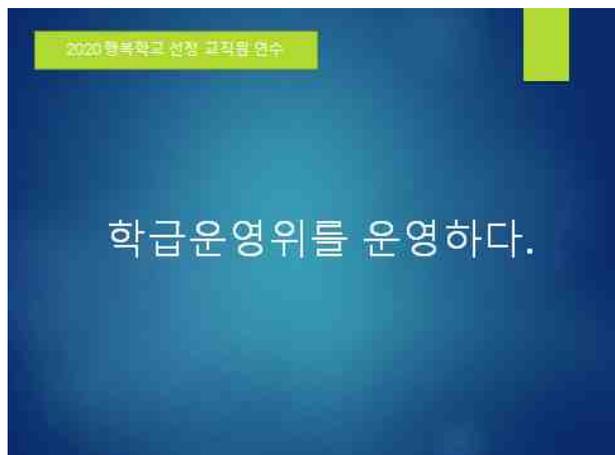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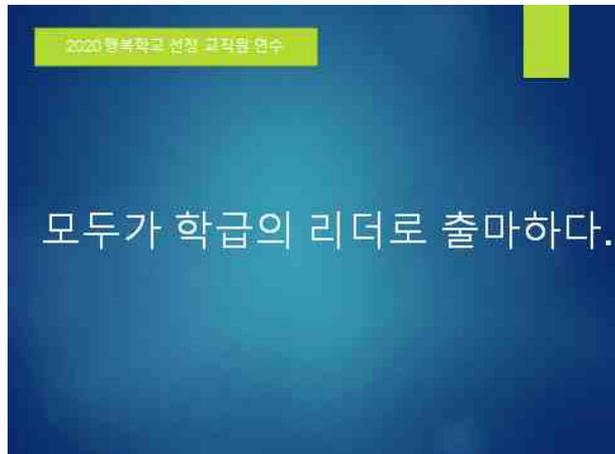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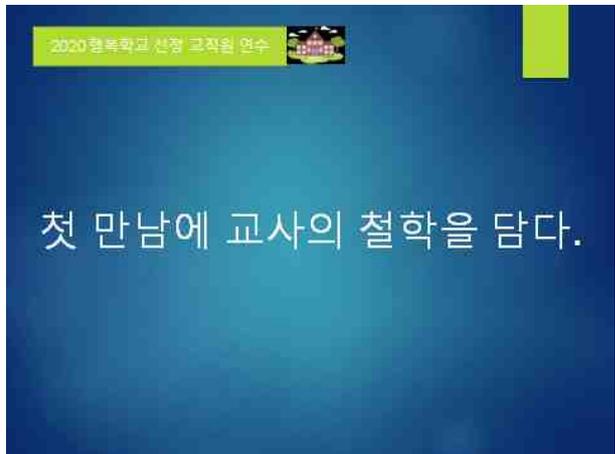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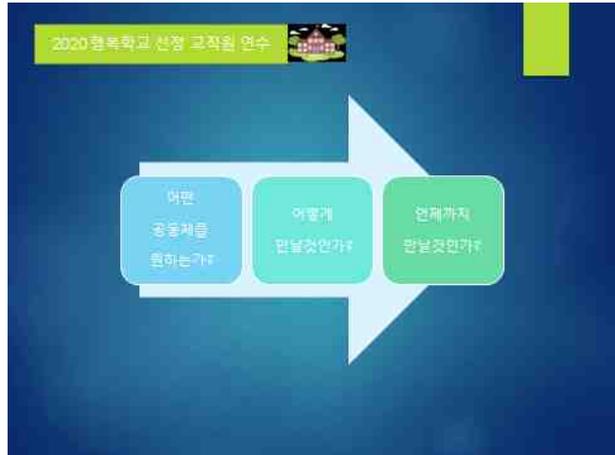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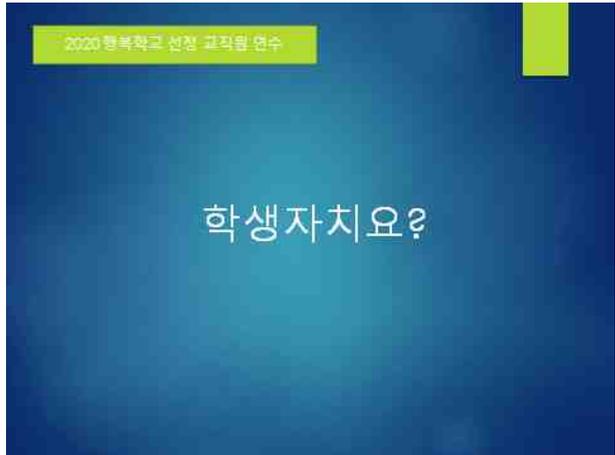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학급자치가 된다구요?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 학급자치 ★

평화공동체 구축
학습공동체 구축
프로젝트 역량 강화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이제 잘 되겠지?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자발적 리더가 없다.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뭔가 하고 싶어요

2020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연수

교사는 무엇을 할까요?



행복학교(2019-2022) 2019학년도 1년차 새내기 이야기

노 경 순
(진주제일중학교 교사)

2019. 행복학교 1년차 추진과제 및 선택과제

추진과제 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소중하고 참여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중하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조직원업무 경감 ◦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문화 만들기
추진과제 2	전문화 학습공동체 운영 - 배움과 나눔을 통한 상호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나눔의 날 운영으로 전문적 공동체 만들기 ◦ 함께 성장하는 수업공동체 운영 ◦ 지역에서 행복학교 실천사례 전파하는 거점학교 역할
추진과제 3	배움중심교육과정 -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만들기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 배움중심수업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준비능 보장하기 ◦ 성장중심의 평가 방법으로 개선
추진과제 4	소중하고 배려의 공동체 학교 영성 - 존중·배려의 공동체 문화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과 배려의 문화풍은 학교 문화 만들기 ◦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진주제일중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수업나눔)

일련	학년군	1학년군		2학년군		3학년군	
		교과	수업자(학년)	교과	수업자(학년)	교과	수업자(학년)
1 축 기	4/19(금)	사회	교00(1-1) (수업교사)				
	5/31(금)	도덕	차00(1-7)	영어	노00(2-6)	도덕	하00(3-8)
	6/14(금) (학년군개회일)	합동사					
2 학 기	9/27(금)	기타	말00(1-8)	수학	말00(2-2)	역사	말00(3-1)
	10/17(목) →10/18(금)	체육	말00(1-2)	수학	말00(2-8)	수학	말00(3-3)
구상명		수업교사, 차00, 노00, 권00, 박00, 권00, 양00, 김00, 이00, 박00, 김00, 양00, 정00, 김00, 김00 (이상 15명)		교장, 이00, 김00, 이00, 김00, 안00, 김00, 오00, 김00, 박00, 김00, 송00, 노00, 정00, 장00, 이00, 노00, 김00, 김00, 김00, 김00, 이00 (이상 18명)		교장, 권00, 김00, 김00, 장00, 남00, 장00, 배00, 김00, 장00, 장00, 이00, 노00, 장00, 장00, 이00, 김00, 김00, 장00, 박00, 김00 (이상 17명)	
협의 진행		차00 (1학년부장)		이00 (2학년부장)		권00 (3학년부장)	
협의의 목적, 수업계획서, 성취력, 자료관 역할 및 배부		말00		김00		차00	
공동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수업 평가 등 학년별 특이사항은 다함께 의논하고, 장려금 지원 등 학년별 특이사항 등일에 수합하여 보충 - 수업 공개 교사 : 수업계획서, 학생지도 등 총괄지, 수업성찰록 - 수업 관찰 교사 : 수업관찰록, 협의록(학년별) - 수업 출장(교무팀장업무사) - 수업 공개 시간 : 13시 30분 - 14시 15분(45분간) - 수업 협의 시간 : 14시 30분 - 18시 30분(100분간) - 수업 협의 장소 : 각 학년 협의실 - 수업교사, 교장, 교감은 순회 참 					

진주제일중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직무연수)



전학공 외에 행복학교 자체 운영활동



(목포대)

(학교 2년차)

전학공 일년 수업 성찰하기

1. 수업나눔교사 시상식
2. 1년 전학공 동영상
3. 포토제닉상 시상
4. 멘티미터를 통한 교사 소통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single column within a rounded rectangular fram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single column within a rounded rectangular frame.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single column within a rounded rectangular frame.

